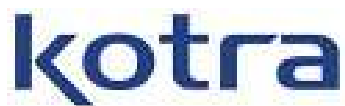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도미니카공화국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0
2. 주요 산업 동향 /19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45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51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55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60
대한수입규제동향 /69
주요인증제도 /72
지적재산권 /73
통관운송 /76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78
- 외국기업 투자동향 /82
- 우리기업 투자동향 /8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84
- 진출형태별 절차 /96
- 투자입지여건 /103

3. 사업관리

- 노동관리 /108
- 조세제도 /112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14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115
- 2. 물가정보 /117
- 3. 바이어발굴 /120
-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23
-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28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34
- 7. 이주정착 가이드 /135
- 8. 출장가이드 /138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위치	중미, 카리브해 중부해상 이스파놀라섬의 동부
면적	48,734km ² (한반도의 1/4)
기후	아열대성 기후, 연중기온 섭씨 19-28도, 평균온도 25도
수도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인구	약 9,7백만명(2008.1)
주요 도시	산토도밍고(220만 명), 산티아고(71만 명)
민족(인종)	메스티조 및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1%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 94%, 신교 3%, 기타 3%
건국(독립)일	1844년 2월27일(아이티공화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제
국가원수(실권자)	대통령, 레오넬 페르난데스(Leonel Fernandez)
입법부	양원제 (상원 32석, 하원 178석)
정당	○ 여당 PLD (Dominican Liberal Party) ○ 제1야당 PRD (Dominican Revolutionary Party) ○ 제2야당 PRSC (Social Christians Reformismists's Party) ○ 정부성향: 진보, 비동맹

나. 경제 지표(2008년 기준)

GDP	186.5억 달러('04년), 293억 달러('05년), 318억 달러('06년), 412억 달러('07년)
실질경제 성장률	12.2%('04년), 57.3%('05년), 10.5%('06년), 8.5%('07년)
1인당 GDP	US\$2,102('04년), US\$3,247('05년), US\$3,458('06년), US\$ 3,850('07년)
실업률	18.4%('04년), 17.9%('05년), 16.2%('06년), 15.6%('07년)
물가 상승률(CPI)	28.7%('04년), 7.4%('05년), 5.0%('06년), 8.9%('07년)
화폐단위	Dominican Peso (RD\$)
환율	1 달러 = 34.83 RD\$ (2008.9월)
외채	77억 달러('04년), 77억 달러('05년), 89억 달러('06년), 105억 달러('07년)
외환 보유고	10억 달러('05년), 17.9억 달러('06년), 29.4억 달러('07년)
산업구조	제조업(21.8%), 유통(10.6%), 건설(5.1%), 통신(8.1%), 농수산 (9%), 호텔, 관광(7.6%)
교역 규모	○ 5,936백만 달러('04년 수출), 7,888백만 달러('04년 수입) ○ 6,133백만 달러('05년 수출), 9,614백만 달러('05년 수입) ○ 6,440백만 달러('06년 수출), 8,745백만 달러('06년 수입) ○ 7,236백만 달러('07년 수출), 11,288백만 달러('07년 수입) ○ 2,899백만 달러('08년 1~5월 수출), 5,882백만('08년 1~5월 수입)
교역품	○ 수출 - 일반 상품: 페로니켈, 원당, 커피, 코코아 - 수출공업단지: 수혈세트, 신발부자재, 여승연, 신사복 ○ 수입 - 식품 등 소비재, 원유 등 원자재, 수송기계 등 자본재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다. 한-도미니카(공) 관계

체결 협정	문화협정 (1968), 사증면제협정 (1982), 과학기술협력협정(1982), 투자보장협정 (2006)
교역 규모	○ 73.9백만 달러('04, 우리나라 수출) ○ 121.8백만 달러('04, 수입) ○ 120.4백만 달러('05, 수출) ○ 68.5백만 달러('05, 수입) ○ 108.9백만 달러('06, 수출) ○ 87.2백만 달러('06, 수입) ○ 120.4백만 달러('07, 수출) ○ 126.2백만 달러('07, 수입) ○ 78백만 달러('08, 1~7월 수출) ○ 64백만 달러('08, 1~7월 수입)
교역품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류, 유화제품(수출), 페로니켈(수입)
투자 교류	20개사 공장 투자 진출, 국내 유치 전무
교민	550명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주도미니카공대사관 자료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제도 및 최근 정치동향

1) 도미니카(공) 정치, 선거 제도

- 도미니카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아라스트레(Arrastre)라는 정당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선에서는 상원의원, 대선에서는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의 득표율에 따라서 각각 정당 별로 하원의원과 시도지사 또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을 확정시키는 시스템 이다.
- 과거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매 4년마다 동시에 치러왔으나, '96년도 대선 이후 매 2년 마다 총선과 대선을 교대로 치르게 되어 있다.(선거일은 매 짝수 연도 5월16일 개최 되어 그 해 8월16일 직무 개시)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등 7명('99년 4월 2명 증원)으로 구성되며, 각 정당 별 비례로 하여 사회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확정된다.(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하고 임기는 4년)
-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정당은 집권당인 해방당(PLD), 야당으로 혁명당(PRD), 기독교회 개혁당(PRSC)등 3개당이 있다.

2) 최근 정치 동향

- 2008년 5월16일 치러진 도미니카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인 레오넬 페르난데스(Leonel Fernandez) 대통령이 53.8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방 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재선배경과 득표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짚어본다.

□ 재선 배경 및 득표 현황

- 이번 대선 투표율은 71.36%를 기록, 도미니카 국민의 높은 참여 열기를 반영했다.
 - 총 유권자 576.4만 명 중 411.4만 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무효표는 0.7%로 99.3%인 408.7만 표가 총 유효 투표 수이다.
 - 도미니카 정부는 선거관리 행정절차상 자신의 주소지에서 못하고 출생지에서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고려, 대선일인 5월16일은 물론 하루 전인 5월15일 정오부터 휴무령을 선포하여 투표율을 제고시켰다.
- 7명의 대통령 후보와 21개의 정당이 대선에 참가하였는데 11개 군소정당이 여당(PLD/해방당)과 제휴하였고, 3개 군소정당은 제1야당(PRD/혁명당)과 제휴하는가 하면 제2야당(PRSC/기독교사회개혁당)은 당내분파로 일부 세력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복잡하게 얽힌 합종연횡의 정치판도 속에서 12개 정당의 지지를 받은 여당의 레오넬 후보가 53.83%의 득표율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 이중 PLD 획득 득표 수는 44.94%로 과반에 미달했으나 제휴 군소정당 득표 수가 8.89%에 달해 무난히 과반을 넘기게 된 것이다. 대선 기여도가 가장 큰 요인은 제2야당인 PRSC표를 대거 끌어들이는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미겔 바르가스를 후보로 내세운 제1야당 PRD는 40.48%, 아마블레 아리스티 후보의 제2야당 PRSC는 표가 분산돼 2004년(8.14%) 대선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4.59% 득표에 그쳤으며, 여타 군소 4개당은 합계 1.1%에 그쳤다.
- 지역별로 보면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여당이 60.35%로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지방 31개주 중 경제개발 정도가 타주에 비해 뒤떨어진 4개주에서는 야당(PRD)이 여당(PLD)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북서지방 2개주(Valverde, Monte Cristi)와 북부 1개주(Maria Trinidad Sanchez), 중부 1개주(Sanchez Ramirez)
 - 제휴 정당 득표수를 뺀 지역별 순수 정당 득표율로는 PRD당이 32개 주(수도 포함)중 17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여당인 PLD당은 14개 주에서만 승리를 한 것으로 PRSC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동부 1개 주(Altigracia)는 PRSC당이 승리함.

□ 레오넬 대통령의 집권 약사 및 이번 대선의 정치적 의미

- 도미니카에서 1962년 트루히요(Trujillo)의 30년 독재 종식 이래 민주적 정당정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PRD당 창립자 Juan Bosch가 1963년 집권했으나 7개월 만에 쿠데타로 도중하차하고, 1965년 미국의 군사개입을 통해 1966년 Joaquin Balaguer가 3기 (12년)를 통치해 오다 PRD당으로 넘어가 2기를 집권했으며, 다시 PRSC의 발라게르 시대가 10년 연장된 끝에 1996년 현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최초로 집권, PLD당 시대를 열었다.
- 레오넬 대통령은 1990년 및 94년 2회에 걸쳐 PLD당 창립자인 Juan Bosch와 함께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 있었으나 고배를 마셔 PLD당은 집권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96년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조기대선 실시로 2차 결선투표에서 PRSC와 제휴하여 PRD의 Pena Gomez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따돌리고 1기 집권에 성공했다. (1차투표에선 PRD에 뒤처짐)

- 2000년 대선에선 PLD후보로 Danilo Medina가 나섰으나 PRD의 Hipolito Mejilla 후보에 밀려 PLD 시대는 일단 4년으로 막을 내렸으나 2004년 대선에선 집권당이었던 PRD가 2003년 은행 부도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 주범으로 몰리며 다시 PLD 후보로 나선 레오넬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57%라는 높은 득표율로 2기 집권기를 열었다.
- 올해(2008년) 대선에서 PLD의 레오넬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과반(54%) 득표율로 3기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PLD 시대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PRD당 후보도 득표율 40%를 넘겨 저력을 확인시켜준 반면 PRSC는 4%대의 낮은 득표율로 과거의 최대정당 지위를 완전 상실하게 되었다.

□ 향후 국정운영 방향

- 국내외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 2008~2012년 여당이 발표한 향후 4개년 국정청사진에 의하면 국정운영 5대 축으로 사회협약(Pacto Social), 역동적 경제(고용창출), 지속 가능한환경, 국민을 섬기는 정부, 책임 있는 대외정책 등이 꼽혔다.
- 동 청사진 속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대통령이 유세 시 거듭 강조한 것으로서 세계 식량위기 대처방안으로 도미니카를 카리브의 곡창지대(Granero del Caribe)로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바로 이웃나라인 아이티에서 금년 들어 식량폭동사태가 발발, 의회가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시킨 사례도 있으며, 도미니카에서도 식품값이 크게 뛰는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 국정청사진 중 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분야는 사회협약 부분 중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출 분야인데, 2012년에는 GDP의 최소한 12% 이상 14% 수준으로 사회지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플랜으로 보건위생, 교육, 주택, 상수도, 사회보장 등의 질적 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2002년 7.8%에서 2003년에는 6%대로 추락한 바 있고 2006년에는 IMF 지원으로 9.2%로 상승했으나 중남미, 카리브 지역 평균치인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주요 국정운영 추진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장정책 추구를 통해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빈곤퇴치를 위한 도미니카판 “잘살아보세 운동(Programa Vamos Arriba)” 추진
 -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마련을 위해 자가 건축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정주 플랜(Programa Arraigo)” 운영
 - 공중보건 향상을 통해 평균수명을 현재의 72.24세에서 2012년에는 74세로 연장
 - 60만 빈곤가정에 국민단합소득(Ingreso de Solidaridad)으로 월 30달러 이상 지급. 이중 저소득층 식대보조비를 550페소에서 700페소로 인상
 - 11,712개 교실 신축 및 증개축과 12학년까지(초중등교육전체) 의무교육제 실시,
 - 교사 평생 연수제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
 - 전력에너지 문제 해결: 경쟁적 가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대체연료 개발
- 향후 4개년 국정운영 청사진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약 성격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도미니카 경제사정이 긴축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와 그동안 억눌러왔던 물가가 대선 이후 터져 나와 거대한 인플레이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소비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문제가 국가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조금 혁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확대는 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어 현재까지 경제가 순항을 해왔음에도 성장을 추구하는 국정 운영이 긴축을 요하는 국내외 상황에 부딪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 참고로 2006.5.16일 총선에서는 여당인 PLD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여소야대 정국 에서 여대야소로 전환되어, 2006년 8월 16일에 상하양원이 새로이 구성되었다.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밝힌 총선결과에 의하면 상원에서는 총 의석 32석 중 여당인 PLD 당이 22석을 차지했고, PRD당과 PRSC당으로 구성된 야당연합(ALIANZA)이 10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하원에서는 총 의석 178석중 PLD당이 96석, 야당연합(ALIANZA) 이 82석을 획득했다.
- 또한 총선과 함께 실시된 151명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였는데, 여당 인 PLD당이 67석, 야당인 PRD당이 52석, PRSC당이 28석, 그리고 군소 정당 이 4석을 차지하였다.

나. 국가 조직

1) 행정부

- 1994년 개정 헌법에 기초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치제도는 행정, 입법, 사법 등 3권 분립과 민주, 공화, 대통령제로 규정된다.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매 4년마다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개헌으로 중임가능), 자신이 임명하는 16명의 각료로 정권을 구성한다.

2) 사법부

- 1822년도 아이티(Haiti) 지배 하에 있는 동안에 도입된 나폴레옹 법전을 1844년 공식 법률 체계로 인정한 도미니카공화국의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이면서 동시에 관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은 특징이 있다.
- 법원제도는 프랑스식 제도에 기초하여
 - 가정법원(Camara de Paz)은 1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사소한 사건이나 법률로 별도로 정한 사안만을 관할
 - 1심 법원(Camara de Primera Instancia)은 1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각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당 1개의 법원이 있으며, 다른 법원의 관할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을 담당
 - 항소법원(Corte de Apelacion)은 5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5개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 포함, 각 구역별로 1개씩의 항소법원이 있어 1심 법원의 재판과 판결 내용 심판
 - 대법원(Suprema Corte Justicia)은 최고 법정으로서 9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1, 2심 법원에서의 재판과 판결의 합법성에 대하여 재 심판.
 - 이 밖에 행정재판소(Corte Administrativa), 노동재판소(Tribunal Laboral), 교통재판소(Tribunal), 토지재판소 등의 특별재판소가 있다.

-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배심원이 없어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며, 재판장은 대법관 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Magistrados)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프랑스의 법률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사법부의 행정과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의회

- 도미니카공화국의 의회는 양원제이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며, 국회 의원은 매 4년마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상원(Senado)은 수도권과 29개 행정 구역을 대표하는 32인으로 구성되며, 하원(Camara de Diputados)은 인구 5만 명 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된다. (2006년 하원은 총 178명으로 구성)

다. 주요 인사

(2007.12월 기준)

대통령	Leonel Fernandez(전 대통령 역임)
부통령	Rafael Alburquerque(변호사)
경제기획부 장관	Montas(대통령수석비서관)
농업부 장관	Salvador Jimenez(상원의원)
국방부 장관	Ramob Aquino Garcia(군인)
교육부 장관	Alejandrina German(교육전문가, 대통령 교육분야 고문)
재무부 장관	Vicente Bengoa(경제관료)
외무부 장관	Carlos Morales Troncoso(전 부통령 2회 역임)
상공부 장관	Melanio Paredes
행정부 장관	Franklin Almeyda(정치인, 변호사)
노동부 장관	Jose Ramon Fadul(노동전문가)
보건부 장관	Bautista Rojas(사회보험부위원장)
건설통신부 장관	Manuel de Js. Perez(산토도밍고시 상하수도 국장)
체육부 장관	Felipe Payano(농구협회 회장, 체육부 차관)
환경부 장관	Max Puig Miller(상원의원)
관광부 장관	Felix Jimenez(정치인, 관광부 차관)
문화부 장관	Jose Rafael Lantigua(시인, 수필가)
여성부 장관	Flavia Garcia(정치인)
대통령 비서실장	Danilo Medina(대통령직인수위원장, 2000년 대선 후보)가 비서실장을 지내다 2006년 사표를 내고 여당 내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 투신, 현 대통령과 당내 경쟁 구도를 가졌으나 2007년 경선에서 패배
관세청장	Miguel Coco(경제관료)
중앙은행총재	Hector Valdez Albizu(경제관료)
전력청장	Radhames Segura(기술관료)
수출투자청장	Eddy Martinez(경제관료)
대법원장	Jorge Ant. Suvero Issa(정치인)
상원의장	Reynaldo Pared Perez(정치인)
하원의장	Julio Cesar Valentin(정치인)
감사원장(Presidente de Camara de Cuentas)	Andres Terrero

라.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 대사: Mr. Hector Galvan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310, 태평양빌딩 19층
 - 전화: (02)756-3513
 - 팩스: (02)756-3514
 - 이메일: hecorgalvan122@hotmail.com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對 도미니카(공) 무역수지 불균형

- 90년대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인 과다 흑자 유지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늘 존재해 왔다.
- 그러나 2003년에는 도미니카(공) 화폐의 평가절하로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폭은 많이 줄었으며, 2004년에는 오히려 무역 역조 현상까지 일어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는 일시 해소되었다. 다시 2005~06년에도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2007년 페로니켈 국제 시세 상승 및 수입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2008년 들어 수입액이 큰 폭으로 하락(2007년 1~8월 동 분기 비교 시 -61%)하면서 2008년 8월 기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 수입품목 한정 및 우회수출 물량에 큰 원인이 있으나 균형적인 교역을 위해서 수입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도별 한국의 무역수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8월)
수출	185,017	81,526	73,867	120,437	108,864	120,362	86,957
수입	21,808	71,844	121,849	68,544	87,216	126,158	75,625
무역수지	163,209	9,682	-47,982	51,893	21,648	-5,796	11,33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8년 9월 통계

나.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사업 전개

- 한국의 관세행정 정보화 시스템인 전자통관시스템을 도미니카 공화국이 도입
 - 2007 년 도미니카(공) 상하원 의결을 거쳐 한국 정부의 EDCF 차관 도입을 통해 한국의 관세정보화 시스템을 도미니카공화국 세관행정 시스템으로 구현
 - 2007 년 10 월 컨설팅기관(전자통관국제화재단) 선정 계약체결 및 12 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 한국 정부의 주재국 전자정부 마스터플랜(M/P)수립 지원 사업 추진
 - 2007 년 11 월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정보통신실(OPTIC) 실장 방한, 정보통신부 차관과의 MOA 체결을 통해 전자정부 M/P 수립 지원사업 공식화

- 2007 년 11~12 월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선정 컨설턴트 4 명 도미니카 방문. OPTIC 등 관계기관 설문조사 및 Kick-Off 프레젠테이션 실시
- 2008 년 중 M/P 수립 지원사업 본격화

다. 양국 간 전력분야 협력사업 전개: 24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건설

- 도미니카 IPP 1위 기업인 Ege-Haina사와 한전(Kepco)간 공동개발 약정 체결('08.4.18)
 - Ege-Haina 사 Rolando Gonzalez Bunster 회장과 이원걸 한전사장 간 서명
-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197 MW 규모 중유발전소 철거 및 240MW 규모(80MWX3) 석탄발전소를 산토도밍고 인근에 건설
 - 2008 년 중 착공하여 2011 년 중 가동 개시 목표

* 참고: 관련 이슈 페이지

□ 한국을 세계화의 동반자로 삼은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카리브의 진주라 불릴 만큼 매력적인 나라다. 나라 곳곳이 카리브해가 주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뒤덮여 있다. 인구는 1,000만 명에 채 못 미치지만 7~8만 명의 소국으로 둘러싸인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단연 으뜸가는 나라다. 중남미 전체적으로도 시장 규모로 본 국가경쟁력 수준은 역대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워니워니해도 '솔리플라야(Sol y Playa/태양과 해변)'이다. 상하의 계절 탓에 미국이나 유럽 등 구미 선진국에서 특히 겨울철에 작열하는 태양과 더불어 옥색 또는 연녹빛을 띤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고,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가족이나 부시 대통령 가족 등 세계적 명사들이 매년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요즈음에는 러시아에서도 직항편이 개설되어 도미니카 해변에서는 각국 언어 향연을 즐길 수 있다.

도미니카는 세계화가 관광자원 측면에서 구미선진국 국민을 빨아들이는 놀라운 흡인력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지만, 요즈음은 세계적 추세인 FTA 조류를 따라 더욱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와 2008년 1월 발효된 EU와의 EPA(경제자유교역협정/경제연대협정)는 미국 및 유럽 등 구미선진국에 대해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이들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부심이 매우 강한 나라다. 미주 대륙 최초의 대학교(UASD/ 국립 산토도밍고 자치대)에다가 미주 대륙 최초의 성당, 병원, 거리 등등 미주 대륙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 문화유산이 많다. 뿐 아니라 스페인의 중남미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중남미 정복자들을 이곳에서 배출하였고, 신대륙 발견자인 콜럼버스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나라로서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가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그 자부심의 일말을 읽을 수 있다.

이 자부심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낙후된 경제 현실과 대비시켜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개혁을 통해 세계화로 가는 길목의 동반자의 하나로 한국을 택하게끔 했다.

도미니카는 왜 한국을 동반자로 택하게 됐나?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은 제시할 수 없지만 세계시장을 개척하려는 민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카리브의 IT 메카를 지향하며 카리브의 코리아가 되려는 안목 있는 지도자의 국가적 비전이 단기간 내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한국과 대비해 잃어버린 반세기를 반추하면서 한국을 배우자는 인식과 맥을 같이하며 동반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 도미니카에선 한국을 배우려는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점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중남미 이식 프로젝트다. 그 선봉에 서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다. 통관행정의 투명화를 통한 부패척결 및 전자화를 통한 신속 통관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국정부가 공여한 EDCF 차관사업으로 2,0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목하 진행 중에 있다.

도미니카는 고질적인 전력 부족문제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안고 있다. 특히나 요즘처럼 유가가 폭등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석유 대체 에너지를 통한 양질의 저렴한 전력 공급체계 구축은 물가 상승 억제책으로서나 신규 고용촉진 대책으로서나 절실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그 과제 해소에 제휴의 손길을 내민 게 바로 한전(Kepco)이다. 한전은 2008년 4월 발전분야 도미니카 최대 전력기업인 Ege-Haina와 손을 잡고 24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사업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영문명인 켄코는 답답했던 전력 현실(찾은 정전사태, 일부 지역 제한송전 등) 타개 돌파구 주역으로 떠올라 도미니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인구에 금정 회자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한국을 국가발전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한 증표로서 2012 여수엑스포를 지지했다. BIE 비회원국이었지만 한국을 동반자로 택하기 위해 여수엑스포를 지지하고자 레오넬 페르난데스 정부는 물론 상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BIE에 회원국 가입까지 해가며 한국을 지지했다.

그리고 많은 국가채무를 떠안고 있어 부담스런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발전의 청사진 이행을 위해 레오넬 행정부가 주도하고 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전자정부 도입에 따른 막대한 차관을 승인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근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을 굳이 먼 나라 동방의 한국에서 들여오겠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의지와 철학도 반영됐다. (여기에는 물론 불굴의 의지와 끈기로 밀어부친 한국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숨어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 도미니카의 전자정부 구축 청사진이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마련되었다. 한국정부가 추진한 개도국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도미니카에서 적극 수용하여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사업의 기반이 공고히 구축된 것이다.

동반자 관계는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에서도 빛이 나고 있다. 자원빈국 한국이 수출과 투자 등 경제개발전략을 통해 어떻게 국가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는지 그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KDI가 한국정부로부터 사업을 수임 받아 최근 착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KOICA 자원봉사대원 활동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전력분야 선진화 등 각 분야 방한 연수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타 정보통신대학교의 고위공직자 방송통신 연수과정 등에도 높은 참가 열기를 보이고 있는 등 동반자관계는 한층 무르익고 있다.

양국 간 동반자 관계를 통해 도미니카로부터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위에 열거된 몇 가지 사항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도 동반자 관계가 발전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20여 개사의 한국기업이 이곳 도미니카에 진출해 있는데, 진출분야가 대체로 현재 대 중국 경쟁력 약화로 사양 산업화 되고 있는 봉제 의류 섬유 산업이다. 도미니카는 진출 여지가 많은 곳이다. 앞서 언급된 관광 사업 분야에서부터 주택 사업 분야, 도로, 철도, 통신, 물류 등 인프라 건설 사업 분야, 자동차 A/S부품 공급 및 정비 사업 분야, 천연가스 전환장비 공급사업,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 생산 등 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카리브의 동반자, 도미니카로 문을 노크해 보자.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거시경제 지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U\$억)	216.8	217.1	166.3	186.5	293.3	318.0	363.9*	376.9*
1 인당 GDP(U\$)	2,577	2,536	1,907	2,102	3,247	3,458	4,147*	4,234*
경제성장률(%)	9.4	0.2	-23.4	1.2	9.3	10.7	8.5	5.0
인플레이션(%)	9.4	10.5	42.7	28.7	7.4	5.0	8.8	13.73***
실업률(%)	15.6	16.1	17.0	18.4	17.9	16.2	15.5	15.0
외환보유고(U\$억)	9.4	9.6	5.9	6.3	10	17.9	29.4	
총외채(U\$억)	38.0	44.5	58.0	70.0	70	79	89	93
연평균환율(U\$대비)	16.69	17.52	29.21	41.59	30.14	33.36	33.26	34.85**
경상수지(U\$억)	-7.5	-7.9	10.3	10.4	-4.8	-11	-22.3	-26*
경상적자 GDP 비중(%)	-3.4	-3.7	6.0	6.0	-1.4	-3.5	-5.6*	
수출(U\$백만/FOB)	5,276	5,165	5,471	5,936	6,145	6,610	6,270	2,900
수입(U\$백만/FOB)	8,779	8,838	7,627	7,888	9,614	9,559	13,820	5,882
외국인투자(U\$백만)	1,079	961.1	1,005	649.7	1,168	1,183	1,698	

주 1: 2007 년은 잠정치, 2008 년은 전망치

주 2: IMF 잠정치(2007), 전망치(2008)

주 3: 9 월 환율로, 2008 년 예상 연말환율은 35.26(EIU 전망치)

주 4: 7 월 수치(중앙은행)

주 5: 2008 년 수출/수입은 5 월까지의 수치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EIU, IMF 종합

가. 최근 경제 현황

1) 2006 년 이전 상황

- 2002 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1996 년 이후 2000 년까지 Leonel 집권기에 지속적 7% 이상 성장 시현

- 2003 년-2004 년 극심한 경기 후퇴
 - 자산규모 제 2 위의 은행이던 Baninter 은행의 대규모 부도로 인한 경제위기
 - 외환 부족으로 IMF 관리체제 전락
 - 경제성장률 '03 년 -1.3%, '04 년 1.9%
 - 인플레이션: '03 년 42.7%, '04 년 28.7%
 - 환율: 환란 전(1 달러당 17 페소), 2003 년 말(35 페소), 2004 년 최고 환율(58 페소)
- 2005 년 중남미 최고 수준 경제성장률 기록(9.3%), 경제회복 가시화
 - 2004 년 하반기 Leonel 대통령 재집권 이후 정치·환율 안정 기반 구축

2) 2006 년 경제 동향

□ 대내 부문

- 2006 년 10.7%의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 경제회복 가속
 - 건설업(22.7%), 통신업(26.1%), 금융업(22.4%) 등 분야가 경제성장 주도
 - 반면 자유무역지대(ZF)는 -8.3% 마이너스 성장(특히 섬유류 -18.4%)
 - 일반 제조업은 7.4% 성장, 유통업 11.7%, 농축산업 9.9%, 광업 9.3%
- 민간부문 여신 활성화(16% 증가) 및 외국인투자 증가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
 - 건설업 대출 84.3%, 주택구입자금 대출 55.9%, 일반제조업 대출 42.4%
 - 지속적 금리 인하(2004.8 월 32.3% => 2006 년 12 월 16.4%)로 여신 활성화
 - 2006 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1.8 억 달러 기록, 전년비 15.7% 증가
 - 요구달러예금 27% 증가에 힘입어 통화 발행량 16% 증가, 금리 인하 촉진
 - 연평균 여신금리 16.44%('05 년 20.17%), 수신금리 7.69%('05 년 11.62%)
- 물가안정 기조 정착
 - 2006 년 소비자물가지수(IPC)는 5%로 2005 년도 7.44%에 이어 인플레이션 진정
 - IMF 요구 목표 수준(5-7%) 달성
- 실업률 축소. 그러나 여전히 두 자릿수
 - 2004 년 19.7% → 2006 년 실업률 16%: 동 기간 중 29 만 명의 일자리 창출
 - 유통업 64 천 명, 일반제조업 47 천, 농축산업 43 천, 숙박요식업 36 천, 건설업 25 천, 교통통신업 22 천, 금융업 1 만 명 등 유통업이 일자리 창출 견인
- 재정개혁법(Reforma Fiscal) 시행(2004.10.1 일부, 2006.1.1 일부로 신정책 발표)
 - 부가가치세(ITBIS)를 12%에서 16%로 확대
 - 담배(개피 수), 주류(알코올 도수)에 특별소비세 부과
 - 음성방송(라디오) 및 영상방송(TV)에 10% 세율 부과
- 재정개혁에 따른 세수 확대로 국가재정 충실화, 재정적자 지속
 - 조세수입은 1,889 억 페소로 전년비 19.8%(313 억 페소) 증가
 - 재정지출은 2,035 억 페소(경상지출 76%, 자본지출 24%)로 19.1% 증가
 - 재정적자는 129 억 페소로 GDP 의 1.22%

□ 대외 부문

(가) 국제수지 부문

- 국제수지 흑자(2.7 억 달러) 기록
 - 경상수지는 적자(-7.9 억 달러)로 GDP 의 2.5%선
 - 2005 년 경상적자(-4.8 억 달러) 대비 적자 심화(64.5% 증가)
 - 경상적자의 43%는 최대 수입품인 고공행진 지속 국제유가 탓
 - 자본(금융)수지 흑자(15.6 억 달러)로 경상적자 보전
 - 외국인 직접투자 호조, 15.7% 증가(2005 년 10 억 달러=>2006 년 11.8 억 달러 기록)
 - 외국인 투자증가액의 34.2%는 투자수익금 재 투자분 => 경제 신뢰감
 - 통신&부동산 부문 외국인투자 급증(171% & 92.3%), 미국, 스페인,
 - 멕시코 등 3 국의 관광분야 및 자유무역지대 투자가 두드러짐.
 - 외국인 간접투자 3.3 억 달러: 주로 국채(Bonos Soberanos)에 투자
- 상품수지(무역수지) 적자 심화, GDP 의 13.5%
 - 2005 년 무역적자 37.2 억 달러 => 2006 년 무역적자 47.5 억 달러
 - 수출 64.4 억 달러 (전년비 4.8% 증가)
 - 페로니켈 7.1 억 달러(전년 3.8 억 달러/가격 급등), 설탕(1.3 억 달러), 코코아(0.7 억 달러), 커피(0.2 억 달러) 등 호조
 - 상기 일반품목 수출은 38.6% 증가, 반면 전체수출의 70% 비중을 점하는 자유 무역 지대 수출은 2005 년 47.5 억 달러 → 2006 년 45 억 달러로 -5.1% 감소(섬유 제품 및 신발 등 수출 감소가 주 요인)
 - 수입 112 억 달러 (전년비 13.4% 증가)
 - 석유 수입이 28 억 달러(13.7% 증가)로 최대 비중
 - 자유무역지대 수입은 2005 년 25 억 달러 => 2006 년 24.5 억 달러로 -2.3% 감소
 - 원부자재 수입 26.3% 증가, 자본재 수입 19.2% 증가
- 서비스 수지는 26.7 억 달러 흑자로 전년 24.5 억 달러 대비 2.2 억 달러 증가(7.8%)
 - 관광 수입 증가(2005 년 35.2 억 달러 => 2006 년 37.9 억 달러/ 8.2%)가 동력
- 소득수지는 적자폭 감소(8.5%)
 -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 해외 운용 자금 이자 소득 증가(1.4 억 달러)
 - 소득수지 75% 비중 점유 외국인 직접투자 과실 송금액 2% 감소
 - 특히 자유무역지대 투자진출 외국기업 과실송금 9.3% 감소
- 경상이전수지는 12.5% 흑자 증가
 - 해외교포 국내 송금액이 전년비 3.2 억 달러 증가(13%)한 27.5 억 달러 기록
 - 미국 경기 호조 및 미국영주권 교포의 실업률 감소(6%=>4.9%)

(나) 외환 부문

- 외채 도입 13.6 억 달러, 외채 상환 13.4 억 달러(원금 10 억 달러+이자 3.4 억 달러)
 - 중장기 공공 외채: 2005 년 9 억 달러 도입, 7.3 억 달러 원리금 상환
2006 년 13.2 억 달러 도입, 13 억 달러 원리금 상환
 - 단기 공공 외채: 2005 년 28 백만 달러 도입, 32 백만 달러 원리금 상환
2006 년 46 백만 달러 도입, 46 백만 달러 원리금 상환

- 총 외환보유고 22.5 억 달러, 순 외환보유고 17.9 억 달러
 - 순 유동 외환보유고는 11.3 억 달러로 IMF 목표치 7.5 억 달러 크게 상회
- 환율 9.79% 인상
 - 2005 년 연평균 환율: 미화 1 달러당 RD\$ 30.07 페소
 - 2006 년 연평균 환율: 미화 1 달러당 RD\$ 33.02 페소
- 국가위험도(Country Risk) 소폭 개선: 채권(B.SOB '11,'18,'27) 등급 일부 상향
 - Moody's: B3 (2005 년과 동일)
 - Standard & Poor's: B (2005 년과 동일)
 - Fitch: B (2005 년 B-)

3) 2007 년 주요 경제 동향

□ 실물 부문

- 2007 년 경제성장을 8.5% 달성. 2005-7 년 3 년간 평균 9.5% 성장을 시현
 - 금융업, 통신업, 유통업이 성장 견인.

산업 부문별 GDP 성장률(2007)

금융중개업 25.6%, 통신업 14.9%, 유통업 13.9%, 에너지·상수도 9.7%, 운수창고업 6.8%, 일반제조업 4.8%, 주택임대업 3.5%, 농축산업 1.2%, 숙박요식업 3.7%, 건설업 3.2%, 광업 -1.4%,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10%

자료: BC(중앙은행)

- 자유무역지대와 광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자유무역지대는 대 중국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섬유산업 퇴조 탓. 동 진출 외국투자기업 폐업으로 수만 명의 실업자 발생
- 시멘트 및 철근 등 건축자재 시세 등귀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으로 건설업 성장세 둔화
 - 시멘트 가격은 79.6% 상승, 철근 가격은 15.1% 상승한 반면 페인트는 -3.1%로 오히려 가격 하락하여 판매가 54.5% 증가
 - 시멘트는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0.9% 매출 신장, 철근 매출은 -7.1%
- 건설업계에서는 2007 년은 건설경기가 금리인하 및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것으로 평가. 2008 년은 지나친 가격 등귀로 인한 건설경기 타격 우려 가운데 주택가격도 20% 정도 상승 전망 (주택건설협회/Acoprovi)
- 인플레이(IPC)는 8.88% 기록
 - 국제 석유 가격 인상이 주 요인. 석유 수입액이 전체수입의 32% 차지
 - 고유가 외에 노엘(Noel) 및 올가(Olga) 등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당초 목표치인 4~6%를 크게 상회케 한 요인으로 지적
- 실업률은 1~10 월 기준 2004 년 19.7%에서 2007 년 15.5%로 4.2%포인트 개선
 - 이는 동 기간 중 40 만 개의 일자리 신규 창출 의미
 - 중앙은행은 개선효과 부각을 위해 연간 기준이 아닌 10 월 기준 차용 설명 (2004 년 연말 기준 실업률 18.4% 대비 2.9%포인트 개선)

□ 금융·재정 부문

- 은행 대출은 총 2,552 억 페소(약 76 억 달러) 기록, 전년비 24.8% 증가
 - 기업대출이 49.2%, 가계대출이 41.9%, 공공대출이 8.9%
 - 35%로 최대 비중을 점하는 유통업 대출은 36.5% 증가, 7.3% 비중을 점하는 건설업 대출은 19.8% 증가. 반면 전체 대출의 3.2% 비중 차지 제조업 대출은 전년 동기비 6.4% 감소. 전기·가스·상수도 부문은 비중은 0.55%로 미약하나 증가율은 195%로 최고의 증가세 시현
 - 개인대출로는 8.2% 비중의 주택구입대출이 무려 152% 증가로 압도적. 17.7% 비중 점유 가계소비대출은 30.3% 증가
- 정부 재정수입은 1,889 억 페소에서 2,360 억 페소로 대폭(25%) 증가
 - 조세개혁에 따른 세수 크게 증대(22.6%). 특히 재산세가 44.1%, 소득세가 41.7% 증가. 전체 세수의 54%를 점하는 부가세는 23.8% 증가. 그러나 관세수입은 대미 FTA 등 효과로 268 억 페소에서 233 억 페소로 13.2% 감소
 - 중앙은행 증자법 국회 통과(2007.7.13)로 효과적 통화정책 수단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기반 마련

□ 대외 부문

- 국제수지는 6 억 5,700 만 달러 흑자 기록.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경제 외부 교란요인 대비 방어벽이 구축된 것으로 자평.
- 2007 년 수입은 138.2 억 달러로 전년비 13.5%(16.4 억 달러) 증가
 - 자본재 16.5%, 소비재 22%, 원부자재 12.9% 각각 증가
 - 동 수입 증가분 중 4.5 억 달러는 세관이 관세 부과 시 기준으로 삼는 과세표준을 2006 년 10 월 조정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2007 년에 크게 나타난 것이다.
 - 당시 환전세 폐지와 더불어 DR-CAFTA 에 따른 관세율 및 특소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보충을 위해 수입품 과세표준 인상
 - 한편 2006 년의 경우 세관 고시가격 기준 관세 산정 품목이 전체 수입의 70%에 달했던 반면 2007 년에는 40%로 축소되었으며, 60%는 수입상 신고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산정된 것으로 집계돼 세관 고시 가격 과세표준제도가 수입상의 성실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관세수입 증가와 더불어 수입액 규모도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Efecto Arrastre”/견인 효과)
- 2007 년 전체 수출은 9.5%(6.3 억 달러) 늘어난 72.4 억 달러 시현. 이중 자유무역 지대를 제외한 국가 수출액은 38.5%(7.4 억 달러) 증가한 26.7 억 달러 기록
 - 최대수출품목인 페로니켈 수출이 60.5% 증가, 11.4 억 달러 기록한 것이 최대 동인
 - 국제 니켈 수요 증대로 니켈가격이 톤당 평균 3 만 7,230 달러로 대폭 인상
 - 반면 자유무역지대 수출은 전년비 -2.5% 감소한 45.6 억 달러를 기록, 하락세 지속(1.2 억 달러 감소)
 - 섬유봉제의류는 21.2% 감소, 신발류는 4.6% 감소
- 경상수지는 12.3 억 달러의 적자 시현
 - 이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석유 수입액 증가분이 2 억 달러로 18% 늘어난데다 세관의 과세표준 인상조정에 따라 수입 통관액이 불어난 데에(4.5 억 달러) 주로 기인

- 2007 년 연간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IMF 와의 협약 목표치인 3~4%를 상회
- 과세표준 인상조정 효과치(1.1%)를 뺀 경우 연초 전망치인 3.2% 달성
- 서비스수지는 29.7 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했으나 증가폭은 미미
- 동 수지 최대 구성인자인 관광수입이 2.8% 증가했으나 수입급증으로 선박운임 지출도 크게 증가한 탓에 흑자폭 증가 정체세
- 해외교포 대본국 송금액 규모는 2007 년 연간 29.8 억 달러로 전년비 9% 증가. GDP 의 근 12% 비중. 하지만 2008 년은 미국경기 침체로 줄어들 전망
- 해외송금액의 60.2%가 미국발, 20%는 유럽발, 17%는 푸에르토리코발
- 도미니카는 해외송금 수취인구 비율로 볼 때 38%로 중남미 1 위(IDB)
- 아이티 31%, 엘살·온두 26%, 과테 22%, 니카 17%, C.R.10%, 파나마 5%
-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비 16%(2.4 억 달러)이 늘어난 17 억 달러로 사상최고치 기록
- 이로 인해 금융·자본수지는 전년비 7.6 억 달러가 늘어난 25.5 억 달러 흑자 시현
- 외국인직접투자 급증은 경제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도 반영으로 풀이
- 2007 년 중 중남미·카리브 전체 1,060 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 브라질 346 억 달러, 멕시코 232 억 달러, 칠레 145 억 달러 등이 선도
- 최근 3 년간(2005~7 년) 43 억 달러 투자유치로 DR-CAFTA 중미회원국 중 1 위 (2 위 코스타리카 42 억 달러, 3 위 엘살바도르 23 억 달러, 4 위 온두라스 21 억 달러, 5 위 과테말라 11 억 달러, 6 위 니카라과 9 억 달러(자료: CEPAL 2008))
- 주요 투자 분야: 정보통신, 관광, 광업, 은행업, 유통업, 제조업, 부동산업
- 주요 투자국: 미국(35.4%), 스페인(17.8%), 캐나다(13.5%) 등
- 외국인간접투자인 채권투자는 전년비 2.2 억 달러가 늘어난 9.9 억 달러 기록. 이중 2007 년 중 도미니카 민간기업들의 채권 발행액 규모는 4.5 억 달러
- 국제금융사회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도미니카경제에 대한 신뢰 표징 해석
- 국제수지 흑자로 총 외환보유고는 전년비 7 억 달러가 늘어난 29.4 억 달러 기록
- 순외환 보유고는 6.1 억 달러가 늘어난 23.9 억 달러, 유동 외환보유고(Reservas Liquidas/RIN/ 순외환 보유고에서 외화예금 차감액)는 16.3 억 달러
- 2007 년에는 1 달러당 30 페소 이하로 환율하락 방지 위해 시중 외환을 흡수하여 외환보유를 확대해 오다 2008 년 4 월에는 환율상승 억제 위해 외환보유고 중 1 억 달러를 풀어 시중에 외환 방출로 방향 전환

4) 2008 년 경제 현황

□ 실물 부문

- 2008 년 1~3 월 경제성장률 6.2%, 2005~2007 년 3 년간 평균 9.5%의 성장을 시현
- GDP 성장률 15.2%
- 산업부문별 GDP 성장률(2008 년 1~3 월)
- 금융중개업 20.3%, 통신업 12.7%, 건설업 7.8%, 에너지, 상수도 7.8%, 유통업 7.5%, 운수업 5.3%, 숙박요식업 5.2%, 주택임대업 3.1%, 제조업 3.1%
- 광업 (-3.2%)과 농축산업 (-7.1%), 자유무역지대 (-3.4)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금융 부문

- 은행 대출은 1~3 월 중 전년 동기비 28.6% 증가
 - 에너지, 상수도 433.4%, 소기업 45.7%, 유통업 34%이 금융 주요 수요처 역할
 - 개인 대출은 전년에 이어 주택 구입이 114.6% 증가하여 압도적 비중 차지. 전체 개인 대출의 27.4% 비중.

□ 대외 부문

- 2008년 5월까지 수출은 290백만 달러, 수입은 588백만 달러를 기록. 특히 교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미무역은 2008년 상반기(1~6월) 수입 대비 수출액이 1321.6백만 달러로 2007년 같은 기간 742.3백만 달러보다 56.1% 증가하였음.

5) 2008 년 경제 전망

- 정부는 낙관적 전망. 반면 민간 전문가 및 경제유관단체는 경제운용에 우려 시각 표출
 - 정부의 단기처방적 각종 보조금 남발로 경제에 깊은 주름살 우려
 - 미국경제침체 및 국제유가 폭등 등 요인에 따라 긴축정책이 필요하나 대선 관계로 팽창정책 지속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 수준
 - 식료품가격 등귀 등 도처에 물가달려안 잠복
 - 의료계 및 교육계 등 각계 급여인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
 - Leonel Fernandez 가 2008 년 5 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여 여당인 PLD(해방당)이 2012 년까지 재집권
 - 2007 년 하반기 도미니카를 강타한 태풍(Noel, Olga) 에 이어 2008 년 태풍 Gustav, Hanna, Ike 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
- IMF 협정 2008 년 1 월 말 종료, 연장 여부 놓고 정부 내 이견 달러협화
 - 대선 의식 및 경제주권 등 연계, 연장 달러가론과 대외적 시각 의식 및 경제의 장기안정적 운영 차원 연장론 대립
 - 정부는 IMF 스탠바이 협정 일단 달러연장 쪽에 무게 중심을 두다가(업계는 연장 희망) 국제유가 급등세 지속 및 미국경제침체 등 국제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악영향을 우려, 협정 갱신 긍정 검토
- 경제성장률은 유가급등 등 취약요인에 따라 4.5%(IMF)로 다소 둔화 전망이나 카리브 국 평균치 4.4% 상회. 중앙은행은 5%로 전망. 1/4 분기 중 6.5% 달성
 - 석유 및 동 파생품 수입이 전체 수입의 32%로 압도적
 - 국제 유가 급등 시 무역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로 직결
 - 2007 년 12 월 Petrocaribe 정상회담 성과로 대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액의 40%는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 지불이 가능케 되어 경제 운영에 큰 활력소로 작용 전망
- EIU 등 외부 기관은 경상수지 적자 심화(-4~5%) 우려 시각 견지.
 - 대선후유증(재정적자), IMF 와의 마찰 가능성, 고유가, 미국경기침체
- 미국경제위기 심화(2008 년 예상성장률 1.5%, 2007 년 2.1%)시 동반침체 우려
 - 대미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의 80%로 달러의 영향력이 압도적
 - 미국경제 0.5% 후퇴 시 도미니카공 경제는 0.3%후퇴로 낙관적 전망(BC)
 - 전문가들은 미국경기 침체가 고유가 충격보다 더 큰 여파 우려

- EU-카리브 EPA(경제자유교역협정) 2008 년 1 월 발효로 도미니카 경제 활력소로 작용 가능성
 - 대 EU 1 차 상품 수출 활성화 및 침체 일로의 수출자유지대 섬유산업 및 신발산업 등 회생계기 마련. 그러나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음.
 - EU 상품의 대도미니카 시장 무관세 진출로 경쟁 가열 전망. 그러나 유로화 등귀는 EU 상품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여 효과 미미할 가능성.
- 대미 FTA(DR-CAFTA/2007 년 3 월 발효) 효과 점차 가시화
 - 무관세화 진행으로 미국산 제품 가격경쟁력 점차 회복, 한국산과의 시장 쟁탈전 가열
 - 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2005 년 섬유쿼터제 폐지로 인해 수출 제 1 품목인 봉제의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음.

나. 경제정책

1) 경제정책 개요

- 경제개방 및 투자유치로 대외교역확대 기조 유지
 - 1998 년 카리브경제공동체(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과의 FTA 체결, 2004 년 8. 5 일 중미 CAFTA 5 개국과 연계된 미국과의 FTA 체결(2007.3.1 발효) 및 자유 무역 지대(Zona Franca) 중심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로 교역 확대 기조 유지
 - 2007 년 12 월 16 일 EU-카리브 EPA(경제자유교역협정) 타결 및 2008.1.1 일 발효
 - EU 및 여타 카리브국과의 교역 확대 계기 마련, EU-도미니카공 간 상호 진출 확대
- 산토도밍고 시내 지하철(METRO) 건설(전체 7 억 2,500 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 및 전력 현대화 프로젝트, 태풍피해 수재인 지원용 조립식 주택 건설 프로젝트 등 인프라 확대 각종 건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지하철 1 호선 3 억 2,000 만 달러 규모 투자, 2008 년 완공, 대중교통난 완화 기대
 - 2009 년 2~3 월 중 산토도밍고 시내 지하철 2 호선 및 Haina 에서 Santiago 까지 기차 건설 계획 발표
- 5 월 대선을 치르고 난 후유증(긴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재정확장정책 구사·선거비용으로 14 억 5000 만 페소=4300 만 달러 소진 등)에다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확산 및 골치 아픈 소모성 각종 정부보조금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터라 재계는 현재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보조금 혁파 등 전반적 구조조정과 함께, IMF 와의 스탠바이 차관협정 연장체결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
- 7.18(금) 고유가 및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Leonel Fernandez 대통령이 공공지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 임금 조정

- 소득수준별 공무원 임금 조정
 - 월 소득 900 불 이하 공무원의 월급을 15% 인상
 - 월 소득 4500 불~6000 불 공무원의 월급을 5% 삭감
 - 월 소득 6000 불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10% 삭감

-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조정
 - 공무원 및 군인의 최저임금을 월 100 불에서 150 불로 상향조정(연금 및 퇴직금 포함)

□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신설

- 2 만 4,000 명의 서민택시(Concho) 운전수와 8 만명의 빈민들에게 혜택 제공
 - 금년 8-12 월간 약 1 억 8,000 만불 절약 예상

□ 전력부문 효율화

- 전기료징수 관리부문 신설(도전 및 미수금 문제 완화 목적)
- 정전시간 단축프로그램(Programa de Reduccion de Apagones) 보조금 신설
- 형광등의 절전형전구로의 교체

□ 공공부문 지출감축(8-12 월 기간 중 20% 감축을 통해 약 6 억불 절감)

- 신규 인프라 건설사업 동결 및 공정 75% 이상 진행사업 우선 시행
- 정부광고 25% 축소
- 사무기기 및 자동차 구매 1 년간 동결(경찰, 농업, 보건분야는 제외)
- 연료비, 무선통신비, 교통비, 여비, 수당, 활동비 등 25% 감축
-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신규채용 동결

□ 대중교통 부문 개혁

-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증대
- 대중교통용 차량수입세 단일화
- 공공차량용으로 수입되는 윤활유, 타이어, 기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간접세(ITBIS), 기타 수수료와 부과세 감면

□ 농축 산업 개발

- 단기 임대계약을 통해 3 만 헥타르의 토지 경작(식량 및 사료로 사용)
- 토지대장체계 강화(토지개발 유인증대 목적)
- 중소농의 자금 및 기술 접근도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활동 강화
- 산토도밍고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2) 신재정정책(Reforma Fiscal) 주요 내용(2006.1.1 부 시행)

- 13%의 수입환전세를 2006 년 7 월 1 일부로 폐지
- 200 개 품목 ITBIS(부가가치세) 확대 적용
- 유류소비세 인상(디젤유 갤런당 3.57 페소, 프리미엄급 가솔린 10 페소 인상)
- 차량등록세 17% 부과
- 소득세(ISR: Impuesto Sobre la Renta) 면세점 인상: 월 급여 2 만 3,500 페소 기준
- 1.5% 선납 영업세 부과

3)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 1.5% 선납 영업세 부과
-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 2008~12 년 여당이 발표한 향후 4 개년 국정청사진에 의하면 국정운영 5 대 축으로 사회협약, 역동적 경제(고용창출), 지속가능 환경, 국민을 섬기는 정부, 책임 있는 대외정책 등이 꼽혔음.
- 이 청사진 속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이 유세 시 거듭 강조한 것으로, 세계 식량위기 대처방안으로 도미니카를 카리브의 곡창지대로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주요 산업 동향

- 제조업은 GDP 의 26%, 농림수산업(9%) 및 광업 등 1 차 산업은 약 10% 비중 유통, 통 신·관광 등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유통업(10.6%), 통신업(8.1%), 호텔요식업(7.6%), 주택임대업(6%), 건설업(5.1%), 금융업(3.6%), 전력에너지상수도(1.7%) 등
- 경제 규모에 비해 쇼핑몰 등 유통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으며, 이동통신산업 및 고속 인 터넷망이 여타 중남미국에 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다.
 -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및 정책적 배려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
- 연간 30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도미니카(공)은 중미 카리브 최대의 관광국 으로서 산토도밍고 시내 고시가지에 위치한 스페인 식민초기의 유적과 상하의 나라이다. 카리브 해안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GDP 의 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식음료, 철강 및 시멘트 등 국내에 제조업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하며, 식품생산이 부족한 관계로 가공식품 상당량도 수입에 의존한다.
- 유류 수입이 국가수입의 32%로 최대 비중 점유 관계로 국제유가변화에 취약한 구조이다. 석유 의존도 감축을 위한 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 교통/관광업

1) 교통

□ 대중교통수단 현대화 박차

- 도미니카(공) 정부가 열악한 대중교통수단 개선을 위해 교통수단 현대화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하철 1 호선 공사가 2008 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2 호선 공사계획이 2007 년 6 월부터 구상에 착수됐으며, 5 월에는 교통개발기금의 설치로 대중교통 원활화를 위한 자금이 확보돼 도로 여건이 개선되고 노후화된 대중교통 수단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도미니카(공)정부는 대통령의 2007년 6월 브라질 방문 시 에탄올 운행버스 300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월에는 공공운행용 버스 300대 정부구매 입찰계획이 발표되는 등 낙후된 대중교통 수단개선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 교통개발기금 설치

- 2007.5.13 일 시행령(DECRETO) 제 250-07 호로 "육상교통개발금융지원기금"(Fondo de Desarrollo y Financiamiento para el Transporte Terrestre)이 설립되었다.
- 도로교통안전 개선 및 관계자 교육, 도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노후교통수단 교체 및 대중교통시스템 확충 등이 기금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이 기금은 교통재정비청(OPRET: Oficina para el Reordenamiento del Transporte)이 관리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기금 이사회(Consejo Directivo)에서 관장한다

□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

- 도미니카(공) 정부는 대중교통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거센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지하철 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10Km에 걸쳐 11개 역으로 구성되는 1호선의 경우 2008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 산토도밍고 지하철 1호선: 산토도밍고시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
 - 시발역: Villa Mella 역, 종착역: Centro de los Heroes 역
 - 14.5 km, 16개 역으로 구성
 - 보건과 교육 등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효과(일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교통 원활화, 배수처리 개선 등 효과 기대
 - 일부 모노레일 구간(비자메야역-안티과 세멘테라역)은 2008년 2월 27일(독립기념일) 개통 예정. 완전개통은 12월로 예정.
- 지하철 2호선: 산토도밍고시를 동서방향으로 관통
 - 시발역: Los Alcarriazo 역(북서쪽), 종착역: San Luis 역(동쪽)
 - 1호선보다 7~8 km 긴 노선
- 지하철 공사 관장: 교통재정비청(OPRET /청장: Mr. Diandino Pena)
- 도미니카(공)은 2002년부터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Concho 라고 불리는 택시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현대화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 도미니카(공) 정부는 10년 후의 도시교통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연차별 계획을 통해 교통행정, 대중교통수단, 도로관리, 조직정비 등의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 추진과제는 교통 및 운수관련 조직 및 정책부문과 대중교통 관련 수단 및 도로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수업자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와 버스 전용 차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고속도로는 산토도밍고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 서쪽으로 3 개 노선이 있으나, 지방을 연결하는 노선의 부족으로 수도권 지역 병목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기존 고속도로에 대한 보수와 확장공사와 함께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남북종단 고속도로의 건설을 구상 중에 있다.
- 항만시설은 전국에 13 개 항구가 있으나, 현재 3 개소만이 적정수준으로 가동 중이다. 수도권 산토도밍고에 위치한 HAINA 항구에 물동량이 집중되어 해운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으나, SANS SOUCI 항구를 관광터미널로 재건축함에 따라 2007 년 기준, 전년에 비해 4 만 명이 늘어난 7 만 명의 관광객이 SANS SOUCI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 공항은 전국적으로 32 개가 있으며 최근 국제공항 근대화의 일환으로 LAS AMERICAS 공항을 민영화하여 새롭게 개장한 상태이다.

2) 관광업

- 태양, 해변, 자연 등 카리브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93 년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관광산업은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98 년도에 4.7%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2000 년대 들어서는 외화수입액이 30 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총 수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카리브 연안국에서 관광호텔 객실이 가장 많은 도미니카(공)은 2006 년 말 기준 63,206 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특히 2006 년도는 396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 도미니카 공화국 중앙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7 년 1/4 분기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6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6 개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전체의 66.78%를 차지한다.
- 2007 년 연간 기준으로는 관광수입은 전년도의 39.2 억 달러에서 2.8% 증가한 40.3 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 년도 전체수출액 72.3 억 달러(국가수출액 26.7 억 달러+자유무역지대 수출액 45.6 억 달러)의 55%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갈수록 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7 년 기준 도미니카 내방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339.8 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신축된 호텔 객실 수는 전년비 1,268 실이 늘어나 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2008 년 1/4 분기에는 관광수입이 전년동기 13.1 억불 대비 5.6% 늘어난 13.8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도미니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8% 늘어난 124 만 명으로 집계됐다.
-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은 동부 해안의 Punta Cana, 남부 해안의 La Romana/Bayahibe, 수도권인 Boca Chica/Juan Dolio 로 나타났다.

나. 농·목·수산업

1) 개요

- 도미니카공화국의 농축산업은 중미 카리브 연안국 중 가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기계화와 현대화가 더디게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중미 공동시장과의 자유 무역 거래를 앞두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 농업개발은행의 영농지원 자금 고갈 등 정부의 지원부족이 계속되어 온 탓에 상품의 분류와 포장, 운송 등에서 과정의 합리화가 진행되지 못하던 농축산업은 '98 년 9 월 태풍 조지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 정부에서는 농축수산부문 육성을 위하여, 산 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생산품과 조제식료품, 화학공업 및 연관생산물, 포장용 플라스틱 및 지와 판지류, 비금속제 농기구와 기계류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0'세화(법률 150-97, '95.21)한 바 있다.
- 특히 2000 년 취임한 이보리토 메히야 대통령은 농업분야 전문가로 정부의 농업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으며, 2004 년 취임한 레오넬 대통령도 농수산분야를 지속 육성 중에 있다.
- 98 년 태풍 조지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5% 성장을 보인 농업부문으로 인해 전체 성장이 1.1% 에 머물렀던 농축수산업은 '99 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업 5.2%, 축산업 8.8%, 임업 및 수산업 4.5% 등 전체적으로 평균 6.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2000 년대 들어서도 보이고 있다.
- 2006 년에는 농목수산업이 8.6%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7 년도에는 1.2% 성장에 그쳐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2008 년 1/4 분기에는 -7.1%로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 년 4/4 분기 중 도미니카를 연이어 강타한 열대 태풍 노엘 및 올가의 영향 때문에 쌀을 제외한 여타 농작물 작황이 큰 손실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목축업이나 수산업, 양잠업 등은 2006 년 5.8% 성장에 이어 2007 년에는 다소 둔화된 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8 년 1/4 분기에는 0.6%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08 년 들어 이 같은 정체세를 보인 것은 1 월 달에 발병한 조류독감 탓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축산업편 참조 요망)

2) 농업

- 주 농산물은 사탕수수와 카카오, 커피, 담배 등이 전통적인 수출농산물로 자리를 잡아 왔으나, 최근에는 플라타노(바나나 일종으로 요리해서 먹음), 코코넛, 쌀, 화훼 및 채소 등 비 전통적 농산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북서부 시바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담배산업으로 '97년 이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나 '99년 국제시세의 급락과 국내사정으로 62%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왔다. 산업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사탕수수 산업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운송 인프라의 부족,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확의 지연 등으로 '99년에도 전년대비 11.6%의 생산 감소를 가져왔으며 정책 자금의 지원부족으로 체계적인 합리화가 진행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이 활성화를 보여 2004년도에는 10% 이상의 성장을 시현했으며,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2006년도에 9.9%를 기록했다. 2007년 8월의 농산물 수출량이 전년동기비 41%가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1~12월 거대 태풍 2개(Noel, Olga)가 연달아 몰아쳐오면서 생산이 큰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었다.
- 태풍 자체보다도 태풍이 몰고 온 홍수로 피해가 더 컸는데, 가장 피해를 본 작물은 토마토, 쌀, 옥수수, 고구마, 유까, 플라타노(도미니카인의 주식 중 하나로 바나나 비슷하나 익혀먹는 것), 바나나, 코코아, 담배, 파파야, 강낭콩 등이다.

3) 축산업

- 소, 돼지, 닭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며 '99년도에 돼지고기의 22.6% 생산 증가를 비롯해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쇠고기는 가뭄과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로 1995년 이후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양계산업은 설비의 확장과 과학화로 생산성이 향상 되고 있으며, 특히 '99년도 돼지는 수년 전 돼지콜레라 병의 전염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 목축업은 2006년 5.8% 성장에 이어 2007년에는 다소 둔화된 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8년 1/4분기에는 0.6%로 정체를 보였는데, 2008년 들어 이 같은 정체를 보인 것은 1월 달에 발병한 조류독감 탓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8년 조류독감 발생으로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통상분쟁 점화, 위생규정 주의 경보
- 아이티는 도미니카산 닭고기 금수조치, 도미니카는 아이티산 드링크제 시판 금지

□ 정보 개요

- 카리브 지역의 중심축인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간 조류독감을 둘러싼 금수조치 갈등이 위생규정을 둘러싼 통상분쟁으로 점화되어 위생보건 관련 주의경보가 울렸다.
-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인접국인 아이티는 금수조치를 발동하여 도미니카로부터 들어오는 닭고기 및 계란 수입을 2008년 1월 7일 전면 금지한 데 대해 도미니카는 1월 29일 아이티산 드링크제 시판 금지 및 전면 수거 명령을 내림으로써 결국 양국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통상분쟁 발발 배경

- 2007.12.10 도미니카공 동부 지역인 이구에이(Higüey)시 및 산토도밍고시에서 조류독감이 최초 발생했는데, 12월 20일 관련 국제연구소 검사를 통해 조류독감 바이러스(H5N2)가 확인되었다는 보건부 발표가 2008.1.3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
- 보건부의 조류독감 인정으로 소비자 불안사태가 확산되자 상공부가 긴급 진화에 나서 사실상 조류독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닭고기 및 계란 수요 급감으로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인접국 아이티는 도미니카로부터의 닭고기 및 계란 수입 금지조치를 발동(1.7)함으로써 양국 간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후 양국 간 대화채널 가동으로 해소책을 모색해 왔으며, 금수 조치로 닭고기 및 계란 값이 급등하여 아이티 시장 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아이티 관계자의 도미니카공 파견 실사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금수조치 해제 기대감이 형성되었으나 아이티 정부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수입금지조치를 풀지 않고 자국민에게 도미니카산 닭고기 대신 옥수수 소비를 권장하는 등 금수조치 지속을 천명하자 고정 수출길이 막힌 도미니카로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1월 30일 아이티로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하여 협상을 하는 한편 발이 묶인 대 아이티 수출용 냉동 닭고기 및 계란을 정부에서 구매 하여 베네수엘라 등 여타국으로 보내기 위해 대체 수요처를 물색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보건부에서는 1월 29일 아이티산 활력증강제(Energizante)인 Toro 브랜드 드링크제(20 온스 플라스틱 병입 제품)가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분이 있으며, 관련 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에서 즉각 수거토록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 이 드링크제는 인체에 해로운 특정 화학성분이 허용치의 300%를 초과함으로써 복용자로 하여금 졸음 및 환각이나 폭력을 유발하는가 하면 심장발작, 내장 마비, 요도장애 등 증세를 유발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 정보 분석 및 시사점

- 금년 1월 1일부로 EU와 카리브국 간 경제자유교역협정(EPA)이 발효되면서 동시에 카리브 역내국 간에도 상호 영향을 미쳐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간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양국 간 협력이 진작될 움직임이 보였으나 이번 통상 갈등 점화로 인해 양국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지난해 도미니카 내 거주 중인 아이티 국민(130만 명 거주 추정)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쟁점화되기도 했으나 양국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온 사례에 비춰 이번 갈등도 적절히 봉합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양국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돌발변수 출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태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다. 현재 도미니카공 민관 합동 사절단과 아이티 대통령 간 면담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결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 이번 수입 시판 드링크류 압수 조치는 금수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위생보건문제가 수입통관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통관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위생보건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 이와 관련, 경비절감을 위해 또는 바이어가 미처 챙기지 못해 또는 후진국이라고 만만히 봤다가 위생검역절차 없이 제품이 반입되어 통관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요망된다.
- 우리나라 기업도 제품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하려다 위생검역문제로 발목이 잡힌 사례가 있었음. 지난해 2/4 분기중 배터리를 목재 파레트 위에 보관하여 컨테이너로 실어 왔는데 정작 제품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목재 파레트에서 나방 유충이 발견되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선적지로 되돌아갔다가 검역처리를 마친 후 되돌아와 통관된 사례도 있었다.

4) 수산업

- 다양한 어종의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공처리를 위한 산업화가 매우 부진하고 정부의 지원이 가장 취약한 부문이나 '97 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 증가세를 나타내 '98년에는 4.5%, '99년에는 5.0%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동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축산업과 함께 5.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 에너지 산업

1) 대체에너지 개발 붐 현황 및 배경

- 세계적인 유가폭등사태 지속에 따라 값비싼 석유 대신 저렴한 대체연료를 찾는 국가적 노력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활발히 일고 있는데, 바이오디젤, 풍력, 석탄,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관련 우리 업계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부문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체에너지 개발이 붐을 이루게 된 배경은 2007년 5월 재생에너지원 개발촉진법(Ley 57-07/ 2007.5.7) 및 신전력법(Ley 186-07/2007.8.1) 시행이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재생에너지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재생에너지원 개발촉진 시행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국가에너지위원회(CNE)에서 준비 중에 있어 2008년 중 공포될 예정이며, 주요 인센티브 및 투자여건은 다음과 같다.
 - 재생에너지법 인센티브 수혜 분야
 - 50 MW 이하 풍력발전소(Parque Eolico),
 - 5 MW 이하 소형 수력발전설비
 - 120 MW 이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
 - 바이오연료 생산 및 정제(용량 무제한),
 - Biomass 발전소, 에너지농장(Finca Energetica), 에탄올 제조
 - 재생에너지법 공여 인센티브
 - 재생에너지 생산용 기계장비류 및 부속 액세서리 수입관세 100% 면세(법인은 물론 개인에도 적용)
 - 법인소득세 10년간 면세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50% 소득세 대체
 - 재생에너지시장 쿼터 우선 배분
 -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자연적 여건 및 투자비
 - 식품재배용 경작지 삭감 없이 바이오 연료 개발용 재배 경작지 56만 8000 ha로 충분하다는 의견. 반면 식품 생산 대체로 식료품값 등귀 우려 시각도 팽팽
 - * 중형 바이오디젤 생산 플랜트 설치비는 3,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 아열대 카리브 섬 기후상 태양 일조량 및 바람 풍족
 - 풍력발전 가능용량: 재생에너지센터(CENER)는 1만 Kw로 추정, 재생 에너지 전문가(Luis H. Arther)는 3만MW까지 개발가능 의견
 - 풍력발전소 설치비는 1 MW당 150~160만 유로로 일반화력 발전보다 초기비용은 높으나 유지비가 저렴해서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각 견지

2) 풍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 도미니카 농지관리원(IAD)과 폰타카나-마카오 에너지 컨소시엄(CEPM)은 금년 3 월 말 12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2 개소를 남서부지방에 건설하기로 약정했다.
- 동 계약은 IAD 의 Quilvio Cabrera Mena 원장(Director)과 CEPM 의 Pastor Sanjurjo 사장(Gerente General)간 체결되었는데, CEPM 사는 이를 근거로 도미니카 남서부에 위치한 Pedernales 주 및 Barahona 주에 아래와 같은 2 개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
 - Juancho-Los Cacaos 풍력발전소: 100MW 용량, 50 개의 터보발전기 설치
 - Cabo Engano Reubicado 풍력발전소: 8.25Mw 용량, 8 개의 터보발전기 설치
- 정부기구인 농지관리원이 CEPM 사에게 부지사용권을 양허(농지협회가 CEPM 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부지 소유주들에게 분배)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인데, 부지 규모는 1,288 타레아(tarea=629s/m)로서 바라오나주 Enriquillo 시 및 페데르날레스주 Oviedo 시에 걸쳐있다.

□ 바이오디젤 생산 프로젝트

- Globasol 사는 2008 년 7 월 카리브해에 면한 도미니카 남서부 소재 Azua 주 Pueblo Viejo 지역에서 바이오디젤 생산 플랜트를 가동할 계획임이 4 월 9 일자 일간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4 월 11 일 사업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 Globasol 사는 스페인의 Globalia 사 Juan Jose Hidalgo 회장이 지분 20% 보유, 최대 주주임.
- 본 프로젝트에는 6,500~7,000 만 달러가 투자되며, 이중 4,000 만 달러는 플랜트 건설에, 3,000 만 달러는 근로자용 주택단지(ecoaldeas)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바이오디젤 생산용 작물 재배 농장 및 동 작물의 연료화 공장 근로자로 12,000 명의 인력이 신규 고용될 예정이다.
- 바이오디젤용 작물로는 도미니카 풍토에 적합한 아주까리(higuereta), 유즘 솔(pinon de leche/jatropa), 야자(palma aceitera) 등이 재배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즘 솔은 척박한 토질에서 가뭄에도 잘 견디며, 성장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5 년만 키우면 기름이 껍찬(최고 33%) 씨앗을 생산해 내며, 생산량은 1 타레아(tarea=629m2) 면적의 경작지에서 2~5 톤의 솔이 재배되는데 여기서 9kg 의 씨앗이 추출된다. 동 프로젝트를 위해 확보된 경작면적은 공공지 37,000ha 이다.
- Azua 주 Pueblo Viejo 해상터미널 인접지 총 12,000 s/m 면적에서 오는 7 월부터 바이오디젤 플랜트 건설이 착수되어 내년(2009 년) 9 월부터 에너지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며, 여기서 나오게 될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보면, 연간 66,800 톤의 디젤유 1,800 만 갤런(상당)와 부산물로 156,000 톤의 바이오매스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 Globasol 사의 Daniel Suarez 사장(Director General)에 의하면, 도미니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은 카리브 지역내에 Globalia 사가 소유하고 있는 44 개의 호텔에 공급(이중 4,000 침상 규모의 4 개의 호텔은 도미니카 내에 소재)되며, 잔여분은 일반 수요처에 매각 계획이다.
 - Globalia 사는 44 개 호텔 전력에너지 비용으로 매년 100 만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에너지 비용을 20% 정도 절감할 것으로 내다 봤다.

- 글로벌솔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추후 2 개의 바이오디젤 플랜트를 도미니카 내 상이한 지역에 추가 건설 계획이다.

□ 석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가) 660MW 규모 2 개 석탄화력 플랜트 신규 건설

- '06 년 1 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2 개 프로젝트 입찰 실시 결과 아래 기업에 낙찰되어 CDEEE(전력공사)와 BOO(발전소 건설, 소유, 운영) 방식 계약 체결
 - 전력공사(CDEEE)에서 당관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 개 프로젝트 공히 7 억 5,000 만 달러 규모이며, 1 일 전력생산량 계획은 약 14.256GWh/Day 이며, 연간 전력생산량 계획은 약 5,203.44 GWh/Year 이다.
 - 1 개 프로젝트는 도미니카 남서쪽 아수아(Azua)주내 카리브해 연안지방인 아티요 Hatillo)에 660MW(330MW X 2) 규모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서 Emirates Power 사 컨소시엄(Emirates Power D.R., S.A. Grupo Vicini, Seaboard 등 3 개사)에 낙찰
 - 생산전력 예상 판매처: 금광채굴소, 니켈광업소, 관광단지 등 대형 수요가 대상 판매
 - 여타 1 개 프로젝트는 도미니카 북동쪽인 Montecristi 주 Pepillo-Salcedo 지역 아이티와 접경)에 역시 660 MW 규모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서 Sichuan Machinery & Equipment 사와 Constructoras MC CXA 사 및 Emaca CXA 사 등 3 개사 컨소시엄(중국+도미니카)이 수주
- * 2 개 프로젝트 모두 '08 년 4 월 말까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전력공사(CDEEE) 자료에 의하면 '08 년 4 월 현재 금융 확보 및 환경영향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24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건설

- 도미니카 IPP 1 위 기업인 Ege-Haina 사와 한전(Kepco)간 공동개발 약정 체결 '08.4. 18)
 - Ege-Haina 사 Rolando Gonzalez Bunster 회장과 이원걸 한전사장간 한전 본사에서 서명
- 5 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197 MW 규모 중유발전소 철거 및 240MW 규모(80MWX3) 석탄 발전소를 산토도밍고 인근에 건설
 - 금년 중 착공하여 2011 년 중 가동 개시 목표

□ 기타 대체에너지 개발 발전 프로젝트

- 태양 에너지 개발
 - 국가 에너지 위원회(CNE) 발표에 의하면 스페인 기업이 태양열 발전사업에 다음과 같이 진출하게 된다.
 - 진출기업: 스페인 ISOFOTON 사 (세계랭킹 5 위)
 - 투자규모 초기 1 억 유로, 10 년 이내 10 억 유로
 - 1 단계로 2 개 공장 설립: Isotofon 현지 자회사 IsoTecsol 주축
 - * Haina 소재 Polislilic(Fotovoltaic Solar Panel 원료) 제조: '08.1 월
 - * 사이버파크(PCSD) 소재 태양전지 생산공장: '08 년 상반기 중

○ 에탄올 생산 플랜트

- Grupo Vicina 사가 도미니카 동부 지역을 근거로 5 억불 규모 에탄올 생산 플랜트 가동 계획이며,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에탄올을 생산할 예정인데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Bagazo)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도 함께 건설 추진
- Vicini 사의 에탄올 제조용 사탕수수 정제 공장은 3 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하루 15,000 톤의 사탕수수를 뽑아 연간 5 천만 갤런의 에탄올을 추출해낼 용량을 갖게 될 것이라 한다.
- 국가설탕위원회(CEA) Enrique Martinez 위원장(Director)에 의하면 사탕수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Consuelo, Boca Chica, Quisqueya 등 동부지역 제당공장들을 Etanol Dominicana 사에 넘긴바 있는데, 동사는 Grupo Vicini 를 주축으로 Fanjul, Central Romana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주식 양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 이 외에도 CESPM 사(산페드로데마코리스 전력회사)가 300MW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플랜트를 추진하는 등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붐이 각 분야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진출 깃발을 올린 한전을 축으로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과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 전력 산업

(가) 개요

- 35 년간 도미니카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로서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도미니카(공)의 전력 수요는 피크타임기준으로 3,600MW 이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전력소비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2006 년에는 3,800 Mw 의 전력소비가 예상되고 있다.
-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전력산업은 국영전력공사인 CDE 의 3.0%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전 회사로부터의 전력구입이 26.8% 증가하여 10.7%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발전 부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Destec, Grupo Ysabe la de Puerto Plata, Smith & Enron 등 3 개 회사는 동기간 각각 74.7%, 55.7%, 19.0%의 발전량 증가를 기록하였다.
- 그동안 국영전력공사의 발전설비 가동률은 평균 44%를 밑도는 가운데 사설전력회사(IPP)에 의존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영 전력 공사(Corporacion Dominicana de Electricidad)를 발전 3 개사, 송전 1 개사, 배전 3 개사, 기술지원 1 개사 등 8 개사로 분리하여, 발전 2 개사, 배전 3 개사 등 총 5 개사 주식의 50%를 국내외 민간투자자에 판매하고 경영권을 이양하는 국영전력공사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나) 발전과 전력 수급

- 2005 년 기준 발전설비는 화력 3,081MW, 수력 560MW 로 총 3,641MW 로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발전량은 각각의 설비 가동률은 44.4%, 97.2%에 머무른다.
- 피크 시 전력수요는 3,600MW 이나 공급량은 2,910MW 로서 79.9%의 공급률에 그치며, 용도 별로는 가정용이 가장 많은 38%이며, 그 다음이 산업용, 상업용, 공공기관의 순

으로 각각 35%, 20%, 7% 등이다. 발전 연료로는 디젤(41.4%)과 증기발전(33.9%)이 주종을 이룬다.

- 발전부문의 민영화는 '99. 5 월의 국제입찰을 통하여 설비보수를 위한 투자부족으로 전체 가동률이 78%에 그치던 화력발전소 31 개소가운데 Seaboard 사가 17 개 발전소의 총 설비 능력 583 메가와트의 이타보(ITABO)발전소를, New Caribbean Investment 사는 14 개소의 총 설비능력 663 메가와트의 하이나(HAINA) 발전소로 구분, 각각 경영권을 이양하였다.
- 발전 2 개사는 향후 3 개년간 매년 100 메가 와트의 발전량 증가를 조건으로 하여, 총 금액 291.6 백만 달러는 전액 설비교체 및 보수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다.
- 도미니카(공)은 2004 년부터 고유가 시대를 맞아 2005 년 6 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전기 절약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및 태양열 에너지 개발 추진 및 에탄올과 알코올을 혼합한 가솔린 사용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도미니카(공) 대통령 Leonel Fernandez 는 투자액 8 천만 달러의 에탄올 생산 발전기를 2007 년 6 월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 발전 플랜트 도입 현황

- 도미니카(공)의 대형 발전설비 시장은 핀란드계 바짚라와 독일계만, 지멘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젤발전은 바짚라와 만이 그리고 스팀터빈 발전은 지멘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은 하도급 형태로 국내의 H 중공업이 보일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 디젤발전 부문에서 푸에르토리코에 지사를 두고 있는 바짚라는 도미니카(공)내에 Work Shop 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부품 및 A/S 를 추진하고 있으며 1 억 달러 이상의 대형 발전소 설립 입찰의 경우 발주초기단계에서 도면작성을 위해 30 만 달러 정도를 미리 수수할 정도로 강한 경쟁력과 현지 인식도를 가지고 있다.
- 대형발전기 부문에서 현지에서 선호하는 스펙은 오리물전 오일을 사용하고 Slow 스피드의 300 Revulsion/Unit 엔진에 관심이 많다. 아울러 현지의 열악한 전력사정에 의거 일반 상가나 대형 사무건물, 호텔의 경우는 최소한 1MW 에서 10MW 정도의 자가 발전설비의 도입이 필수적인 바 표준모델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하면 발전기 부문의 진출이 유망 된다.

(라) 송전과 배전

- 송배전 설비 현황은 송전선 138kv 급과 69kv 급이 각각 456Km, 1,419Km 가 각각 설치(총 투자 규모 1 억 5,000 만 달러)되어 있으며, 716.7Km, 12Km 가 추가(총 투자 규모 8,700 만 불)로 설치되어야 한다. 월 전기소비량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남부 및 동부는 약 219MW, 북부는 159MW 수준이나, 송배전 시 전력의 손실과 가입자의 불법 도전 행위 등으로 인하여 요금 징수율은 지역별로 남부와 동부 120MW, 북부는 87MW 수준에 그친다.

- 국영전력공사에서 분리된 EDENORTE, EDEESTE, EDESUR 사 등 배전 3 개사는 '98.4.17 본입찰 결과, 기준 가격 2 억 6,500 만 달러를 21.43% 상회하는 3 억 2,100 만 달러에, Union Fenosa(북부), AES Distribucion Dominicana(남부, 동부) 등 2 개사에 낙찰되어 경영권을 이양한 바 있다.
- 배전 2 개사는 향후 4 개년간 전기료 인상이 동결된 조건에서 배전 효율성 제고와 도전 방지 및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총 321.2 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송배 전용 전선, 철탑, 계량기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라. 의약품 시장 동향

1) 수요 동향

- 도미니카(공) 의약품 시장은 연간 총 규모가 약 2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중 약 75%가 수입품으로 구성되어있고 약 96 개에 달하는 국내생산 업체가 100% 원료 수입을 통해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음.
- 가장 수요가 많은 의약품은 Antibiotics(항생제)와 Anti-inflammatory(항염증제) 계통으로 병원, 약국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수요도 가장 많음.
- 도미니카(공)보건부에 의하면 도미니카(공)에는 2,226 개의 약국과 727 개의 공립병원 및 150 개의 민간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분업 실시로 의사는 수술용 의료용품 및 의약품 이 외에는 처방만하고 환자는 약국을 별도 방문하여 의약품을 구입함.
- 이에 따라 정부조달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의약품 판매상은 각 종합병원이나 개인 병원을 순회하며 관련 제품을 홍보 및 샘플을 제공하고 있음.

2) 수입 동향

- 도미니카(공) 의약품 수입은 2005 년 중 1 억 7,000 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동 금액은 순수한 의약품만 포함된 것으로 국내업체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의약품 원료를 포함하면 수입 실적은 크게 확대됨.
- 도미니카(공)의약품 시장의 주요 공급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엘살바도르, 벨리스 등이 주요 수입국임.
- 한편 국내 제약회사에 의해 100% 수입되고 있는 의약품 원료는 주요 공급국이 미국, 유럽, 아시아(중국, 인도) 순이며 50% 이상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3) 생산 동향

- 도미니카(공)보건부에 의하면 2006 년 85 개의 의약품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원료의 100%, 반제품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8,000 종의 1 만 3,000 여 등록제품이 국내 생산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INFADOMI (의약 산업 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소비 의약품의 50%선을 제조 공급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 아울러 도미니카(공)에는 다국적 제약업체의 진출이 없으며 지사형태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제조보다는 직수입을 통한 판매에 치중하고 있음.

4) 유통 동향

- 모든 의약품은 수입자 및 제조사에서부터 정부조달 및 일반판매의 두 가지 채널을 거쳐 일반인에게 약품이 공급되고 있음.
- 정부조달의 경우는 PROMESE(Programa Medicamentos Esenciales)라는 의약품 조달 기관을 통해 공공 병원 및 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
 - Programa Medicamentos Esenciales (PROMESE)
 - Contact Person: Mr. Modesto Antonio Sanchez
 - Add: Calle H #15, Zona Industrial de Herrera
 - Phone: 1-809-518-1313
 - Fax: 1-809-534-0820
 - 일반 판매의 경우는 수입상이나 제조사가 직접 외판원 등을 통해 약국이나 일반 병원을 방문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제조사 및 수입상의 마진율은 약 35-43%선에 달하며 일반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약 30%의 마진율을 책정하고 있음.

5) 수입 관리 제도

- 도미니카(공)은 마취제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보건부 의약품 등록절차 및 상공부 상표등록을 마치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음
 -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은 별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매번 수입 시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 의약품 등록 관련 비용: 7,000페소(1달러=32페소 내외)
 - 등록 소요 기간: 약 90일 내외 (실제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수입 등록을 취득한 일반 의약품은 수입 시마다 상업송장 사본을 보건부에 제출하고 수입 신고 후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제품을 통관함.
- 의약품 수입허가 및 등록과 관련해서는 보건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상공부가 상표 등록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
 - Secretaria de Estado de Salud Publica (보건부)
 - Contact Person: Mr. Joaquin Rodriguez, General Dir.
 - Phone: 1-809-541-3121 / 565-2251
 - Fax: 1-809-544-4337
 - Add: Av. Tiradentes esq. San Cristobal, Santo Domingo
 - E-mail: sespas@verizon.net.do

마. 자동차 산업

1) 2007년도 자동차 시장: 대폭 확대, 부품 수요도 꺾춤

□ 신차 56%, 중고차 40% 수입 증가, 부품은 32% 늘어

- 1-3 위를 일본차가 장악, 7 위인 현대는 3.6%에서 4.2%로 시장점유율 상승
- 도미니카 공화국 자동차 수입규모가 2007 년에 대수 기준 47%, 금액 기준 45%가 늘어나 자동차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신차가 2006 년 20,501 대에서 2007 년 31,951 대로 56% 늘어났으며, 중고차는 25,640 대에서 35,979 대로 40%가 각각 늘어남에 따라 시장규모는 2006 년 4.9 억 달러 선에서 2007 년 7.1 억 달러 선으로 45%나 꺾춤 뛰어올라 도미니카 공화국 시장규모가 인구규모 대비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차량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시장도 HS 8708 류 기준 2006 년 4,143 만 달러 규모에서 2007 년 5,458 만 달러 규모로 32%가 늘어나 활황을 보였다.
- 2006~2007 년 차량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일본차가 4 위만 빼곤 1 위부터 6 위까지 여전히 독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부동의 1 위인 도요타가 차량 대수나 금액 면에서 크게 늘기는 했으나 점유율은 29.3%에서 25.1%로 떨어진 반면 현대(기아 제외)는 신차가 1,138 대에서 1,830 대로 는데다 중고차도 209 대에서 399 대로 늘어나 1,762 만 달러에서 3,027 만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점유율이 3.59%에서 4.24%로 높은 신장세를 시현했다.

주요 차량별 시장 점유율(2007년 FOB금액 기준)

순위	차량	시장점유율(%)
1	도요타	25.1
2	미쓰비시	10.6
3	혼다	9.7
4	벤츠	6.2
5	닛산	6.0
6	스즈끼	5.5
7	현대.기아	5.2(현대 4.2, 기아 1.0)
8	시보레	4.2
9	포드	3.5

- 미국산 차량은 DR-CAFTA(미국-중미 카리브 자유무역협정)가 2007. 3 월 발효됨에 따라 소폭의 오름세를 탄 것으로 분석됨. 시보레는 3.2%에서 4.2%로 크게 늘었으나 포드는 3.50%에서 3.55%로 증가폭이 제한된 정체를 모습을 보였다.

BRAND	2003				2004				2005				2006				2007			
	UNITS	NEW	USED	FOB (US\$)	UNITS	NEW	USED	FOB (US\$)	UNITS	NEW	USED	FOB (US\$)	UNITS	NEW	USED	FOB (US\$)	UNITS	NEW	USED	FOB (US\$)
CHEVROLET	507	320	187	4,570,445	772	281	491	8,552,589	1,840	996	844	17,297,087	1,593	1,007	586	15,833,393	2,807	1,539	1,068	30,188,864
FORD	425	268	157	8,247,807	498	177	319	9,818,397	1,341	703	638	17,450,785	1,288	682	604	17,161,978	1,977	905	1,072	25,295,894
HONDA	959	72	887	7,942,230	4,871	394	4,477	34,189,887	13,470	2,098	11,374	79,776,854	7,332	1,507	5,825	43,352,173	11,548	3,312	8,236	69,357,143
HYUNDAI	282	229	33	2,862,662	395	178	217	3,285,171	1,650	1,384	266	18,365,840	1,347	1,138	209	17,619,221	2,229	1,830	399	30,266,460
KIA	398	248	148	4,199,237	319	180	139	3,125,409	816	527	289	7,554,845	606	474	132	5,032,823	733	581	152	6,749,214
MERCEDES BENZ	120	66	54	5,403,284	328	177	151	11,930,687	739	485	274	22,685,998	879	638	241	32,282,034	1,025	773	252	44,054,893
MITSUBISHI	443	60	383	4,732,483	3,217	447	2,770	35,379,039	8,037	2,152	5,885	76,800,768	6,582	1,021	5,561	50,144,358	8,811	2,080	6,551	75,857,150
NISSAN	1,019	834	185	13,194,370	1,811	848	963	21,741,890	5,213	2,902	2,311	63,601,143	3,219	1,500	1,719	27,927,822	5,135	2,414	2,721	42,838,811
SUZUKI	352	100	252	2,555,888	1,498	185	1,313	8,785,237	2,579	993	1,586	17,592,408	2,357	1,489	868	19,870,681	3,873	2,812	861	38,968,832
TOYOTA	3,231	437	2,802	25,553,413	8,022	1,830	6,192	83,839,980	20,044	5,780	14,264	185,370,535	12,648	5,717	6,931	143,617,937	17,594	7,408	10,186	178,618,572
OTHERS	2,049	1,005	1,038	32,449,301	4,714	2,205	2,509	56,293,362	10,970	6,980	3,990	144,846,162	8,292	5,328	2,964	118,231,881	12,808	8,327	4,481	173,293,053
TOTAL	9,783	3,839	6,124	111,511,098	26,443	6,902	19,541	276,721,588	68,699	24,938	41,761	651,142,203	46,141	20,501	25,840	490,854,077	67,940	31,981	35,979	713,088,488
	-	-	-	-	+171%	+90%	+219%	+146%	+152%	+281%	+114%	+135%	-31%	-18%	-39%	-25%	+47%	+58%	+40%	+45%

Source: 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5 년 이내 중고차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2005 년 중고차 수입이 절정에 달했다가, 워낙 증가폭이 컸던데(114%) 대한 반작용으로 이듬해에는 대폭 줄었으며(39% 감소) 지난해에는 다시 큰 폭의 반등세(40% 증가)를 실현했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차량 대수 기준으로 보면 2007 년 신차가 31,951 대가 수입된 데 비해 중고차는 35,979 대가 수입되어 전체 차량 시장(2007 년 67,940 대)의 53% 를 차지함으로써 중고차가 도미니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신차 시장은 물론 중고차 시장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 중고차가 잔 고장이 없어 수명이 길다는 점과 부품을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일본 중고차의 아성을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있음. 일본 차량은 신차 수입 대수보다 중고차 수입대수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중고차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강점은 갖고 있으나 잔 고장이 많아 수명이 짧고 부품 적기 공급도 일본 차에 비해 원활치 않다는 인식 때문에 신차 시장 점유율에 비해 중고차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현대 기아의 경우 차량 대수 기준 신차 시장 점유율은 7.5%(현대 5.7%, 기아 1.8%)에 달하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1.5%(현대 1.1%, 기아 0.4%)에 불과한 점이 이를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2) 2006년 이전 자동차 시장 상황

- 도미니카공화국은 그동안 긴 경기침체에 벗어나 2005 년 들어서 자동차 판매량이 2004 년 월 평균 대비 30%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 수입에이전트 협회(ACOFAVE)에 의하면, 이러한 자동차 판매 급 증 추세는 달러가치의 하락 때문이라고 밝히고, 1 만 달러에서 2 만 5000 달러 사이에 공급되는 영업용 및 가정용 승용차와 소형트럭이 소비자의 주요 수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렸다.

- 도미니카 공화국은 최근 3 개년 간 극심한 환율 불안에 기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었으나, 2004 년 8 월 정권 교체 이후 달러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한 것에 판매량 급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자동차 판매량은 2002 년에 2 만 4,457 대, 2003 년에 1 만 3,064 대, 그리고 2004 년에는 1 만 2,032 대로 판매량이 계속 감소했었으나, 달러가치의 하향안정세를 바탕으로 2005 년에는 3 만 5,000 대 수준의 판매량을 보였다. 2006 년에는 자동차 수요는 줄어 들었으나 2006 년 12 월에는 2007 년 1 월의 세금인상 우려로 판매량이 늘었다.

3) 한국산 자동차 수요 급증

- 도미니카공화국은 2003~2004년 간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구매력이 되살아 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2004년 8월 정권 교체된 이후 하반기부터 그 동안 억제돼 있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 수입유통협회(ANADIVE)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부터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5 년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무역통계 기준으로 2005년에는 무려 176.5%가 증가한 41,377천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이 현대자동차 수입 에이전트인 Magna Motors, 기아자동차 수입 에이전트인 Viamar사, 대우 및 쌍용자동차 수입 에이전트인 Avelino Abreu사를 접촉한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수입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임을 확인해 줬다.
-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중에서 Terracan, Santa Fe, Carnival, Rexton, Tucson, Sportage, Kyron 등 SUV 차량이 인기가 가장 많은 상태이며,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 자동차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가 금년도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도미니카 자동차 수출통계

(단위: 천 달러)

연도	2003(증감률)	2004(증감률)	2005(증감률)	2006	2007
금액	20,887(-79.0%)	14,963(-28.4%)	41,377(176.5%)	43,070	61,593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

바. 정보통신산업 현황

- 2007년 통신산업은 14.9%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설치된 통신회선은 620만 회선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69만 회선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중 530만 회선이 이동통신이며, 88.6만 회선이 유선회선이다.

- 2008년 들어서는 1/4분기 중 이동통신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12.7%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총 설치회선은 660만 회선으로 집계, 전년 동기비 75.7만선이 늘어났다. 이중 이동통신이 86.3% 비중으로 570만 회선이며, 13.7%가 유선 회선으로 89.8만 회선이다.

1) 도미니카(공) 전화보급률 중미 최고 수준: 이동통신 가입자 500만 명(전국민의 55%) 돌파

- 도미니카 공화국 휴대폰 시장이 급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2007년 10월 말 기준 도미니카 국민 중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 비율이 처음으로 55%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2년 170만 명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비중이 19.9%에 불과했으나 2003년 212만 명을 기록, 24.5%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362만 명으로 대폭 늘어 가입자 점유율은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2006년에는 410만 명으로 증가 폭이 둔화되는 듯 했으나 2007년에는 10월 말 기준 500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가입자 점유율도 55.6%로 경총 뛰어올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중남미의 IT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유선통신 가입자 대비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이 1:5로 휴대폰이 통신시장내 압도적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휴대폰 시장 내 소비자 선호도 변화 물결이 크게 일고 있다. 휴대폰 구매 시 가장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디카) 열풍이라 할 만큼 디카 기능을 가장 중시했으나 이제는 모바일 뮤직으로 선호도 1순위가 넘어갔다.

2) 무선인터넷 WiMAX 대중화 시대 개막

- 중남미의 IT 메카를 지향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초고속 무선 인터넷인 WiMAX의 대중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 2007.3월 도미니카(공) 4대 통신기업 중 하나인 TRICOM사가 WiMAX 서비스를 단독으로 도입했으나 사업 초기다 보니 그 대상이 기업에만 맞춰져 있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해 10월 도미니카의 Onemax사가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Alcatel-Lucent 사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도미니카에서 WiMAX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기로 발표했고, 이어 11월에는 WindTelecom사가 합류키로 함에 따라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Onemax사는 1단계로 10억 페소를 투자해 우선 산토도밍고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이 투자사업에 Alcatel-Lucent와 함께 CitiGroup도 참여하고 있다.
- 신규 주자인 Onemax사가 무선인터넷 시장에 새로이 뛰어들자 초고속 인터넷 가격이 20%나 급락하는 등 통신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통신청(INDOTEL)에서는 이를 초고속 인터넷 대중화 신호탄으로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청(INDOTEL)의 Jose A. Rizek 부청장은 “휴대폰 시장에서 선납카드 시스템 및 월정 소액경비 시스템이 이동통신시장을 대중화 시켰듯이 WiMAX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고속인터넷 시장을 대중화 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 초고속 무선 인터넷 시대 개막에 대비해 이 분야 선발주자인 Tricom 사는 올해 중 10 억 페소를 투자하여 통신망을 확대했으며, 후발주자인 Onemax 사와 WindTelecom 사는 22 억 페소(6500 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고 통신청(INDOTEL)의 Jose Rizek 부청장이 밝혔다.
-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기존 통신업체들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 내 최대지분(44%)을 확보하고 있는 Codetel 사는 “Internet Flash”라는 무선 인터넷 상품을 저렴하게 출시해 시장 반응을 탐색하고 있다.
- 도미니카 공화국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04 년 기준 전국민의 8%에서 2007 년 10 월 기준 23%로 크게 늘어났으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고속 유선 인터넷 설치비가 비싼 관계로 전체 12 만 5000 계좌 중 1 만 4500 계좌에 불과해 고속 인터넷 시대의 대중화는 요원해 보였던 만큼 이번 Onemax 사의 WiMAX 사업 개시 선언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중남미의 인터넷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것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WiMAX 표준 802.16E(IEEE 802.16) 기술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Onemax가 세계 최초라고 현지 언론은 다소 들뜬 분위기에서 보도하고 있다.
- 수출투자청(CEI-RD)의 Eddy Martinez 청장(장관급)에 의하면, “2007 년 들어 통신 분야에 4 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 모든 기록들이 갱신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통신분야 성장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세계 8 위의 이동통신 사용국(가입자 460 만 명/전국민의 51%)이자 세계 19 위의 인터넷 접속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시골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속 프로젝트(Conectividad Rural de Banda Ancha)”를 현재 추진 중에 있어 WiMAX 상용화와 함께 중남미의 IT 메카화 전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 카리브 국가 가운데 가장 전화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즉 국민의 55%가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유선 및 무선 을 포함한 회선수가 600 만에 도달했다.
- 도미니카 통신청(INDOTEL)의 Jose Rafael Vargas 청장이 2007 년 12 월 밝힌 자료에 의하면, 유무선 통신분야는 도미니카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국내 총 생산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 현지 통신사업자인 CODETEL, TRICOM, ORANGE, CENTENNIAL 사 등 통신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정전사태로 대변되는 전기사정은 중미/카리브 국가 중 가장 열악한 반면, 통신사정은 중미 국가 중 가장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중남미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이며, 최근 2 년간을 놓고 볼 때 수치상 70%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도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과 국제통신연합(UIT)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휴대전화 보급률 면에서 멕시코 등을 앞 질렀으며, 인터넷과 무선전화 등 통신분야는 중남미에서 최상 수준의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도미니카(공)의 이러한 통신분야의 성장은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기반시설 확충 및 사용인구 저변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사. 제조업 일반

1) 제조업 기반 취약, 대부분 공산품 수입에 의존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식음료나 일부 내수 위주의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96 년에 자유무역지대의 성장부진으로 3.7%의 성장에 그쳤던 제조업은 '97 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금융확대, 전력공급의 확대 등과 함께 사탕수수, 일반제조업, 자유무역지대 부문 등 고른 성장에 힘입어 7.9%의 성장률을 보였다.
- '98 년에는 자유무역지대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해로서 생산량, 수출액 등에서 각각 전년 대비 7.6%, 14.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입수업체도 67%가 증가하고, 특히 원부자재의 국내 소싱 증가율이 18.1%로 나타났다.
- 지난 '98 년에는 태풍 조지로 인한 피해로 사탕수수 가공산업이 전년대비 생산량이 22% 내외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생필품과 식음료 중심의 내수업종과 자유무역지대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5.0%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 2004 년도에는 전년대비 5.6%가 증가했으며, 제조업 수출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 수출도 작년 동기대비 2004 년에 3.96%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03 년에 이어 2004 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부문을 제외한 내수부문은 30~50%나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한 상태이다.
- 2005 년 들어서는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따라 제조업이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며, 2006 년 상반기에는 8.6%의 성장률을 보여 안정된 성장 추세에 있다.
- 2006 년에는 제조업이 연간 기준 5.7% 성장했으며, 2007 년에는 4.8%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아. 중고자동차 시장 동향

1) 시장 개요

- 도미니카(공)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사업의 활성화로 건축자재 운송과 근로자들의 교통수단으로 필수적인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여 최근 자동차 판매 업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 현지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자동차 40%, 유럽 자동차 30%, 미국 자동차 16%, 한국 자동차 6%, 기타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는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지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큰 이유는 고장이 없고 부품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 지난 97 년 도미니카(공) 정부가 관광 택시로 현대 소나타 3 와 그레이스를 대량 수입하였고, 또한 한 고속버스 회사에선 현대 브랜드 고속버스를 수입, 운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2002 년에 대중교통 근대화 플랜의 일환으로 약 8,000 만 달러 가량의 한국산 차량이 추가 도입되었음. 또한 한국 자동차의 기술력 향상과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마케팅 전략, TV 광고 효과를 인하여 한국 자동차의 선호도가 차츰 향상되고 있고, 현대, 기아 부품 전문 수입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다.

-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정비소가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고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 즉시 판매가 가능한 A 급 상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또한 기타 남미국가들의 중고 자동차 시장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한국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업체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2005 년 들어서는 그간 억제되었던 수요가 급증하여 중고자동차 수입도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 년도에도 지속되었다.

2) 중고차 수입 현황

- 현지 중고차 판매의 대부분은 일제자동차로 동 일제자동차는 크게 일본에서 직수입 (오른쪽 핸들)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최근 미국을 통해 수입되는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01.1.1 일부터 5 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물량이 충분치 못한 일제 중고자동차의 수입이 상당 부문 감소될 전망이며 이를 대신해 많은 수입상들이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4~5 년 지속된 거품경기가 최근 들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 할부금 납부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진정되고 있는 점이 한국산 중고 자동차 진출확대의 제한 요인이다.
- 2003 년도 들어 환율 불안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신차에 대한 판매가 80% 정도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큰 증가를 시현하지는 못했지만, 2004.5.16 일 대선을 전후해서는 고가의 일본산 중고 자동차보다는 한국산 중고 자동차로 수입선을 전환하려는 현지 자동차 수입상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도미니카 중고 자동차 수입협회(ANAMARA)에 의하면, 2007 년 5 월 기준 회원사 중 대부분이 한국산 중고차 수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중고자동차 판매 관련 유통

- 현지의 중고차 판매 딜러들이 새 차는 현지 공식 수입딜러에서 구입하고 중고차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딜러들도 대부분 직수입하고 있으며 중고차와 새 차를 함께 판매하는 딜러들이 늘어나고 있다.
- 아울러 현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30 개월 등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은행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거나 자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4) 수입 규제 관련

- 도미니카(공)은 2000 년 말 공표된 법 제 147-00 조에 의해, 5 년 이하의 중고 자동차는 수입을 금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수입 협회인 ANADIVE 는 2000 년도까지 5 년 이후의

중고 자동차 수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중고차 수입 제한으로 중산층이 원하는 중고 자동차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보고 정부에 147-00 법 조항을 기존의 5 년 이하 수입규제에서 최고 7 년 이하로 변경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사고 차량과 상태가 나쁜 차량에 대해 수입을 법적으로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5) 중고자동차 수입 판매 관련 제세금

- 중고자동차 수입통관 시 세금
 - 수입관세 20%와 부가가치세 16% (CIF 가격 기준)와 13 % 환전세 및 특별소비세가 부과됨(부가가치세 및 환전세는 2004년에 대폭 인상됨) 중고차의 경우 세관 내부의 연식 별 감가상각 과표 기준액을 기준으로 수입가를 책정하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인보이스 금액과 비교해 과세
 - 통관 후 현지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 (부가세 차액 및 소득세 납부)
- 중고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16%의 부가가치세를 징수. 수입상이 통관 시 세관에 지불한 16%의 부가세와의 차액을 매달 29일에 국세청에 납부. 그 외 판매총액의 1.5%를 소득세로 매달 국세청에 선 지불 연말에는 일년 INCOME TAX 25%를 기준으로 12개월간 지불한 소득세 선납분 1.5%와의 차액을 납세

자. 철강, 금속산업

1) 철강산업 수준 낙후

- 1960년대 국영철강회사인 Metales Dominicanos(METALDOM)을 설립하면서 활성화된 도미니카 공화국의 금속가공산업은 1970년대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에 힘입어 기반을 갖추어 1980년대에 발전을 계속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상품의 범람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 Wire Rod를 사용하여 철망이나 못 등을 생산하는 선재가공산업은 국내 건설업의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Acero en General, S.A.(Acerotec), Acero del Cibao, S.A.(Acisa), Alambre Liso y de Pua(Alipu), Industrias Nacionales, C. por A.(Inca), Materias Primas, C. por A.(Maprica) 등 국내 5개사가 설비의 현대화, 해외 원자재 공급선 확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의 활동을 계속하여 중미카리브 지역의 주요 선재제품 공급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 판재가공산업은 건축용 양철지붕과 철재가구용으로 아연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외 석도강판이나 전기강판, 기타도 금강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속가공산업은 프레스용 금형과 기계 및 공구와 부품, 차량용 사시 부품 일부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장비의 노후화와 기술 축적의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수준이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상품 규격 등에 대한 Know-how가 결여된 실정이다.

차. 휴대폰 액세서리

1) 휴대폰은 급격히 늘어나면서 차츰 액세서리 시장도 형성 중

- 도미니카(공)의 휴대폰 사용자는 약 25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의 CODETEL, TRICOM, ORANGE, CENTENIAL사 등 유력 통신사들이 휴대폰 마케팅에 주력 하고 있어 앞으로 핸드폰 사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2007년 1/4분기 기준 인구 100명당 27명꼴로 핸드폰 사용
 - 그러나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 휴대폰 사용자에 비해 액세서리 시장은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신세대층 중심으로 휴대폰이 생활화되자 휴대폰을 차별화시키고 특색 있게 꾸미려는 경향이 나타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도 발생하여 별도의 액세서리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액세서리 종류는 배터리, 안테나, 핸드폰 케이스, 핸드 프리킷 등으로 한국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 목걸이, 스티커, 미니 인형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2) 5개 수입상이 미국으로부터 소량 수입 중

- 현지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수입상은 20여 개 업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ALI Celular사가 규모가 제일 크며 다른 업체들은 소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출시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액세서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고 있어 모든 모델의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소량씩 수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경우에는 인근 마이애미를 방문하여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

3)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나 장래 시장성은 아주 높아

-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핸드폰 목걸이, 핸드폰 줄 등은 현지 마켓 테스트 결과 가장 대중화 되어있는 MOTOROLA, NOKIA등 모든 모델에 줄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핸드폰 목걸이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구형으로 크기 도 크고 무게가 많아 목에 걸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시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한국산의 핸드폰 액세서리중 독특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인 프리킷에 대해서는 바이어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LG와 삼성의 신모델 핸드폰이 현지에서 활발히 판매되기 시작하면 동반하여 액세서리 시장도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 건설산업 현황

1) 건설산업이 경제성장 견인차

- '90년대에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 건설 붐이 일어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3~2004년 2년간은 뒷걸음질을 치는 등 한때 건설산업 퇴조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5년부터 성장세(7.5%)로 전환, 2006년에는 22.7%의 경이적인 두 자릿수 성장 기록
- 건설시장 규모는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합쳐 연간 24억 달러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건설 부문 정부 예산 규모는 연간 5.5 억불

- 각 정부부처가 건설부문에 투입하는 한해 예산은 2006년 기준 총 RD\$176억 페소(미화 약 5.5억 달러)로서 2005년의 138억 페소 대비 28% 늘어나 정부가 건설경기 주도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고가도로, 교량 등 건설. 보수 공사

3) 금융권 건설 분야 대출 규모는 연간 11.5 억불

- 금융권의 건설 분야 대출 규모도 2006년 기준 369억 페소(약11.5억 달러)에 달해 2005년 대비 3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산업 활황을 뒷받침
- 2007년 1/4분기에는 390억 페소(약12.2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
 - 동 기간 중 정부의 건설 투자액은 57 억 페소(약 1.8 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동기비 74% 급증

4) 주택건설 분야가 민간부문 건설투자 주도

- 도로 및 교량 건설, 상수도 공사 등 정부예산으로 시행되는 건설 프로젝트가 주요 비중 점유
- 민간 부문 건설시장에서는 아파트 및 빌딩, 호텔, 단독주택, 관광 방갈로, 단지형 공장, 쇼핑몰 및 중소형 유통점, 사무실 등의 건설이 많은 비중 차지
- 건설산업 호황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주택건설 분야인데, 2006년 기준 200만호가 건설되어 있지만 80만호 추가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매년 3만 채씩 수요가 늘고 있고, 서민층을 겨냥한 중저가형 주택이 가장 많은 수요 형성

5) 수도권에 건설 사업 집중

- 2006년 기준으로 볼 때에 60%가 수도권 산토도밍고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티아고 등 대도시와 관광단지 등에 건설 시장이 형성

6) 민간부문 건설 시장 고급화 추세

- 2005년의 경우 전년 대비 건설 투자 건수나 건설 면적은 줄어든 반면 건설 금액은 늘어나 고급 건축물 증가 추세 시현

7) 건자재 시장 호경기, 2007 년엔 주춤

-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축자재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2006 년의 경우 시멘트가 23.5%, 철근이 23.2%, 페인트가 11.9%의 성장을 각각 기록
- 기타 건축자재, 주택 사무용 전기용품, 건축 내·외장재 등의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
- 2007 년 들어 건설업은 -2.3%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1~9 월 기준)
 - 시멘트 및 철근 등 건축자재 시세 등거로 건설비용 상승이 주 요인
 - 시멘트 가격은 79.6% 상승, 철근 가격은 15.1% 상승한 반면 페인트는 -3.1%로 오히려 가격 하락하여 판매가 54.5% 증가. 시멘트는 가격폭등에도 불구하고 0.9% 매출 신장, 철근 매출은 -7.1%
 -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가 금리인하 및 환율안정 등에 힘입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 2008 년 초에 다소 타격 예상

8) 건축 자재 시장 동향

□ 세라믹 타일

- 우선 가장 많이 판매, 소비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은 FOB 가격으로 1 평방미터당 미화 약 6 ~7 달러 정도의 가격을 제시 할 수 있는 업체라면 도미니카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 도미니카(공)의 타일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유럽과 중미에서 수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한국업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PVC 천장재

- PVC 천장재와 몰딩은 한국업체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이다. 최근 지난 3 년 동안 PVC 천장재의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실용성 또한 인정 받아 많은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PVC 천장재를 보면 흰색과 베이지 단색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아울러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색상의 PVC 천장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한국 PVC 천장재 생산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 PVC 창틀

- 창틀의 경우 도미니카(공) 건축물의 약 90%가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 약 8%가 나무 그리고 약 2%가 그 외로 되어 있다. 알루미늄 샤시의 경우 한국업체의 수출이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 이유는 첫째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ALUMINIUM DOMINICANA 가 있고 그 업체의 컨소시엄인 CIMA 라는 대형 창호제작 업체가

도미니카 (공) 창호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경쟁사인 INDUCA 역시 ALUMINIUM DOMINICANA로부터 프로파일을 공급받아 창호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업체 또한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창호를 제작하는데 필요 한 롤러나 잠금쇠 등은 미국과 타이완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창호자재를 취급 하는 한국업체에게는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 PVC 창틀의 경우는 아직 현지시장에 소개가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제품이다. PVC 창틀 공급업체를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그 리고 미국 등이 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에서 공급되는 이들 업체의 PVC 창틀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편이어서 도미니카 창호시장에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대부분 이들 업체의 공급 창문이 시스템 창문이어서 공급업체 또한 가격을 내 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도미니카(공) 창호시장은 주로 한국과 유사한 슬라이드형 창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업체에게는 기본적인 수출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유럽과 북미업체보다 한국업체가 PVC 제품에 대해 관련하여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고 분석되는 바 도미니카로의 PVC 샤시 수출이 적극 권장된다.
- 아울러 현재 도미니카(공)에 플라스틱 샤시를 제작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설비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않아 플라스틱 용접 기계설비 수출상담도 시도해 볼 만하다.

□ 화장실 액세서리

- 화장실 액세서리의 경우 현지에서 대부분 유럽 물건을 수입해 오고 있어 국내업체의 수 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인데 그동안 무역관의 상담경험으로 보아 많은 도미니카(공) 화장실 액세서리용품 취급 업체들은 한국업체에 대한 제품과 가격 정 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중남미 시장에 진출경험이 있는 한국업체라면 시장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출입문 시건 장치

- 잠금쇠와 문고리 같은 경우는 제품 품질을 가격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최근 들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3 년 동안 중국제품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 하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제품의 질과 디자인에 실망하고 점차 유럽산, 미국산 그리고 일본산 상품을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선진국 제품과 경쟁 가능한 한국업체가 있다면 도미니카(공) 대형 철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해 나갈 경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방용 싱크대

- 최근 들어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싱크대 디자인이 구매를 결정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급시장

소비자의 구미를 맞춰주지 못해 한국업체의 시장진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 제품은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 우수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며 중 국제와 중남미제의 가격은 좋으나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너무 낙후되어 있어 적절한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 업체의 수출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본다.

□ 참고: 정보 조사 자료원

- 중앙은행(BC: Banco Central)
 - 웹사이트: www.bancentral.gov.do
 - 자료
 - 분기별 경제통계 Boletín Trimestral
 - 중앙은행 산하 Cenantillas 연구소의 경제보고서 Carta Economica
- 대통령(행정부)
 - 웹사이트: www.presidencia.gov.do
 - 자료: 대통령 경제공약집, 대통령 연간 시책
- 수출투자진흥청(CEI-RD)
 - 웹사이트: www.cei-rd.gov.do
- 상공부(SEIC: 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웹사이트: www.seic.gov.do
- 건설통신부(SEOPC: Secretaria de Estado de Obras Publica y Comunicaciones))
 - 웹사이트: www.seopc.gov.do
- 정보통신부(INDOTEL: Instituto Dominicana de las Telecomunicaciones)
 - 웹사이트: www.indotel.gov.do
- 관세청(DGA: Direccion General de Aduana)
 - 웹사이트: www.dga.gov.do
- 수출자유공단 관리청(CNZFE: Consejo Nacional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 웹사이트: www.cnzfe.gov.do
- 전경련(CONEP: Consejo Nacional de la Empresa Privada, Inc.)
 - 웹사이트: www.conep.org.do
-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웹사이트: www.camarasantodomingo.org.do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통상외교노선

- 외교정책의 기초는 전 정부의 고립적,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대외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함을 천명하며, 연체된 국제기구 분담금의 지불과 아이티와의 협력관계 강화, 중미공동시장(CACM) 및 캐리비안 공동시장(CARICOM)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실리적 차원에서의 중국 및 쿠바 등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관계를 정상화하였다.
-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는 뉴욕을 중심으로 약 160만여 명의 교민문제와 외채, 마약, 범죄인 인도 등의 정치문제, 지적소유권 보호 등이 주요 현안 사항으로 제기되어 미국과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힘입어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의 FTA(DR-CAFTA)를 2005. 8. 5일 체결하고 2007. 3.1일부로 발효되었다.
- 과거 22년간 도미니카(공)를 지배하였던 이웃나라 아이티와는 상호 반목관계가 지속 되어 왔으나 최근 EU의 지원으로 국경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모색되고 있다.
- 지난 1959.6.26일부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근 국 쿠바와는 '98.1.7일 양국 간 영사관 교환설치에 이어 '98.4.16일부 양국 간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98년 3월 이후 주2회 정기항공노선 개설하는 등 양국간 교역, 관광, 문화교류가 확대 일로에 있다.
- 원유 공급 시, 특별 가격조건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원유 도입 국에 경제발전 차관으로 공여한다는 산호세 협정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와는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 그러나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국내 쿠데타 기도에 도미니카(공)이 연루 되어 있다고 주장, 석유공급 중단 및 대사소환 조치로 양국간 관계가 한때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Leonel 대통령 집권 후, 양 국가간에는 현재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베네수엘라 주도 국제 에너지정책 협의기구인 Petrocaibe 협정 체약국으로서 페트로카 리베 정상회담 참가 및 자국 내 회의 유치 노력
- 레오넬 대통령은 2008년 5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8월 중 차기 임기가 개시되는데 책임 있는 대외관계를 차기 국정지표로 채택할 만큼 대외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나.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1) DR-CAFTA

- 도미니카 공화국 및 중미 5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DR-CAFTA가 오랜 줄다리기를 끝에 2007.3.1부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도 발효되었다.

- 미국 부시 행정부와 도미니카(공) 페르난데스 행정부가 3월 1일자로 이 일부 발효를 각각 공식 발표함으로써 협정 체결 2년 반 만에 도미니카(공)도 대미 FTA 국가로 편입 되었다.
- DR-CAFTA는 미국과 중미 5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및 도미니카(공) 간 2004년 8월 협정이 체결됐고,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4국은 지난해 모두 발효됐으나, 도미니카공화국(DR)은 2005년 중 미국 상하원 및 도미니카(공)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반대 여론에 따른 미국 측 추가 쟁점 재기로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효가 당초 2006년 1월부로, 다시 7월부로, 2007년으로 계속 연기돼 오다가 도미니카(공)의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미국 측이 요구한 쟁점들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발효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미국 내 민주당 등 반대 여론도 있고, 도미니카(공) 국내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중미 국가가 속속 DR-CAFTA 발효를 실현시킴에 따라 도미니카만 낙오될 가능성에 대한 절박감과 2006.5.16일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여대 야소 정국을 일궈놓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리더십으로 2006년 내내 끈기 있게 쟁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인 결과로 평가된다.
- 도미니카(공)의 대미 FTA 발효로 미발효 국가로는 코스타리카가 유일했으나 2007년 하반기 들어 발효시킴으로써 미국과 중미국 간 FTA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 도미니카(공)과 미국 간 쟁점이 돼 왔던 분야는 정부조달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반부패법 등 도미니카(공) 국내법을 대미 FTA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아직 국내법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반 국제협정들도 비준되었다.
-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미국 측 요구사항이 반영돼 서비스 부문과 건설부문에서 공사금액 하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시 공개입찰을 의무화하고, 외국기업의 단독 입찰도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대로 도미니카(공)의 관련 국내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되고, 외국회사의 대리점법 문제와 의약 분야의 위생등록 절차 및 발명특허법 문제 등도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DR-CAFTA 발효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 미국상품이 도미니카(공)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여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도미니카 공화국 내 한국상품의 입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반면 투자환경이 양호해져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투자진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 도미니카공화국의 섬유봉제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자유공단인 소나 프랑카(Zona Franca/Free Zone)에 입주해 있어 여타 분야보다 더욱 DR-CAFTA 발효를 고대해 옴. 특히 DR-CAFTA 발효 지연에 따른 실망 및 가공임 단가 비교열위에 따른 주문물량 축소 등 제반 사유로 소나 프랑카를 떠나는 기업이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이 FTA 발효로 재도약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DR-CAFTA 발효로 소나 프랑카에 입주한 섬유봉제업체들은 원산지 누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10만 입방미터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의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며, 향후에는 두 배로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DR-CAFTA 발효로 원산지 누적규정이 적용되면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및 DR-CAFT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 도미니카(공) 및 중미 4개국 원산지의 원단 및 원사 등 원자재를 이용한 의류 봉제가 가능케 되는 점이 도미니카(공)에 투자진출한 섬유봉제 업체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도미니카(공)는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품목 위주로 생산을 하는 경우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다양한 항만, 공항시설의 보유로 인해 중국산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도미니카(공)는 국토면적은 작지만 Santo Domingo, Barahona, Haina, Las Calderas, Boca Chicas, Caucedo, San Pedro de Macoris, Puerto Plata 등 8개의 주요 항구와 17개의 부두 및 32개의 공항을 갖고 있어 대미 물류유통상 강점 보유
 - 섬유류의 경우 최대 섬유수입국인 미국 시장 내 도미니카(공)의 주요 경쟁국은 중국 및 베트남, 인도,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마카오, 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며, 이 중 도미니카(공)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약 1% 수준으로 여타 중미국 및 안데안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2) CARICOM

- '97.6월 파나마 중미정상회담 이후 CARICOM가입이 본격화되어, 현재 공동실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유무역거래 및 투자자유화에 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3) CACM

- 지난 '97.5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중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 된 중미공동시장(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CACM) 가입협상에 서명한 이래, 7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2001년도에 시행됨

4) EU

- 1989년 LOME IV가입 이후, CARICOM-EU와의 '98년도 LOME협상 회의를 유치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인 바 있으며, '99년 11월에는 제2차 LOME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특히 Loenel 대통령은 2004년 8월 부임 후 2004년에 이어, 2005년 초에도 스페인을 방문하여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동 분야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EU와의 자유무역 개시 및 카리브 경제통합 실현: 카리브-EU간 경제자유교역협정(EPA)

- 2008.1.1일부 발효, 도미니카공, 아이티 등 카리브 15국과 EU 27국에 적용, 도미니카공, 아이티의 對EU진출 전진기지로서의 위상 강화

-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 카리브 15개국과 EU 27개국 간 경제자유교역협정(EPA) 체결을 위한 바베이도스 협상이 지난 12월 16일 타결됨으로써 이 협정이 2008. 1. 1일부로 발효
 - 하지만 실제 적용은 2008. 4. 15일부로 개시 예정
- 카리브 15국을 대표하는 카리브 협상단(Maquinaria Caribena de Negociacion)의 Richard Bernal 단장과 EU 집행위 상역국 Karl Falkenberg 부국장 간 서명이 바베이도스에서 이뤄짐으로써 효력을 발하게 되었으며, 2008. 3. 15일 바베이도스에서 EU-카리포럼(Cariforum) 각료회담 개최 시 각국 주무장관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나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월 1일부로 잠정효력을 부여기로 했다.
 - EU-카리브 EPA는 EU가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77개국과 추진하는 EPA의 일환으로 카리브 권역은 ACP 지역내 총 6개 서브 블록(아프리카를 중앙 및 동·서·남 아프리카 등 4개 서브블록으로 분류, 카리브 블록, 태평양 블록)중 제5블록으로 분류되고 있다.
- 이 카리브-EU EPA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카리브연안 15국)에 대해 양 블록간 자유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금융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차원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ct/ Acuerdo de Asociacion Economica)
 - EU-카리브 EPA는 상호 비호혜적 불균형 협정으로 EU는 전 품목을 개방한 반면 카리브 지역은 민감한 품목의 경우 EU산 제품의 시장 진출을 최장 25년 동안 자유화 유예품목으로 저지하거나 자유무역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취약한 자국시장 보호장치를 인정받았다.
 - 또한 쌀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자국 시장이 교란될 때 시장 보호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최장 8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허용했다.
-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산 제품의 대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특히 설탕·바나나·럼주·담배·쌀 등 재래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 EU-카리브 EPA는 여타 FTA와는 달리 양 블록 기업들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노동법규 또는 환경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조항을 두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헌장을 문화협력의정서 채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 협정은 향후 카리브 지역이 EU에 부여하는 혜택 이상으로 여타 선진국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이 수혜자격을 EU에도 확대 적용기로 합의.

□ 카리브-EU EPA 협정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 지역경제에 주는 의미

- 카리브 경제통합 실현
 - 카리브 국가들이 EU에 부여하는 내용을 카리브 국가들끼리도 상호 적용케 됨으로써 1998년 카리브의 맹주격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Caricom(카리브 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래 역내 현안이 돼 왔던 카리브 경제통합이 이 EPA를 통해 실현되었다.
 - EU와 ACP간 1975년 로메협정(LOME I) 및 2000년 코토누(Cotonou) 협정을 거치는 동안 EU와 카리브 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Caricom 및 Cariforum이 카리브 경제통합에 밑거름

- 이 협정을 통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아이티와의 자유교역 통로 최초 확보
 - 도미니카공-아이티 간 물품 교류 및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활성화 계기 마련
- 도미니카공화국 및 아이티 등 카리브 지역의 대 EU우회수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 코토누 협정에서는 제한됐던 대EU 섬유류 및 신발 수출이 자유화됨.
 - 국제경쟁력 약화로 외국인투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침체의 늪에 빠진 자유무역지대 회생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됨.
 - 섬유류 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원산지를 역내국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 소싱해 와도 무방(파격적 원산지규정 운영)
 - 신발 및 의약품 등의 경우 이 EPA협정 회원국이 아닌 인근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소싱 인정(*인근국 개념정의는 미확인)
- EU국들의 대 카리브국 반경쟁적 관행 타파 약속
 - 유럽국가들이 카리브국 여행에 대한 조세 부과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이 있어왔으나 타파를 통해 관광산업 진흥 호기 마련 기대

□ 도미니카공 입장에서 본 DR-CAFTA(대미 FTA)와 대EU EPA간 주요 차이점

- 시장개방 관련 미국으로부터는 고작 10년의 유예기간을 얻어낸 데 비해 EU로부터는 15-20-25년의 점진적 개방기간 장기 설정 및 일부 개방제외
- 미국으로부터 얻지 못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상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EU로부터 얻어냄.
- 카리브 지역 출신 의사, 간호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의 EU 시장자유 진출 허용
-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으로부터는 얻어내지 못한 많은 혜택을 EU로부터는 얻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대미 FTA보다도 더 큰 기대감 형성

□ EPA 협정 발효가 우리나라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카리브-EU 경제자유교역협정(EPA)을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 및 아이티가 대 EU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류 봉제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바 새로운 시각에서 이 지역 투자진출 검토 필요
 -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소싱이 자유로워진 점에 주목
- 2007년 3월 발효된 DR-CAFTA로 미국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진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EU 시장까지도 무관세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위상 재조명
 - 아이티의 경우에도 미국의 대 아이티 섬유류봉제분야 일방적 특혜무역제도(HOPE법) 시행(2007년 3월)과 맞물려 미국 및 EU라는 양대 시장 동시 진출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도미니카와 함께 관심지역으로 부상

5) 페트로카리베: 동 협정 회원국으로 Petrocaribe 정상회담 참가

- 도미니카공화국 등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인 카리브 16개국에 석유 물물교환시대 개막. 2007. 12. 21일 쿠바 시엥푸에고 시에서 열린 제4차

페트로카리베 정상회담에서 회의 주관자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카리브 역내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네수엘라가 제공하는 석유 대금의 40%를 화폐가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대체 지불할 수 있도록 제안해 이뤄졌다.

- 지금까지 쿠바에서만 석유 대금을 재화나 용역으로 지불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제4차 정상회담을 통해 페트로카리베 전 회원국으로 확대·적용한 것으로서 카리브 지역 내 차베스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쿠바는 현재 원유수입 대금으로 금전 대신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같은 용역을 베네수엘라에 제공함. 이 같은 교역 메커니즘이 카리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21세기 신물물교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Petrocaribe 협정 주요 내용

- 협의체 탄생
 - 2005년 6월 29일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린 베네수엘라 Puerto La Cruz에서 카리브 14개국 정상회담에서 구역 내 에너지 불균형 타파를 목표로 다자간 에너지정책 협의체인 페트로카리베 체제 탄생
- 협정 성격: 주요 활동
 - 역내 회원국 간 석유 및 파생품·가스·전력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조정
 -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기술협력·기술인력 연수
 - 풍력 및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원 이용 촉진
- 협정 주요 내용(베네수엘라가 회원국에 제공하는 혜택)
 - 석유 수입액의 40%까지 2년간의 거치기간 및 17~25년간의 장기 상환기간 부여
 - 나머지 60%는 30~90일간의 단기 금융 제공
 - 상환기간 중 연간 1%의 금리 적용(단, 국제 석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이상 유지 시)
 - 국제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대에 진입할 경우 장기상환 대상을 석유수입액의 50%로 확대
 - 정유소 확충 프로젝트 추진: 쿠바·자메이카·니카라과 등 3개 정유소
 - 2007년 12월 제4차 정상회담 시 쿠바 Camilo Cienfuego 정유소 개막식(1990년 소련 기술지원으로 가동 개시, 소련 붕괴로 1991년 가동 중단, 2005년 베네수엘라 PDVSA사와 쿠바 CUPET간 합작회사 설립 및 시설 현대화 추진)
- 주요 회원국:
 - 도미니카공화국·쿠바·바하마·자메이카·아이티·니카라과·도미니카·수리남·가이아나·벨리즈 등 16개국
 - 온두라스는 가입 신청 중, 과테말라는 옵서버로 참가

□ 페트로카리베 체제 가입이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체제 발족 이래 2년간 이 혜택 수혜에 따라 5억7500만 달러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 Rafael Ramirez 베네수엘라 에너지장관에 의하면 페트로카리베 협정을 통한 카리브 16국 전체 수혜액이 12억 달러로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최대 수혜규모

- 절감액으로 낙후된 전력분야 발전 보조금으로 교부
 - 전력 설치용량은 2500MW로서 수요량 2000MW를 충족할 수 있으나 발전에 필요한 연료비 과다로 발전이 자주 중단돼 만성적 전력 부족사태 발생
 - 발전소 가동을 위해 정부 전력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나 보조금 예산에 한계가 있음. 이 절감액을 보조금으로 활용
 - 향후 이 절감액으로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도 지원
- 석유 수입액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과다한 석유 수입액은 경상수지 최대 적자요인. 페트로카리베 협정이 이 적자로 인한 경제 충격완화에 기여
 - 2006년 석유 28억 달러 수입, 2007년 33억 달러 수입 추정, 2008년 40억 달러 수입 전망
- 이 페트로카리베 체제가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장에 주목해 향후 에너지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베네수엘라-도미니카공 양국 간 풍력발전 프로젝트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업계의 활발한 시장진출노력 필요.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 현황

1)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출 규모: 연간 72억 달러

- 연도별 수출 추이
 - 2003년 55억 달러, 2004년 59억 달러, 2005년 61억 달러, 2006년 64억 달러, 2007년 72억 달러, 2008년 (1~5월) 29억 달러

2) 도미니카 공화국 10대 수출품(2006년 관세청 통계, HS 8단위 기준)

- 페로니켈(44%)
- 원당(6%)
- 철근(5%)
- 바나나(3.5%)
- 럼주(2.7%)
- 코코아 원두(2.4%)
- 맥주(1.7%)
- 고철(1.3%)
- 궤련(1.2%)
- 시멘트(1.1%)

* () 안은 비중

* $100\% = 15.4 \text{ 억 달러}$ (일반수출액=전체 수출액-자유무역지대 수출액-항공기용 연료 및 기내식/ $15.4 = 64.4 - 45.1 - 3.8$)

3) 도미니카 공화국의 5대 수출대상국(수출투자진흥청 통계/ 일반 수출액 기준)

순위	2007			2008. 1~5월		
	국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비(%)	국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비(%)
1	미국	597	26.4	미국	154	23.2
2	네덜란드	355	15.7	아이티	71	10.8
3	중국	190	8.4	스페인	67	10.2
4	아이티	155	6.8	네덜란드	59	8.9
5	한국	135	5.9	벨기에	55	8.3

- 자유무역지대(ZF) 수출이 감소세 시현 속 전체 수출의 63% 비중 점유(2008. 1~5월 통계자료 의거)
 - 자유무역지대 주요 수출품목: 1)봉제의류 2)의료용품 3)전기제품 4)보석류 5)담배 6)신발
 - 봉제의류는 2000년 이래 매년 수출액이 -10% 미만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21%로 최대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최대 비중(2008년 1월~5월 중 총 17.8억 달러 기록. 이중 의류 4.6억 달러, 전기제품 3억 달러, 보석류 2.8억 달러, 담배류 1.7억 달러, 의료용품 1억 달러, 신발류 1억 달러)
- 전체 수출통계상 2007년 72억 달러 규모로 전년 64억 달러 대비 12.5% 증가
 - 국가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전년 19.3억 달러 대비 40% 증가. 이에 반해 자유 무역지대 (ZF) 수출액은 45.6억 달러로 전년 46.9억 달러 대비 -2.8% 감소
 - 수출 감소는 자유무역지대 섬유류(의류봉제) 진출업체 철수에 기인
 - 2008년 상반기 (1~5월) 경우 자유무역지대(ZF)수출은 17.8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없음
 - 의류 -22%, 의료용품 -23% 등 감소세
 - 반면 전기제품 14.8%, 보석류 16.7%, 신발류 9.1%, 담배류 13.3%로 증가 추세

나. 수입 현황

1)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입시장 규모: 연간 112억 달러

- 연도별 수입 추이
 - 2002년 62억 달러, 2003년 51억 달러, 2004년 54억 달러, 2005년 74억 달러, 2006년 96억 달러 2007년 112억 달러, 2008년 1~5월 59억 달러

2) 도미니카 공화국 10대 수입품(2006년 관세청 통계, HS 8단위 기준)

- 4륜 구동차(7.2%/1,500~3,000cc 6.7%, 3,000cc이상 0.5%)
- 철괴(잉곳/3.1%)
- 소매점용 의약품(3.1%)
- 옥수수(2.6%)
- 트럭(2.1%/ 3톤 이하 픽업 1.4%, 5~20톤 대형트럭 0.7%)
- 대두분, 종자(1.6%)
- 밀(1.3%)
- TV용 송수신기기(1.2%)

- 소매점용 무가당 팩 우유(1.1%)
- 제재목(1.1%/미송+적송)
- * () 안은 비중, 100% = 65억 달러(CIF 기준 일반수입액)
- 도미니카 공화국 5대 수입품(2006년 통계, 편의상 대분류, 중앙은행 자료)
 - 석유 및 파생품
 - 의약품 및 화학제품
 - 자동차
 - 가전제품
 - 대량소비식품
- * 석유 및 파생품 수입(32.7억 달러) 비중이 전체수입의 29%로 압도적(100%=112억 달러)
- * FOB 기준 전체수입액 중 점유 비중

3) 도미니카 공화국의 5대 수입대상국(2006년 관세청 통계, 일반 수입액 기준)

순위	원산국 기준 + CIF 기준			선적국 기준 + FOB 기준		
	국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비(%)	국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비(%)
1	미국	2,556	40.6	미국	2,508	35.3
2	브라질	315	4.8	베네수엘라	620	8.7
3	중국	306	4.68	멕시코	399	5.6
4	일본	305	4.66	콜롬비아	302	4.3
5	대만	280	4.3	일본	266	3.7
30	한국	35.6	0.54	한국	29.6	0.42

주1: 2008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주2: 원산국 FOB 기준 한국: 31.6백만 달러, 0.53%, 30위

주3: 선적국 FOB 기준: 브라질-248백만 달러, 3.5%, 6위 / 중국- 219백만 달러, 3.1%, 8위

- 2007년 1~9월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일본(6위)을 제치고 4.1% 비중으로 5위(선적국 기준). 여타국은 순위 달라변.
- 기타: 6위 스페인(3.9%), 7위 파나마(3.4%), 8위 콜롬비아(2.7%), 9위 멕시코(2.6%), 10위 독일(2.4%). 베네수엘라는 21위(1%). 원산국 + CIF 기준
- 관세청 공식 통계(2006년, 원산국, CIF 기준)상 한국은 3,559만 달러, 0.54% 비중으로 30 위, 북한은 3,640만 달러, 0.56% 비중으로 29위 점유
 - 남북한 혼동에 다른 통계 오류로 양 수치 합계치가 모두 우리나라 실적
 - 한국 순위: CIF 기준 1.10%, 18위 (FOB 기준 1.07%, 20위)
 - 전체 수입통계상 국가 수입액은 2007년 112억 달러 규모로 전년 96억 달러 대비 16.7% 증가
 - 자유무역지대(ZF) 수입액은 25.3억 달러로 전년 26.2억 달러 대비 -3.4% 감소
 - 자유무역지대 진출업체 철수 및 폐업 등으로 수출·수입 모두 감소

대외 교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역수지	-679	-677	-1,072	375	568	-1,221	-2,949	-4,052	-2,982
수 출	5,737	5,276	5,165	5,471	5,936	6,145	6,610	7,237	2,900
수 입	6,416	5,953	6,237	5,096	5,368	7,366	9,559	11,289	5,882

자료: 중앙은행, 2008년 자료는 5월까지의 수치

4) 석유 및 동 파생제품 수입 현황 (2007년 수입액 32.7억 달러, FOB 기준)

- 원유 수입 규모: 1,300만 배럴/9.2억 달러(28%/전체 석유제품 수입액 내 점유 비중)
 - 수입 대상국: 멕시코(15%), 베네수엘라(12%), 미국(4%), 콜롬비아(3%)
- 파생제품 수입 규모: 3,700만 배럴/ 23.5억 달러(72%)

종류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비(%)
디젤	647	18
LPG	479	14.7
가솔린	423	12.8
연료류	354	10.7
천연가스	163	4.9

자료: 중앙은행

- 도미니카(공) 전체 수출이 2003년에 55억 달러, 2004년에는 59억 달러, 2005년에는 61억 달러, 2006년에는 66억 달러, 2007년에는 72억 달러로 점증 및 수출품목 다양화 추세
 - 카카오 열매 40% 증가, 페로니켈 60.5% 증가
- 2008년 1~5월 기준 전체 수출의 63%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 수출은 2003년 2.1% 증가(4,407백만 달러) 및 2004년 6.3% 증가(4,685백만 달러), 2005년 1.4% 증가(4,750백만 달러), 반면 2006년 1.5% 감소(4,679백만 달러), 2007년 2.5% 감소(4,563백만 달러)
 - 2007년 기준 총 53개의 Zona Franca에 5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미국 업체가 240개로 전체의 45.6%를 차지하고 있고, 도미니카 업체가 169개사로 32.1%, 다음으로 한국 업체가 20개사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 반면, 수입은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2002년에 62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51억 달러로 급락했다가 2004년에는 54억 달러, 2005년도에는 경기회복으로 74억 달러, 2006년 96억 달러, 2007년 112억 달러, 2008년 1~5월 59억 달러를 기록했다.

5) 교역통계

대외 거래지표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역수지	-677	-1,072	375	568	-1,221	-2,949	-4,052	-2,982
수 출	5,276	5,165	5,471	5,936	6,145	6,610	7,237	2,900
수 입	5,953	6,237	5,096	5,368	7,366	9,559	11,289	5,882
외환보유고	940	960	95	630	1,000	1,790	2,940	-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Banco Central, 2008년 자료는 5월까지의 수치

6)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통계

수출 - 일반상품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국	3,854	3,654	3,356	2,985	3,945	467.4	597
푸에르토리코	763	765	115	78.4	90.1	108.5	112
하이티	72.1	88.1	112	64.7	96.9	136.1	155
캐나다	296	68.6	32.7	54.2	18.7	853.1	25
한국	29.8	102	32.7	54.2	62.0	163.8	135
일본	26.4	33.6	13.0	35.3	22.4	248.7	72
네덜란드	94.6	76.6	34.2	87.9	54.9	704.97	355

자료: 수출투자청 CEI-RD, 2008. 5월

7)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탕수수	64.6	73.9	97.0	93.5	73.1	104.9	98.0	34.1
커피	5.7	3.6	16.5	5.8	4.1	8.79	6.37	4.21
담배	22.6	18.3	19.9	43.1	36.7	6.2	4.07	1.78
카카오	38.0	54.9	77.0	59.4	26.8	57.9	81.0	37
페로니켈	145.2	156.9	238.7	390.0	289.1	709.9	1,139.4	319.9
자유무역지대	4,665	4,491	4,398	4,416	4,545	4,507	4,563	1,780
계	5,276	5,183	5,471	5,936	6,133	6,440	7,236	2,899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Banco Central, 2008년 수치는 1~5월 통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비재	2,875	3,084	2,009	2,750	3,086	4,437	5,915	3,055
원자재	1,792	1,863	1,072	1,350	1,560	2963	3,561	1,904
자본재	1,285	1,289	815	870	1,060	1,345	1,812	922.81
계	5,952	6,236	3,896	4,970	5,706	8,745	11,288	4,959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2008년 수치는 1~5월 통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1) 양국 간 교역현황

- 2002년까지는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 시현
 - 2002년 하반기 대중교통 근대화 계획(Plan Renove) 관련, 차량 2,714대(7,800만 달러) 수주가 대표적 성과

- 2003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로 인한 구매력 상실로 수출 급감
 - 2003년 한국의 대 도미니카 수출은 전년 대비 55.9% 감소세로 반전
 - 2003년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은 -25%, 수송기계(자동차) -79%, 가전제품 -79% 기록
- 2004년도 양국 교역사상 최초 무역역조 발생
 - 수출은 직물이 -15.4%, 자동차는 -28.4%, 가전제품은 -23.5% 등 뒷걸음질
 - 수입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원자재(페로니켈) 수입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메리트(달러강세, 폐소화 평가절하)로 248.5% 증가에 이어 2004년 73.2%가 증가한 1억 2,000만 달러 수입으로 최초로 무역역조 발생
- 2005년도에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수출 급증 및 수입 급감
 - 2005년 총 수출은 63% 급증한 1억 2,000만 달러, 반면 수입은 44% 감소한 6,800만 달러 기록
 - 3대 주종 수출품목 중 그간 억제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여 수송기계는 176.5% 증가, 가전제품은 85.9% 증가한 반면 직물은 -22.6% 기록
- 2006년에는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로 굴곡을 보이다가 2007년에는 수출입 모두 두 자릿수 회복세 시현. 특히 수입이 폭증, 사상 최고치 시현. 이에 따라 2004년에 이어 무역 역조로 재 반전
- 2007년에는 자동차가 크게 증가한 반면, 수년간 감소세를 지속해 온 직물이 06년 830만 달러에서 07년 382만 달러로 -54% 감소, 5대 주력 수출품목으로서의 지위 상실
- 2008년 8월까지 수입은 -37.9%로 감소하고 수출은 작년보다 적은 폭(5.3%)을 기록.
 - 최대 주력품목인 승용차의 수출 비율은 -38%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화물차, 아연 도강판, 도금강판 등은 50% 이상의 높은 신장세를 보임. 직물은 2008년 8월까지 약 400만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음.

대 도미니카(공)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8월)
수출	185,017	81,526	73,867	120,437	108,864	120,362	86,957
수입	21,808	71,844	121,849	68,544	87,216	126,158	75,625
무역수지	163,209	9,682	-47,982	51,893	21,648	-5,796	11,332

자료: KOTIS

2)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공) 10대 수출 품목(2007년 KOTIS통계 기준)

- ① 수송기계류 및 부품 6,159만 달러
 - 승용차 4,675만 달러(지프차, 세단, 왜건), 화물차 661만 달러, 엘리베이터 116만 달러
 - 자동차부품 431만 달러
- ② 철강제품 1,091만 달러
 - 아연도강판 483만 달러, 도금강판 327만 달러, 석도강판 209만 달러
- ③ 산업기계 840만 달러(건설중장비 770만 달러)
- ④ 정밀화학제품 436만 달러(의약품 211만 달러, 화장품 68만 달러, 염료 44만 달러)

- ⑤ 고무제품 393만 달러(타이어 358만 달러)
 -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263만 달러, 승용차용 타이어 90만 달러)
- ⑥ 직물 382만 달러(폴리에스터 128만 달러, 편직물 77만 달러)
- ⑦ 전자부품 335만 달러(연축전지 257만 달러)
- ⑧ 산업용 전자제품 310만 달러(무선전화기 237만 달러, 무선수신기 30만 달러)
- ⑨ 석유화학제품 291만 달러(합성수지 197만 달러)
플라스틱제품 247만 달러(기타플라스틱제품 204만 달러)
- ⑩ 기타
 - 충전기기 245만 달러(변압기 부품 132만 달러, 기타 변압기 34만 달러)
 - 가전제품 215만 달러(냉장고 84만 달러, 에어컨 69만 달러, 컬러 TV 52만 달러)

2007년도 주요 약진 품목

(MTI 4 단위 기준 100 만 달러 이상 품목 대상)

승용차(62.3%), 건설중장비(34.6%), 철강판(86.7%/아연도강판 140%, 도금강판 46.4%, 석도강판 신규 진출), 자동차부품(43.6%), 휴대폰(06년 5.6만 달러→07년 237만 달러), 변압기(58.5%), 선박용 엔진 및 부품(06년 7.5만 달러→149만 달러), 엘리베이터(49%) 등

- 승용차: 2,881만 달러(2006년)→4,675만 달러(2007년)
- 아연도강판: 201만 달러→483만 달러, 석도강판 0→209만 달러

2007년도 주요 부진 품목

(MTI 4 단위 기준 100 만 달러 이상 품목 대상)

화물차(-31%), 합성수지(-71%), 기타석유제품(-40%), 편직물(-76%), 기타 석유 화학 제품 (33%) 등

- 화물차: 953만 달러→661만 달러, 합성수지: 687만 달러→197만 달러
- 편직물: 320만 달러→77만 달러

2008년도 주요 약진 품목(1~8월)

(MTI 4 단위 기준 100 만 달러 이상 품목 대상)

아연도강판(54.5%), 선박용 엔진 및 부품(2007년 1,870→2008년 8월까지 12,355), 도금 강판(56.9%), 엘리베이터(70.8%) 등

2008년도 주요 부진 품목(1~8월)

(MTI 4 단위 기준 100 만 달러 이상 품목 대상)

승용차(-38.3%), 자동차부품(-15.1%), 무선전화기(-27.8%) 등

- 승용차: 4,675만 달러→2,106만 달러
- 무선전화기: 2,366만 달러→1,669만 달러

3)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공) 주요 수입 품목

- 도미니카 최대 수출품인 **합금철(페로니켈) 단일품목 수입에 집중**
 - 2006년 5,300만 달러(총 수입액의 61%) → 2007년 1억 1,465만 달러(115%)
 - 2008년 1~8월 수입액이 -61%로 크게 줄어 4,41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수입 1위 고수
- * 합금철 수입업체: (주)포스코 및 포스코 특수강(주) 2 개사
- 기타 동 스크랩(625만달러), 의료위생용품(318만달러), 철·알루미늄 웨이스트(고철) 등

나. 향후 수출 전망

- **위협 요인: DR-CAFTA 발효(2007.3.1부) 영향 점차 가시화, EU-카리브 EPA 발효**
 - 자동차(관세율 20%) 시장점유율(6%), 점차 축소 우려
 -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 인하 개시, 2010년 완전 면세
 - 가전제품(보통20%) 중 냉장고, 세탁기, 가스오븐 등은 미국 내 생산 관계로 일부 한국산 시장점유율 감소 달리기
 - 자동차부품(관세 8%) 및 배터리(관세 14%)는 5년 무세화 품목으로 영향이 큰 반면 타이어(관세 14%)는 10년 무세화 품목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 섬유직물(관세 8%)은 즉각 무세화 품목인데다 한국 투자 진출 기업 축소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EU-카리브 EPA(경제자유교역협정) 2008년1월 발효에 따라 EU산 제품의 도미니카 공 시장 무관세 진출로 가격경쟁력 강화, 한국산 위협요인 작용
- **기회 요인: 높은 경제회복세 지속, 한국산 성가도 제고, 고유로화**
 - 금년도1~9월 경제성장률 8.2%, 내년도 전망치 7%대→가치분소득 증가
 - 미화의 세계적 약세화에 따른 페소화 환율 안정으로 수입수요 증대
 -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한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개선에 따른 바이어 주문 물량 증가. 반면 미국산의 경쟁력 회복 미약 수준
 - 자동차부품 공급회사 현지 진출에 따른 부품 공급 원활화
 - 미달러화 약세 및 유로화 초강세 지속으로 EU산 제품 수입 감소
 - EU산 제품의 전반적 가격경쟁력 약화로 벌어진 틈새 공략 가능
 - 냉장고, 세탁기 등 미국과 경합 가전제품도 LG 등 한국산 품질 인지도 향상으로 여전히 경쟁력 유지
 - 에어컨, TV 등은 미국 내 비생산, 큰 영향 무
 -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활성화
 - 관세 행정정보화시스템 S/W 및 H/W 장비 도입 가시화
 - 한국의 주재국 전자정부 M/P수립지원 본격화 중장기적 시너지
 - 전력난 타개 비상프로젝트 진수 시 전력에너지시장 진출기회 확대
 - 절전형 전구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 수요 증대
 -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가솔린 차량 수요 감소, 디젤 차량 및 LPG, LNG 차량 수요 증가. 연비가 높은 소형차 수요 증대 전망

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통계

5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7		2008(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0,362	10.6	86,957	5.3
1	741160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15,885	-	9,504	-12.2
2	741200	화물자동차	6,612	-30.6	7,289	92.8
3	741170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16,683	-	5,475	-56.0
4	725190	기타 건설중장비	7,367	40.3	5,434	0.7
5	613430	착색아연도강판	4,255	125.9	4,957	72.9
6	746340	선박용 압축 점화식 엔진	1,486	1,870.4	4,395	12,355.8
7	741180	압축점화식 2,500cc 초과	9,405	-	4,387	-41.1
8	613700	도금강판	3,266	46.4	3,511	56.9
9	611110	철 및 비합금강H형강	0	-	2,969	-
10	436000	편직물	767	-76.0	2,810	454.9
11	742000	자동차 부품	4,306	43.6	2,474	-15.1
12	613600	석도강판	2,091	-	2,300	-
13	835210	연축전지	2,573	30.6	1,963	23.7
14	320320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2,633	-4.9	1,864	-9.6
15	741150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4,777	-	1,700	-50.4
16	812190	기타 무선전화기	2,360	-	1,669	-27.7
17	310900	기타 플라스틱제품	2,035	17.8	1,627	22.6
18	613310	철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64	-94.8	1,537	-
19	721100	섬유기계	312	128.8	1,103	547.7
20	226200	의약품	2,106	133.3	1,055	-35.8
21	745100	엘리베이터	1,156	49.1	1,023	70.8
22	320310	승용차용타이어	898	-3.8	902	81.5
23	842120	변압기부품	1,315	53.8	763	-9.5
24	590000	기타 생활용품	1,186	-1.4	681	-23.2
25	850090	기타 전선	808	-	641	24.9
26	642000	뭇	370	-61.7	612	229.2
27	227590	기타 화장품	681	-7.2	610	21.8
28	434200	폴리에스터직물	1,276	3.2	596	-10.1
29	812510	위성방송수신기	301	-	512	-
30	224090	기타 표면활성제	570	61.2	480	27.5
31	221100	염료	438	43.5	473	15.5
32	690000	기타 철강금속제품	577	-11.4	469	35.1
33	823030	냉장고(400리터이상)	610	36.3	467	13.6
34	529000	기타 가구	1,008	2.9	461	-39.0
35	290000	기타 화학공업제품	419	-40.8	424	33.5
36	449090	기타 섬유제품	1,153	-41.0	392	-52.6
37	790100	기타기계류	10	-58.4	375	
38	725130	건설중장비부품	255	33.5	367	207.4
39	219000	기타 석유화학제품	934	-32.8	367	-28.4
40	439900	기타 직물	562	-57.8	345	-14.7
41	741900	기타 자동차	1,284	59.0	321	-67.3
42	834300	인쇄회로	533	-52.2	311	-4.5

43	214008	폴리메탄아크릴산에틸	0	-	303	-
44	016400	면류	321	18.9	272	23.4
45	229000	기타 정밀화학제품	230	109.0	257	162.9
46	431190	기타 순견직물	55	-	249	759.0
47	831390	기타 개별소자반도체	38	-	238	-
48	421310	순면사	265	-81.9	237	56.6
49	411100	폴리에스테일성유	378	141.5	230	-1.5
50	214005	폴리스티렌	422	722.6	195	-6.0

자료: KOTIS (2008. 9)

20대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7		2008(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6,158	44.7	75,625	-37.9
1	618190	기타 합금철	114,645	115.3	44,178	-61.5
2	618400	고철	624	-	13,404	4,067.2
3	835300	폐건전지	188	-	6,257	-
4	622130	동스크랩	2,180	153.2	4,350	156.9
5	950900	기타 의료위생용품	3,525	179.2	3,189	51.6
6	621120	알루미늄 스크랩	35	-25.1	991	2,743.9
7	733100	의료용 기기	870	-2.1	907	64.3
8	814790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1,150	-64.2	537	-6.2
9	814750	혈압측정기	105	-	237	288.9
10	836200	센서	49	451.8	182	-
11	441208	여성 바지 스커트	204	-48.8	181	20.1
12	834110	스위치	77	-	164	1,842.6
13	441207	남성바지	154	-40.6	110	2.1
14	015420	제조담배	140	12.5	97	4.5
15	310900	기타 플라스틱제품	1	-33.1	76	7,607.7
16	441213	남성셔츠	17	94,111.1	70	394.4
17	842210	차단기	43	116.5	57	32.2
18	441108	스웨터	5	437.7	52	1,036.3
19	016900	기타 농산가공품	249	19.6	52	-73.5
20	814240	경보신호기부품	93	1.1	50	-29.6

자료: KOTIS (2008. 9)

3. 수입규제제도**가. 수입 관련 주요 법규****1) 개요**

도미니카(공)은 1995년 WTO 에 가입한 이후, 다양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통상 관련 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CARICOM 및 중미 자유 무역 지대 (CACM)와의 자유무역협정 및 EU 와의 특혜무역협정인 Cotonou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시장 개방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도미니카(공)은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GSP, CBI 등 다양한 일방적 지원제도로 인한 특혜 혜택을 받고 있으며, WTO 상 최혜국 대우(MFN)를 교역 대상국에 부여하고 있음. 아울러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CARICOM, 중미자유무역지대, 미국 및 중미 CAFTA 5개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체결(DR-CAFTA)을 통한 특혜관세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2005년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DR-CAFTA)은 당해 연도 9월 국회 인준을 거쳐 2006.1월 발효 예정이었으나 미국-도미니카(공) 양국간 새로이 제기된 쟁점사항 타결이 늦어져 해를 넘겨 2007.3.1일부로 발효되었다.

2) 수입관련 정책

도미니카(공)은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WTO 상 최혜국 지위를 교역대상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200. 7. 1일부 WTO 관세협정에 일치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 자동차 등 24개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WTO 의 허가 하에 세관의 최저 가격 인정 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0. 12. 27일 법률 제146-00호로 실시된 관세 인하에 따른 평균 MFN(최혜국) 관세는 8.6%로 도미니카(공)의 주요 수입규제 방안이다.

수입상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ITBIS(부가가치세 16%)가 부여되며, 알코올 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는 15~8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 관세쿼터 등 다양한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7. 9.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 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화 34달러,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8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온 영사송장 제도는 2006. 7. 1일부로 폐지되었다.

3)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 상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CARICOM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5년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도 FTA (DR-CAFTA)를 체결하고 9.6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2006.1.1일부로 동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쟁점 부각으로 발효가 늦춰져 2007.3.1부로 발효되었다. 한편 EU 및 대만과도 FTA 를 추진하는 등 시장 개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00.12.27 법률 제 146-00호로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른 평균 MFN 관세는 8.6%로 주요 수입규제 조치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 Fernandez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04. 12월 말 이를 폐지하였으나 2006. 7월부터 미국과의 FTA 미발효에 따른 재정 적자분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는 0.4%의 수입관세를 임시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장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개선될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 관세 장벽

1995.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7.1일부로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제(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0~20%의 관세, 알코올 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 15~80% 특별소비세, 16% 부가가치세(ITBIS), 0.4%의 임시 수입세 등 4개 종류가 있다. 참고로 최근까지 폐지 논란 속에 지속되어 오던 13% 수입 환전세는 2006. 7월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임시 수입, 수출자유공단지대 투자기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 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 관리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인정가격 기준은 세관당국의 자료미비와 절차 비투명성으로 인해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관련 품목의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개정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법(Reforma Fiscal)을 시행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 소득세율 인상, 유류소비세 인상, 차량등록세 부과, 금융거래세 징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통관 절차 상의 장벽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 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신고서는 수출입 통관 기존 양식(수입 Form 3480, 수출 Form 3256)을 하나로 통합 개선한 “단일통관신고”(DUA/ Declaracion Unica Aduanera)라는 신 양식(Form No. 003-2007)으로 2007. 6월부터 변경되었는데, 인터넷(www.dga.gov.do)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통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다. 상기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 신고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1987.9.29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1,000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34달러,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8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이 영사송장제도가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2006. 7월부터 완전 폐지되어 외국 수출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외 검역·검사, 통관절차 규정에 따른 장벽은 없으나, 현지 통관업체 및 세관의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과 속도감 없는 업무 관행으로 인해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선택적 통관 시스템 운영

도미니카 공화국 통관시스템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2008.3.27일부터 선택적 통관제도 (Sistema de Riesgo y Despacho Selectivo/ Sistema Selectivo de Despacho de Mercancia)를 시범 도입했는데, 시범 대상이 도미니카 수출입 통관 물동량의 75%를 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상품이 주로 들어오는 항구인 Caucedo 항과 동 Haina 항 중 하나인 Caucedo 항구로 우선 지정되어 실시케 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어 무역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 선택적 통관 제도 도입 배경

DR-CAFTA(미국-중미-도미니카 간 자유무역협정)와 EU-카리브 EPA(EU 와 카리브국 간 경제파트너십 협정)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미국이나 EU 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국내 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06.6.19일 “법률 226-06”이 공포되었는데, 동 법률 제14조 3항에 수입물품 도착 시 “24시간 내 물품통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 충족을 위해 선택적 통관제도가 개발되어 그간 물동량이 매우 적은 보카치카 항에서 테스트를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항구인 까우세도 항을 통해 시범 실시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 선택적 통관 제도 개요

- 3색 통관 채널(서킷) 시스템 도입
 - 녹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Verde): 고속통관(Despacho Expreso)
 - 서류심사(Aforo Documental)없이 바로 제세(관세 및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및 통관료 납부 후 신속 통관
 - 오렌지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Naranja): 서류심사(Despacho Documental)
 -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제세 및 통관료 납부
 - 적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Rojo): 실물검사(Reconocimiento/Verificacion Fisica)
 - 실물검사까지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가장 까다로운 채널
- 채널 배정 및 서류 제출
 - 수입 신고 시 관세청 웹사이트(www.dga.gov.do)를 접속하여 소정의 수입신고서(보통 “DUA”-Declaracion Unica Aduanera 로 명명)를 온라인상 작성(상품 금액, 수량, 원산지, 물품구성 원자재, 관세분류 세번 등) 제출해서 접수가 되면(접수 메시지가 뜬) 신고번호 및 일자와 함께 채널(서킷)이 배정된다.
 - 수입신고서상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데(반려사유를 적시한 에러 메시지가 씌), 이 경우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 작성, 제출하면 된다.
 - 웹사이트 접속을 통한 수입신고는 요일이나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다.
 - 채널이 일단 배정되면 온라인상 서류 접수시점으로부터 선적서류를 48시간(근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세관 서류심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녹색채널은 동 절차가 생략되나 통관을 위한 여타 절차(선사 및 항만당국 등) 완료 후 선적서류 원본을 화주 자격 증빙으로 제출해야 물품을 인도해 갈 수 있다.

□ 전자통관 시스템 도입 추진, 관세행정 투명화 플랜 및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운영

도미니카 관세청의 변모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두드러진 것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도미니카 버전화(MS 닷넷 기반) 도입 추진으로서 2,000만 달러(1,998만 달러) 규모의 EDCF 사업으로 향후 1년 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로 오토에버시스템즈-인터데브 선정, 계약체결/’08.4.8)

도미니카 관세청의 부패 척결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미국국제개발원(USAID)과 추진 중인 관세행정 투명화 플랜(Plan de Transparencia)으로서 절차상 부패위험지도(Mapa de Riesgo de Corrupcion)를 만들어 부패 유발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Caucedo 항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한편 2006년 말 관세청 전자포탈사이트(www.dga.gov.do) 개통 이래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이 가동되어 현재 총 관세청 수입의 8%가 전자납부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하루 납부액 2~4억 페소 중 2,500만 페소 수준). e-뱅킹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은행은 Banco Popular이며, Banco de Reserva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절차가 1주일 이상 걸리던 것이 전자결제 덕분에 불과 2~3시간으로 단축되었다는 자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CARICOM 과 중미공동시장(CACM)과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DR-CAFTA)가 2007년 3월 발효되어 미국에 대해서도 특혜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2008. 1월부터는 EU 와의 경제자유교역협정(EPA)도 발효되어 EU 산 제품도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 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 (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 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 entroamerica (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 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참고: 수출 관련 정책

□ 수출 촉진 정책

도미니카(공)은 수출촉진을 위해 현재 57개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2007년 기준 530여 개사)에 세금 및 관세혜택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 전체수출의 52%에서 2006년에는 75% 이상으로 확대 되어 도미니카공의 수출 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점차 이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대 이 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음.

□ 정부 보조

2001년 도미니카(공)은 WTO 에 자유무역지대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관련 내역을 보고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동 지원제도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DR-CAFTA 에서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기로 체약국간 합의했으나 제3국이 보조금을 교부한 농산품이 역내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국은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자 통상관계에서 보조금 철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도미니카공의 경우 비상 시 WTO 규정과 본 FTA 협정에서 용인된 비상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기타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형식의 지원은 없으며 입지(Zonas Francas) 관련 조세 면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 수출 금지

환경과 공중보건을 위해, 호박(amber), 혈액 및 추출물, 모래, 자갈, 토양 등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2년에 수출허가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코코아, 커피,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 수출승인이 필요함.

□ 기타

기타 제3국과 자발적 수출규제에 관한 협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음.

4) 여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 금융 제도: 서비스 장벽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의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한동안 20~30%에 이르는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2006. 12월에는 여신금리가 10%대(16.4%)로 떨어지고, 수신금리는 한 자릿수(7.7%)로 떨어지는 등 금리가 낮아지고 있음.

대외교역과 관련해서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2006. 7. 1일부로 미국과 FTA(DR-CAFTA) 발효를 전제로 폐지된 상태임. (실제 DR-CAFTA는 2007.3.1일자 발효)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005년까지 21~30%에 이르는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12~20%로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2007년에는 한 자릿수인 7%대로 진입해 있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 6월까지 13%나 되는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 2006. 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 지적재산권

도미니카공은 2000. 6월 WIPO 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일 법률 제20-0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법을 제정, 관련사항을 보호하고 있다.

DR-CAFTA 협정에서는 발명특허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20년으로 유지키로 했으나, 저작권은 50년에서 70년으로 보호 기간이 늘어났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1.11.14 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8.28 일의 도하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지적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측은 주재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주재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 가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현행 20 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 년에서 70 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일층 강화를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 분쟁 해결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아직 법적인 제도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보고한 적이 없음.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해서는 2001년 12월 11일 관련 협정을 비준하였으나 국내 법규는 완비하지 못 하였음.

□ 정부 조달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다자간 협상 참가국이 아니며 전체 정부조달 규모는 '95년 55억 페소에서 '99년 100억 페소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관련 국내법규는 1966년 6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 295호와 정부조달 및 계약관련 대통령령 제 262-98, 2001년 2월 제정된 법률 제 27-01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달과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며, 특별히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고 모든 중앙부처가 자체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조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달 관련 법규는 1966.6.30 제정된 법률 제 295 호와 정부 조달 및 계약관련 대통령령 제 262-98, 2001.2 월 제정된 법률 제 27-01 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제 295 호는 3 백만 페소 이상 구매 시 공개입찰, 10 만 페소 이상 구매 시는 10 개 기업 이상의 초청 입찰, 10 만 페소 미만에는 5 개 기업 이상의 제한 입찰, 그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측은 정부조달 관련 정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고,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 결과 재화 및 서비스의 조달부문은 U\$ 58,550 달러를 상한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외국기업 참여가 가능한 국제공개입찰을 시행토록 했고, 건설 공사 분야 조달은 미화 U\$ 6,725,000 달러 이상이면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동 상한액(Umbrales)은 인플레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가 아닌 중앙은행이나 은행 감독원, 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상한액을 높여 미화 25 만 달러 이상이어야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한편 한시적 경과조치로 정부조달 변경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DR-CAFTA 발효 초기 3 년간은 물품 서비스 정부조달 국제입찰 임계치를 117,000 달러로, 건설공사 임계치는 800 만 달러로 정했다.

□ Leonel Fernandez 대통령의 정책 기조

2008년 5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한 Leonel Frenandez 대통령은 “경제안정과 성장의 회복”이라는 경제정책 기조 위에 물가 안정, 환율안정, 전력안정, 고용안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 특히 중남미의 IT 메카가 되겠다는 국가 비전을 확고히 하여 정보통신산업이 매년 20%대의 비약적 발전을 구가하고 있음.

나. 수입규제제도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12.11 법규를 제정한 상황이나 아직 시행령이 미비하여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조치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다. 즉 현재까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사례가 없으며, 불공정 제한 사례나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1998.5.16 대통령령 제 114-98 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였다.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7 제정된 보건법 제 112 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료용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있다.

3)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22 법률 제 218 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8.8.27 법률 제 4990 호로 침엽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5.30 법률 제 50-88 호는 항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 6775 호로 구제역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1.3 법률 제 458 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4)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8.18 제정된 법률 제 64-00 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5 년 이상 된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및 중고의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 제품도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 년 이상 된 노후 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동 제한규정이 완화된다면 한국산 중고차 및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이 매우 유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 년 WTO 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무역지대(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2006 년부터 시행된 재정개혁법(Reforma Fiscal) 초안에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이고 세금징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확보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지속 강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자유무역지대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2007. 3 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폐지를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 3 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하기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2000.12.27 일 법률 제 146-00 호에 따라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른 평균 MFN 관세는 8.6%이며 관세는 도미니카(공)의 주요 수입규제 방안이다.

2003.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시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 Fernandez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04. 12월 말 이를 폐지하였으나 2006. 7월부터 미국과의 FTA 미발효에 따른 재정 적자분 보충을 위해 0.4%의 임시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전제품 중 대형 치수제품, 자동차, 담배, 주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입상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ITBIS(부가가치세 16%)가 부여되며 알코올 제품, 가전 제품, 승용차 등에는 15~8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환전제도 2004.12.28 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 10%에서 13%로 인상을 승인했으나, 2006.7.1 일부로 미국과의 FTA 인 DR-CAFTA 발효를 전제로 환전세를 폐지했다. DR-CAFTA는 이듬해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관세쿼터 등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7.9.29 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 512-87 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2006.7.1 일부로 폐지한 상태이다.

다. 수입쿼터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쿼터제도는 없다.

4.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요

수입관련 제세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세 등 4개 종목이며 3~35%의 관세와 8~60%의 특별소비세, 0.4%의 임시수입세 등은 각각 CIF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16%의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관세법(법률 14-93, '93.8.4, Arancel de Aduana de la Republica Dominicana)상 세번 분류는 Harmonized System 8단위를 사용하며, 첫 4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4단위는 자국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Undervalue를 통한 관세 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 수입업자 협회에서 사전 제출한 모델별 연식별 기준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일반상품은 주요국의 물가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되, 리스트 외 상품에 첫 수입신고 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수입관세율은 3/5/10/15/20/25/30/35% 등 가공 단계별 8가지로 차등 적용해 오다 3/8/14/20% 등 4단계로 변경 적용하고 있으며 육류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40% 관세도 적용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정책적 진흥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14% 저율의 증가세를 적용한다. (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빈민층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2003.11.14일자로 철폐시킴)

- 3%: 농업용 필수원자재 및 기계류, 공공통신, 출판산업용 필수원자재 및 장비, 기계류, 비디오 생산용 장비 및 기계
- 8%: 의약품 생산용 장비 및 기계 등
- 14%: 알루미늄, 철, 강철 재질의 우유 수송용 용기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관세는 영세화(관세율 0%)

-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자재, 장비, 기계류 등 HS CODE 4단위 기준 8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 '0'세 화(Decree366-97, '97.8.29)하였다.
 - 50류: 5001-5007(7개 품목)
 - 51류: 5101-5113(13개 품목)
 - 52류: 5201-5212(12개 품목)
 - 53류: 5301-5311(11개 품목)
 - 54류: 5401-5408(7개 품목, 5405 제외)
 - 55류: 5501-5516(16개 품목)
 - 56류: 5601-5607(6개 품목, 5603 제외)
 - 58류: 5806-5808(3개 품목)
 - 60류: 6001-6002(2개 품목)
 - 73류: 7319(1개 품목)
 - 84류: 8444-8452(7개 품목, 8448, 8449 제외)
 - 96류: 9606-9607(2개 품목)

농축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산 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생산품과 조제식료품, 화학공업 및 연관생산품, 포장용 플라스틱 및 종이와 판지류, 비금속제 농기구와 기계류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0'세화 하였다. (법률 150-97, '95.21)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보는 법

도미니카 관세율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체계를 사용하나 10단위가 아닌 8단위에 그치고 있어 품목별 세분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적용되는 관세율 종류는 두 가지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관세율과 DR-CAFTA (미국 및 중미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유통세 (ITBIS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인지 여부도 관세율표상 구분이 되고 있어 외형상 관세율 종류는 3개인 셈이다. 즉, 일반관세(Grav.), FTA 관세(DR-CAFTA), 유통 세면제 (EX.ITBIS)로 분류된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나있는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 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 (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 (CBI) 등 7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관세율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관세율표(Arancel de Aduana)를 봐야 한다. 그러나 관세율표가 해마다 발간되고는 있으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관세율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해보거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관세청(DGA)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관세율 3%가 적용되는 휴대폰이 20%로 나타나는 등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확인하는 작업은 즉각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통관 제도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 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신고서는 수출입 통관 기존 양식(수입 Form 3480, 수출 Form 3256)을 하나로 통합 개선한 “단일통관신고”(DUA/ Declaracion Unica Aduanera)라는 신 양식(Form No. 003-2007)으로 2007. 6월부터 변경되었는데, 인터넷(www.dga.gov.do)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통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상기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 통관 신고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3) 특혜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CACM)과는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DR-CAFTA)가 2007. 3월 발효되어 미국에 대해서도 특혜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 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 (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 entroamerica (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12.11 법규를 제정한 상황이나 아직 시행령이 미비하여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조치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다. 즉 현재까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사례가 없으며, 불공정 제한 사례나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관세평가 예외품목

1) 수입품 관세평가 시 최저가격제 적용대상 품목 운영

도미니카(공)세관은 2001.7.1일부터 WTO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관세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제도에 맞추어 그간 세관에서 운영하던 인정과세제도를 폐지하고 통관서류상의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상의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해 영사송장제도를 강화한 바 있으나, 2006.7.1일부로 영사송장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도미니카(공)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WTO에 일부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제 운영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다.

세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 유관 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HS 코드	품명
0402 21 10	쌀
1006 30 00	우유, 크림제품
2523 10 00	시멘트 클링크
2523 29 00	포클랜드 시멘트 기타
2710 00 79	윤활유
3923 90 00	플라스틱 용기 기타
3926 90 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012 20 00	중고 타이어
4818 40 90	화장지, 기저귀, 기타 위생용품
6908 10 00	타일, 큐브 7센티 미만
8415 81 00	에어컨
8450 11 00	완전자동 세탁기
8517 11 00	유선 전화기
8528 12 00	컬러 텔레비전
8703 22 99	중고자동차 1,000~1,500cc
8703 23 19	중고자동차 1,500~1,800cc
8703 23 98	중고자동차 1,800~3,000cc
8703 24 99	중고자동차 3,000cc 이상
8703 31 99	중고 디젤 자동차 1,500cc 이하
8704 21 10	5톤 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4 22 90	5톤 이상 20톤 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3 31 10	5톤 이하 중고 일반화물차
8704 32 20	5톤 이상 중고 화물차
8711 20 19	50~150cc 중고 오토바이

5. 주요인증제도

가. 기술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

도미니카(공)은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로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 바 있어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은 없다.

주재국은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2001.2.7일 제정된 건강법 제112조에 의거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료용품, 의료기기, 담배 등 인체 보건과 관련되는 제품과 기기는 스페인어 라벨로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명기해야 한다.

도미니카(공)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긴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공인 ISO, CE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22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8.8.27 법률 제4990호로 침엽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5.30 법률 제50-88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1.3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인증 관련 정부 담당기관

도미니카(공)의 품질인증 관련 총괄부서는 상공부(SEIC) 내에 품질인증국(DIGENOR/ Direccion General de Normas y Sistemas de Calidad)이며, 기타 농림부 및 보건부에도 농산물 및 식품의약품에 대한 자체 품질인증부서를 갖고 있다.

DIGENOR(품질인증국)는 도미니카 품질인증위원회 지침에 따라 규격인증행정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ISO 9001, 14001 및 HACCP 등의 인증 촉진활동을 하고 있다.

DIGENOR (품질인증국)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소: Edificio de Oficinas Gubernamentales "Juan Pablo Duarte",
11^{mo}. piso, Av. México esq. Leopoldo Navarro.
Sto. Domingo, Rep. Dominicana.
- Tel: 1-809-686-2205
- Fax: 1-809-688-3843
- 이메일: digenor@codetel.net.do
- 홈페이지: www.digenor.gov.do

6. 지적재산권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the 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Geneva 1952),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Madrid, 1891) 등 주요 국제 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1450), 발명특허법(법률 4994), 외국인 투자법(법률 16-95) 등이 적용되며, 상공부에서는 UN의 지적소유권 전문 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 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정 기간(5,10,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순수하게 새로지 않는 경우와 새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의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는 상표는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에 대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이를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첫 1년 동안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첫 1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 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통신부 산하의 통신국(General Telecommunication Office)은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수준이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 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 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 법률 제20-0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1.11.14 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8.28 일의 도하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적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측은 주재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주재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 가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현행 20 년을 그대로 유지기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 년에서 70 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일층 강화를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기로 했다.

가. 참고1: 소비자보호제도

도미니카공화국은 상공부(SEIC) 산하 품질표준관리청의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DIGENOR) 외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에 와서 의회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서 법제화(Ley 358-05)가 추진되었으며, Proconsumidor(소비자보호원)가 탄생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동 집행기관인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은 2008 년에 들어서야 기존의 가격통제국을 재편하여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활동을 개시하였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소: Av. 27 de febrero N.º 209, Ens. Naco.
Distrito Nacional, Rep. Dominicana
- Tel.: 1-809-567-7192, ext. 1003
- Fax: 1-809-381-8079
- 이메일: mailto:proconsumidor@codetel.net.do

나. 참고2: 교역관련 국가기관

- 상공부(SEIC: 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전화: (1-809)685-5171
 - 팩스: (1-809)686-1973
 - 홈페이지: www.seic.gov.do
 - 대표: Mr. Francisco Javier Garcia 장관
- 수출투자 진흥청(CEI-RD: Centro de Exportacion e Inversion)
 - 전화: (1-809)530-5505
 - 팩스: (1-809)530-8208
 - 홈페이지: www.cei-rd.gov.do
 - 대표: Mr. Eddy Martinez Manzueta 청장(장관급)
- 관세청(DGA: Direccion General de Aduana)
 - 전화: (1-809)688-7070
 - 팩스: (1-809)689-0385
 - 홈페이지: www.dga-rd.gov.do
 - 대표: Mr. Miguel Coco 청장
- 수출자유공단 관리청(CNZFE: Consejo Nacional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 전화: (1-809)686-8077
 - 팩스: (1-809)686-8079
 - 홈페이지: www.cnzfe.gov.do
 - 대표: Ms. Luisa Fernandez Duran 청장
- 산업진흥청(Corporacion de Fomento Industrial)
 - 전화: (1-809)530-0010
 - 팩스: (1-809)530-1303
 - 홈페이지: www.dominican-investment.com
 - 대표: Mr. Ruben Jimenez Bichara 청장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1) 제출서류

수입 신고 시 제출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다.

- 상업송장(Factura Comercial) 사본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선적확인서(Conocimiento de Embarque) 원본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본
- 보험료 납입 증명서(Copia del Recibo de Pago del Seguro) 사본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do de Origen) (품목에 따라 적용)

2) 통관요령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을 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 소정 세관신고서 (Formulario 1131)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신고서는 수출입 통관 기존 양식(수입 Form 3480, 수출 Form 3256)을 하나로 통합 개선한 “단일통관신고”(DUA/ Declaracion Unica Aduanera)라는 신 양식(Form No. 003-2007)으로 2007. 6 월부터 변경되었는데, 인터넷(www.dga.gov.do)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 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통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상기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 통관 신고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통관은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표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2008 년 선택적 통관 시스템 시범 도입

도미니카 공화국 통관시스템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2008.3.27일부터 선택적 통관 제도 (Sistema de Riesgo y Despacho Selectivo/ Sistema Selectivo de Despacho de Mercancia)를 시범 도입했는데, 시범 대상이 도미니카 수출입 통관 물동량의 75%를 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상품이 주로 들어오는 항구인 Caucedo 항과 동 Haina 항 중 하나인 Caucedo 항구로 우선 지정되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 선택적 통관제도 도입배경

DR-CAFTA(미국-중미-도미니카간 자유무역협정)와 EU-카리브 EPA(EU와 카리브국 간 경제파트너십 협정)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미국이나 EU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국내 법적 체계 정비에 필요함에 따라 2006.6.19일 “법률 226-06”이 공포되었는데, 동 법률 제14조 3항에 수입물품 도착 시 “24시간 내 물품통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 충족을

위해 선택적 통관제도가 개발되어 그간 물동량이 매우 적은 보카치카 항에서 테스트를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항구인 까우세도 항을 통해 시범 실시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 선택적 통관제도 개요

- 3색 통관 채널(서킷) 시스템 도입
 - 녹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Verde): 고속통관(Despacho Expreso)
 - 서류심사(Aforo Documental)없이 바로 제세(관세 및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및 통관료 납부 후 신속 통관
 - 오렌지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Naranja): 서류심사(Despacho Documental)
 -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제세 및 통관료 납부
 - 적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Rojo): 실물검사(Reconocimiento/Verificacion Fisica)
 - 실물검사까지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가장 까다로운 채널
- 채널 배정 및 서류 제출
 - 수입 신고 시 관세청 웹사이트(www.dga.gov.do)를 접속하여 소정의 수입신고서(보통 “DUA”-Declaracion Unica Aduanera 로 명명)를 온라인상 작성(상품 금액, 수량, 원산지, 물품구성 원자재, 관세분류 세 번 등)제출해서 접수가 되면(접수메시지가 뜬) 신고번호 및 일자와 함께 채널(서킷)이 배정된다.
 - 수입신고서상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데(반려사유를 적시한 에러 메시지가 뜬), 이 경우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 작성 제출하면 된다.
 - 웹사이트 접속을 통한 수입신고는 요일이나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다.
 - 채널이 일단 배정되면 온라인상 서류 접수시점으로부터 선적서류를 48시간(근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세관 서류심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녹색채널은 동 절차가 생략되나 통관을 위한 여타 절차(선사 및 항만당국 등) 완료 후 선적서류 원본을 화주 자격 증빙으로 제출해야 물품을 인도해갈 수 있다.

□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추진, 관세행정 투명화 플랜 및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운영

도미니카 관세청의 변모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두드러진 것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도미니카 버전화(MS 닷넷 기반) 도입 추진으로서 2,000만 달러(1,998만 달러) 규모의 EDCF 사업으로 향후 1년 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로 오토에버시스템즈-인터데브 선정, 계약체결/’08.4.8)

도미니카 관세청의 부패 척결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미국국제개발원(USAID)과 추진 중인 관세행정 투명화 플랜(Plan de Transparencia)으로서 절차상 부패위험지도 (Mapa de Riesgo de Corrupcion)를 만들어 부패유발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Caucedo 항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한편 2006년 말 관세청 전자포탈사이트(www.dga.gov.do) 개통 이래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이 가동되어 현재 총 관세청 수입의 8%가 전자납부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 납부액 2~4억 페소 중 2,500만 페소 수준). e-뱅킹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은행은 Banco Popular이며, Banco de Reserva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자결제 덕에 납부절차가 1주일 이상 걸리던 것이 불과 2~3시간으로 단축되었다는 자체분석결과가 나왔다.

3) 형식 및 규격검사

NORDAM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산 및 수입공산품에 대한 표준규격으로, DIGENOR (Dirección General de Normas y Sistemas de Calidad: 상공부 산하)에서 관리 하고 있으나, 검사 시설의 미비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ISO나 원산지(또는 경유국) 자체의 품질규격 및 인증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검사를 생략한다.

나. 운송

1) 주요 무역항 및 공항

- Haina Oriental: 도미니카공화국 제1의 무역항
- Caucedo: 도미니카공화국과 Maersk Sealand가 공동 투자하여 건조한 무역항
- Aeropuerto las Americas: 도미니카공화국 국제 공항
- Aeropuerto de Santiago: 도미니카공화국 제2의 도시의 국제공항

2)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 LEEHAN(한국인이 운영하는 통관업체)
 - 주소: Ave. Sarasota Esq. Francisco Moreno #36 Plaza Curry Apt.212
 - 전화: 809-534-8000
 - 팩스: 809-534-8666
- 영생통관(한국인이 운영하는 통관업체)
 - 주소: Ave. 27 de Febreros #39, EDF.Plaza 2000 3piso, #312
 - 전화: 809-221-8800
 - 팩스: 809-221-8802
- Caribe Cargo Express
 - 주소: Hostos #13, Sanfrancisco de Macoris
 - 전화: 809-725-2806
- Aeromail Control Express
 - 주소: NU de Mendoza #17, Santo Domingo
 - 전화: 809-732-8253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지리적 근접성 및 대미 시장 우회진출 전진 기지

- 미국시장 지리적 근접으로 경쟁적 물류비용 이점
 - 마이애미항까지 40" 컨테이너 선박운임이 멕시코의 70%, 칠레의 35%선, 항공운임은 멕시코의 35%선, 칠레의 22%선 불과

- DR-CAFTA 발효(2007.3.1)로 미국시장 무관세 진출 전진기지화
 - 미국시장에서 보석류, 의료용품, 담배, 전기기기, 의류, 신발분야에서 도미니카(공)이 경쟁력 보유
 - FTA 발효로 Made In DR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가속화 전망

2) 중미-카리브 시장 진출 전진 기지

- DR-CAFTA 발효로 중미시장 진출 용이
 - CARICOM 및 중미자유무역지대와 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
- Caricom 회원국으로서 카리브 시장 진출 이점 및 아이티, 푸에르토리코 등 카리브 지역과의 교류 활발, 사업 기회 창출 유망

3) 투자장려분야 투자 유망, 투자영주권 취득 용이

- 첨단기술산업, 전력산업, 건설산업, 관광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인센티브 제공
- 미화 20만 달러면 투자영주권 취득 가능
 - 투자과실 100% 송금 가능

4) 양질의 통신 인프라 보유 및 비교적 양호한 삶의 질

- 중남미 최고수준급 광섬유 고속 인터넷 망 설비
 - 중남미 최고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비, 인터넷 통신비 저렴
- 국가차원 관광산업 집중투자 관계로 외국인 삶의 여건 호전

나. 투자장벽

1) 개요

1995.11.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법16-95)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 대우에 기여를 함으로써 '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82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2005년에만 11.7억 불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2002년 9억6,000만 달러, 2003년에는 10억 달러 유치, 2004년도는 6억5,000만 달러 유치). 이어 2006년에는 14.6억 달러를, 2007년에는 17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염을 토했다.

특히, 도미니카(공)은 FTZs(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결과 FTZs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1년에는 85%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1997.2.27일 대통령령 제109-97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투자 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 투자진흥청인 CEI-RD로 변화하였다.

2)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여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광업,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다.

3) 지적소유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과거의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된다.

4)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사무소)으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5) 국산화 의무 부과

주재국은 국산화 의무관련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투자 기업이 생산품을 주재국 영토 내로 판매코자 할 때는 자유무역 지대 관리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를 납부한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최소한 25% 이상의 국산화 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어야 한다.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주재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S/F 이하의 토지 구입, 국내 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도 가능하나 서면계약에 비해 법적 효력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7)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 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 1년 이상의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한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는 모든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돼 사실상 모기업을 통해 외국은행에 입금시킴으로써 현지 금융의 필요성이 없다.

8)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나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하이티 국경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된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는 연방세로서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의 유통세(ITBIS), 특별 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세를 면제한다.

다. 경쟁정책

주재국 내에서는 관련 경쟁정책이 다양한 법규(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에 표시되어 있으나 경쟁정책만을 위한 법규는 완비되어 있지 않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각 관련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법규에 의거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3.4.27일 법 제13호는 기본 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0.11.1일 제정된 법 제 112-00호는 상공부로 하여금 석유류 제품의 주별 소매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설탕가격 역시 통제 대상이다.

소비자 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1998년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다시 소비자 보호 관련법안이 상정되어 2005. 9월에 입법화 과정을 거쳤다.

라. 기타 장벽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장기체류사증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심사 지연으로 최저 6개월에서 최장 2년 간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마. 통상투자환경 개선 현황

장기체류비자 취득의 애로 및 이로 인한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상 제약사항을 주재국 유관 기관 및 OPI-RD(투자진흥청)에 건의한 결과 2001.9.20일 대통령령 제950-01호로 외국인 투자기업체 임직원에 대해 45일 내외의 간소한 차로 특별 영주권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국내 투자기업의 영업활동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주재국 운전면허로 갱신해 오던 절차를 개선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주재국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기업 임직원의 현지활동 여건을 개선하였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품목별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도미니카공화국의 품목별 외국인 투자유치 누적통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광물	통신	에너지	상업 제조업	수출자유 무역지대	금융	관광	부동산	총계
2000	-	272.2	281.9	153.7	42.5	45.3	73.7	-	952.9
2001	6.8	223.3	401.9	166.6	72.6	15.1	155.3	-	1,079.1
2002	22.6	223.1	140.1	223.2	45.0	24.9	211.8	-	916.8
2003	77.9	146.5	1.2	102.9	44.9	99.4	78.5	-	613.0
2004	60.2	224.6	-57.7	320.5	100.1	61.4	137.6	81.8	909.0
2005	27.6	111.8	43.3	190.6	174.7	65.6	315.2	94.2	1,023.0
2006	29.3	324.2	50.8	158.1	135.7	27.9	276.2	181.2	1,183.3
2007	-170.4	417.0	-19.0	180.7	73.5	53.0	445.0	723.3	1,698.0
2008	39.2	107.3	23.7	675.0	16.5	41.1	53.9	112.3	1,057.8
%	1.2	20.1	12.0	23.2	5.6	4.5	21.0	10.5	100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2008년 수치는 1/4분기 통계

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가별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도미니카공화국 국별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단위: 백만 달러)

투 자 국 가	2003	2004	2005	2006	2007	%
미 국	461.6	176.6	254.6	671.5	796.1	35.4
스 페 인	13.3	126.6	220.6	178.0	258.3	17.8
캐 나 다	22.7	274.2	194.9	90.5	163.3	13.5
프 랑 스	33.0	85.3	80.9	3.8	0.1	3.7
영 국	25.2	21.4	100.7	78.6	77.8	3.5
이 탈 리 아	5.1	39.1	15.2	0.2	1.2	1.1
칠 레	0.7	12.4	8.5	15.6	8.5	1.2
스 위 스	5.8	18.2	52.8	7.2	80.1	2.3
네 덜 란 드	25.1	0.2	38.5	26.2	21.9	4.3
케이만 제도	9.1	62.8	52.7	55.0	39.4	0.9
기타	153.4	217.8	109.1	226.8	347.1	16.3
총 계	613.0	909.0	1,023.0	1,183.3	1,698	100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banco central, 2008년 통계

다.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연도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도미니카공화국의 연도 별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투자유치액	952.9	1,079.1	916.8	613	909	1,023	1,183	1,698	1,058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banco central, 2008년 수치는 1/4분기 통계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통계

우리기업의 대 도미니카공 투자진출은 카리브 원조계획(CBI)이 발효된 1984년부터 동 CBI혜택을 받기 위해 유화통상을 필두로 한국의 섬유봉제 업체들이 진출하기 시작, 러시를 이루어 1980년대 후반에 40여 개사가 진출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섬유업의 경쟁 과열과 섬유산업의 불황으로 사양화되기 시작 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05년부터 섬유쿼터제가 폐지되면서 현지 진출 업체의 철수가 가속화되어 2007년 말 기준 20여 개사로 줄어든 상태이다. 2007. 12월 말 기준 현지진출 우리업체들의 투자금액은 총 5,000만 달러에 이르나,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기업의 대 도미니카 투자금액은 41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어 본국에 신고절차 없이 투자진출한 경우나 교포기업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의 도미니카 투자진출 통계

(단위: 건, 천 달러)

진출국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도미니카공화국	12	5,671	17	4,107

자료: 수출입은행(2007.12월 말 누계 기준)

2007.3.1일부로 중미 5개국과 연계된 미국과의 FTA(DR-CAFTA)가 발효된 만큼 다시금 도미니카공이 투자 유망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업체들도 섬유업종뿐만 아니라 대 미국 우회수출을 위한 자동차 부품, 컴퓨터 조립,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 투자업종의 다양화가 요망되고 있다.

나. 업종별·지역별 투자동향

도미니카에 진출해 있는 한국업체는 대부분이 섬유봉제 관련 업종이며, 1 개사가 어업을 목적으로 투자했다가 바로 회수한 적이 있어 현재는 타 업종은 없는 상태이며, 그 밖의 일부 교포가 내수를 목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정도이다.

미국으로 수출 시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받기 위해 1983 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의 섬유봉제업체들은 도미니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Free Zone 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는 한국의 (주)미래와 사람 (현지법인명: The Willbes Dominicana Inc.)으로 서부국경지대인 Barahona 와 Bani 에 원단, 자수 및 니트웨어 생산 및 염색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국인 하이티에도 진출해 있다. 또한

모자를 생산하는 유풍(현지법인명: BJ&B, S.A.)은 중부내륙의 Villa Altagracia 와 Moca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7 년 대부분 철수하고 현재는 모카 공장만 남아 있으며, 기타 스포츠웨어, 신사복, 숙녀복, 재봉사, 셔츠, 바지 및 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북부의 Santiago, Bonao, Puerto Plata 지역, 수도권의 Nigua 지역, 동부의 La Romana, San Pedro de Macoris 지역 등에 고루 분포해 있다.

다. 도미니카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연번	회사명	투자 연도	투자내역	투자금액(천 달러)
1	(주)미래와사람	1986	Barahona, Bani 지역, 원단, 자수 및 니트웨어 봉제	12,500
2	J&J	1991	카톤 박스	3,000
3	B&B 플라스틱	1997	플라스틱 제품	3,300
4	Arco Iris Dominicana	1999	재봉사	1,000
5	가미스포츠	1989	스포츠의류, 공	2,000
6	네오박스	1998	카톤 박스	1,600
7	로드웨이 엔터프라이즈	1988	남성용 셔츠	1,500

자료: KOTRA 2007/2008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유치 관할 법령

1) 법률 16-95(신 외국인투자법): 법률 861-78(구 외국인투자법) 대체

- 신법과 구법 간 주요 차이점
 - 투자원금 및 투자과실 송금 전면 자유화
 -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위한 까다로운 외환 구입 규제조건 철폐

2) 법규 주요 내용: 구 법률과의 차이점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 동등대우
 - 외국인투자 규제분야 해제, 투자 자유화
 - 공공서비스, 광업, 은행업, 보험업, 운수업 등 과거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과감히 해제
 - 과거에는 도미니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허용
- 외국인 투자 인정 범주 확대
 - 자본 기여
 - 천연자원 기여
 - 무형 기술 기여: 상표, 생산모델, 제조과정, 기술지원 등
- 외국인 투자자본의 목적지 확대 인정
 - 모든 형태의 기업 설립 운영 자금: 외국기업 지사형태도 포함
 - 부동산 취득
 -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 취득

○ **외국인 투자 등록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자 등록 시 중앙은행의 승인제도 폐지, 통계목적
- 단순 통보(90일 이내)로 대체

○ **투자 자본금 및 투자과실 송금 자유화**

- 외국인투자증명서 소지 외국인투자자는 민간외환시장을 통해 투자자본금 전액 및 투자 소득 외화 자유송금 가능
- 등록 미필 외국인투자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 곤란

나. 외국인 투자유치 기구 및 협정

○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투자센터(CEI-RD)

- 투자진흥청(OPI-RD)과 수출진흥센터(CEDOPEX) 통합, 2005년 발족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 기구로서 옴부즈만 기능 보유

○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발효국 및 협상국

- 스페인, 에콰도르, 카리콤, 중미, 프랑스, 중화민국,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이스라엘, 캐나다, 한국, 독일, 러시아, 베네수엘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스웨덴, 덴마크 등

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1) 세제 혜택

외국 기업 면제 대상: 유통업이나 과세대상 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유통세(ITBIS/16%)를 납부해야 하되, 평균 월수입 RD\$50,000 이하 또는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월수입 RD\$30,000 이하인 개인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이 밖에 국산품이나 수입품으로서 일반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공정이 거의 없는 식품 등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신문용지, 서적, 유류 및 관련제품, 비료, 씨앗, 살서제, 컨테이너 등과 공공기관, 농축산 부문, 자유무역지대 등에서 사용될 기계와 장비 등은 유통세를 면제함.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에 대하여 제조와 수입단계에서 품목에 따라서 5~80%가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주류, 담배, 자동차, 장거리 전화, 항공권, 호텔 객실료, 보험료 등과 보석, 금은제품, 요트 및 가정용품 등에 부과되며, 회계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마지막 날로 하여 월별로 납부함.

그러나 임시수입 또는 수출자유공단지대 투자기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유통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음. 기타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회계연도는 개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기업의 경우는 마감일자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등에서 선택할 수 있음.

세법(Fiscal Code)은 노동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기준은 비용과 회계법상 규정하는 감면액을 공제하며,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부과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소재하거나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에 대해서 공히 25%의 소득세를 부과함. 그러나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법인 소득세는 물론 제세가 일체 면제됨.

유통세는 8~16%로서 월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및 국산 공산품의 유통업, 전화, 케이블, CA TV, CC TV, Pager, 라디오 등 서비스업, 식당, 찻집 등 요식업, 숙박업, 자동차 등 동산의 임대업, 꽃꽂이업 등에 부과. 수입관련 제세는 0~20%의 관세, 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 15~80%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 16%의 부가가치세(ITBIS) 등이 있음.

2) 비자 취득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장기체류사증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심사 지연으로 최저 6개월에서 최장 2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함. 장기체류비자 취득의 애로 및 이로 인한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상 제약사항 관련, 2001년 9월 대통령령 제950-01호로 외국인 투자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45일 내외의 간소한 절차로 특별 영주권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영업활동 기반이 구축됨.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주재국 운전면허로 갱신해 오던 절차를 개선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주재국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기업 임직원의 현지활동 여건도 개선됨.

라. 투자제한(투자장벽)

1) 개요

1995.11.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법16-95)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 대우에 기여를 함으로써 '95년부터 '06년까지 총 94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2006년에만 11.8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 최근 연도 유치 실적을 보면 2002년 9억 6,000천만 달러, 2003년 10억 달러, 2004년 6억 5,000만 달러, 2005년 10억 2,000만 달러, 2006년 11억8,000만 달러로 2003년도의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2004년 만 제외하고는 지속 증가세 시현.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FTZs(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이 결과 FTZs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1년에는 85%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1997.2.27일 대통령령 제109-97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투자 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음.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통합하여 수출투자진흥청인 CEI-RD로 발전함.

2) 투자 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성 폐기물 등의 처리, 공중보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하고 있음.

이 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여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광업, 어업, 기타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 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음.

3) 지적소유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과거의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간소화함.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됨.

4)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사무소)으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요함.

5) 국산화 의무 부과

주재국은 국산화 의무관련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투자 기업이 생산품을 주재국 영토 내로 판매코자 할 때는 자유무역지대 관리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를 납부한 후 국내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최소한 25% 이상의 국산화 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어야 함.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주재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부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2,000S/F 이하의 토지 구입, 국내 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됨.

임대의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도 가능하나 서면계약에 비해 법적 효력이 미흡함.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7)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 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 1년 이상의 현지 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한국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는 모든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돼 사실상 모기업을 통해 외국은행에 입금시킴으로써 현지 금융의 필요성이 없음.

8)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됨. 단,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되며, 하이티 국경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됨.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는 연방세로서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의 유통세(ITBIS/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 설립 및 증자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세를 면제함.

마. 외국인 투자 우대분야:

외국인 투자분야 중 특별히 장려하고 있는 분야가 법률상에는 없으나 통상대통령의 정책 상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기술 이전과 고용효과가 크며 첨단 산업분야인 IT, BT 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물류중심지를 건설하기 위해 운송, 해상보험 분야도 장려하고 있다.

반면 위험물질 처리와 국민건강 및 국가안보를 해치는 분야는 현행 외국인 투자법 상에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기타 광산, 매스컴 등 일부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항목 및 제한항목

투자 장려분야	투자 제한분야
IT, BT 산업, 운송, 해상보험	○ 금지분야 -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의 처리 -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 제한분야 -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 광업,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의 주식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음.

자료: 도미니카 수출투자진흥청 CEI-RD

바. 외국인 투자 형태

1) 외국인 투자진출 시 선택 가능 회사 종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회사는 설립위치 및 활동내용에 따라 크게 현지법인, 외국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수출자유공단 내 회사 등 3가지로 나누어짐.

2) 현지법인

-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제19조 및 47조)상 영리목적의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특수합자 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C.porA.(Compania por Acciones) 또는 S.A.(Sociedad Anonima)등으로 표기되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개인회사: 300만 페소 이하의 자본금으로 대표 1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

- 주식회사(Sociedad Anonima/S.A.): 자본금 한도 없이 1명 이상이 자본금을 함하여 회사 설립
- 주식회사(Compania por Acciones /C por A): 자본금 한도 없이 7명 이상의 주주가 모여 설립
- 현지법인은 상공부의 설립허가와 국세청의 등록, 신문 공고, 관련서류 법원제출로 회사설립이 완료됨.

3) 외국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 외국인 지사 등 설립은 상공부 설립허가를 생략하고 국세청의 회사설립허가 취득 및 신문공고, 관련서류 법원 제출로 설립절차가 완료됨.

4) 수출자유공단 입주 회사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제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 지대에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상공부 설립허가 대신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하고 공장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출자유공단심의회에 대한 입주를 신청으로 설립허가를 간소화 할 수 있음.
- 설립 허가 취득 후에는 국세청 허가취득, 신문공고, 관련서류 법원제출 등 일반절차와 동일함.

5)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 위원회(Consejode Zonas Francas de Exportacin/CNZFE)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함.

사. 투자법 내용

1) 개요

현행 외국인 투자법(법률 16-95)은 과거의 사전심사 허가제를 없애는 대신 통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투자제한 및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 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중앙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수 절차이다.

2) 회사 종류 및 설립 절차

□ 회사 종류

도미니카(공)에서의 회사는 설립위치 및 활동내용에 따라 크게 현지회사, 외국인 지사, 연락사무소, 수출자유 공단 내 회사 등 3가지로 나누어 진다

□ 현지회사 내용 및 설립절차 개요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제19조 및 47조)상 영리목적의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특수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C.por A.(Compania por Acciones) 또는 S.A.(Sociedad Anonima) 등으로 표기되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개인회사: 300만 페소 이하의 자본금으로 대표 1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
- Sociedad Anonima(S.A.): 자본금 한도 없이 1명 이상이 자본금을 합하여 회사설립
- Compania por Acciones(C por A): 자본금의 한도 없이 7명 이상의 주주가 모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이상의 현지회사는 상공부의 설립허가와 국세청의 등록, 신문 공고, 관련서류 법원제출로 회사설립이 완료된다.

□ 외국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외국인 지사 등 설립은 상공부 설립허가를 생략하고 국세청의 회사 설립허가 취득 및 신문 공고, 관련서류 법원 제출로 설립절차가 완료된다.

□ 수출자유공단 입주 및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제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상공부 설립허가 대신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하고 공장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출자유공단심의회에 대한 입주를 신청으로 설립허가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득 후에는 국세청 허가취득, 신문공고, 관련서류 법원 제출 등 일반절차와 동일하다.

□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위원회(Conejos Nat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CNZF)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3) 법인 설립

(가) 법인 설립 절차

□ 수출자유 공단 내 법인 설립

현지기업의 법인 설립은 크게 일반지역과 수출자유공단지역으로 대별되며 수출자유공단 내 법인설립은 수출자유공단 심의회에 법인 설립 신청 및 국세청 납세신고, 설립 결과 신문 공고 및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로 완결된다.

□ 수출자유공단 심의회 법인 설립 신청

- 구비서류
 - 수출자유 공단 내 회사 설립 허가 신청서
 -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및 공장설치 계획안 설명서
 - 회사 설립 서류 및 주주리스트
 - 행정수수료 및 현지 신문 광고료 등 RD\$ 20,000.00 지불
 - 생산품목 샘플
 - 투자자 지불 능력 평가 서류나 투자자 신분증
- 처리절차
 - 매달 개최되는 심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승인 결정하여 Resolucion de 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 de Exportacion 발급

□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납세 신청

- 구비서류
 - 회사 설립 허가 신청 레터(원본 1장, 사본 2장)
 - 서반아어 번역 및 英사확인 받은 회사 내규 사본
 - 3267 Form(납세증 ID 신청서)
 - 회사 대표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 Resolucion de 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 de Exportacion
 - 관련경비 및 처리기간
 - 인지대 RD\$ 4.55
 - 행정처리에 5~7일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회사 설립 허가증, 회사설립 등록번호, 납세 ID카드를 발급 받는다.

□ 신문 공고

국세청 납세신고가 완료되면 현지 언론사에 국세청에서 발급한 회사 설립 허가증을 공고한다.

□ 관할 법원 (Tribunal del Primer Instacia y Juzgado de la Paz) 서류 제출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에 제출한 모든 서류 사본을 법정에 제출하고 서류 접수증 발부 받음으로써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된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은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수출자유공단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공단관리청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CNZF)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 신청기관: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국제부 Departamento Internacional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ominicana
- 제출서류
 - 투자 금액과 지역, 업종 및 품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 공문 (수출자유공단 입주업체는 외국투자 기업 등록신청서 사용)
 - 외환 또는 유형자산 등의 형태로 투자자본이 유입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류 등이다.
- 기타
 - 소요 비용은 없으며, 근무일수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확인증을 발급한다.

(다) 기업활동을 위한 각종 인허가

□ 상호 및 상표 등록(Registro del Nombre de la Compania y/o Marca)

- 신청: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산토도밍고 상공 회의소 (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 상호 및 상표 등록 신청공문(별도양식 없음)
 - 신청인 인적사항
 - 상호 및 상표 설명서 및 샘플 4점 이상
 - 사용업종 및 품목
 - 등록희망 기간
- 소요비용
 -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조사: RD\$1.25(인지대)+RD\$300(수수료)
 - 상호 및 상표 등록 신청: RD\$59.25(인지대)+RD\$300(수수료)+RD\$170(일간지 공고 광고비)
- 처리절차 및 기간
 - 상공부는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30일 이내에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정식 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를 일간지에 공고 후 4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채택 및 등록

□ 사업자등록(Iniciacion de Actividades)

- 신청: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 서류: 소정양식
- 소요 비용: RD\$1.25(인지대)+RD\$150(수수료)
-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주

□ 제조업자등록(Inscripcion Industrial)

- 신청: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서류: 소정양식
- 소요비용: RD\$300(기본) + 가산금 RD100/자본금 100만 배소당
-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주
- 공산품 제조업자 확인서 발급으로 원산지표시(Hecho en la Republica Dominicana 사용

□ 상공인등록(Registro Mercantil)

- 신청: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 상공인등록신청서
 - 상공부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발생 확인서
- 소요비용: 인지대 및 수수료(자본금에 비례)
-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접수 후 10~15일 내에 상공업자로 등록증 발급 및 상공회의소 BUSINESS DIRECTORY에 등록

□ 수출업자등록

- 신청: 수출진흥청(Centro Dominicano de Exportaciones)
- 신청 서류: 수출업자 등록신청서(수출자유공단 내 입주업체는 별도 등록 불요)
- 소요 비용: 없음
- 처리절차 및 기간: 수출자유공단 입주허가를 수출업자 등록으로 간주

4) 공장설립

(가) 공장 설립 절차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공단은 정부 및 민간에서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력, 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대료가 싸다는 장점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동 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 수출자유공단 입주 및 공장설립은 통상 공단 내 법인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한 후에 수출자유공단 심의회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관련기관:
 - 수출자유공단 심의회(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 홈페이지: www.cnzfe.gov.do

(나) 공장임대절차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나 다음 경우는 제외이다.

- 2,000s/f 이하의 토지 구입
- 국내에 거주한지 5년 이상 지났거나 도미니카 시민과 결혼하여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 국내영업이 허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투자
- 내국인이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국내기업의 부동산 투자
- 교회 또는 국내에 설립 허가된 비영리 조합의 부동산 투자 등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 서면 신청서 제출
- 내무부장관의 검토와 대통령에 대한 송부
- 법률자문을 통한 국가 이익에 부합여부 확인을 통한 대통령 허가
- 매매거래 완료 및 세금 납부 후 등기소(Register of Titles) 등록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 계약도 인정되나 서면계약에 비하여 법적 효력이 미흡하다. 특히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 계약 종료 사유
 - 계약기간의 만료
 - 계약물건의 불가항력적인 파손
 -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
 - 상호 합의 등

(다) 임대 및 구입비용

현지 수출자유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관련 건물 및 공장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임대비용은 국영공단, 사설공단 및 시설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 s/f당 0.5달러에서 5달러 선에 달하고 있고 사설공단 임대가격이 국영공단 임대가격의 2.5배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존 공업진흥청(CFI/Fomento)은 2007 년 12 월부터 산업발전경쟁력센터(Centro de Desarrollo y Competitividad Industrial, PROINDUSTRIA)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이곳에서 운영하는 국영공단을 활용하고 있다.

임대관련 계약관행은 5 년 이상 20 년 정도까지 장기 임대계약을 관행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 임대초기에 3 개월치 정도의 보증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있다.

라. 현지 기업의 청산

1) 청산 절차 개요

청산은 우선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취득 후 현지 국세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이후 현지 신문에 청산 공고를 하고 관련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 청산관련 세부절차

- 노동청 청산 승인 신청
 - 퇴직금 및 보너스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경비 지불 능력이 있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만 하고 청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에 관련서류 제출
 - 청산 승인신청 레터(1원본, 2사본)
 - 주주들의 청산 동의장
 - 현재 직원 임금 지불표
 - 회사 대표자 보증서
 - 법정 청산 판결서(파산했을 경우)
 - 최종 세금납부 증명서
 - 국세청 납세증 반납
 - 수입인지 구입 RD\$ 100.25
 - 국세청 승인 소요기간은 약 10~15일
- 국세청의 승인을 취득한 후 현지 언론에 기업청산 공고
 - 상기 모든 서류를 지방법원 (Tribunal del Primer Instancia y Juzgado de la Paz)에 접수하고 청산절차 완료

3) 청산관련 주요기관

-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 담당부서: Departamento de Compania
 - 주소: Av. Mexico No. 48, Santo Domingo.
 - 전화: (1809) 689-2181
 - 홈페이지: www.dgii.gov.do
- 노동청(Secretaria de Estados de Trabajo)
 - 담당부서: Departamento de Direccion general de Trabajo
 - 담당자: Dr. Washington Gonzalez Nina (Director)
 - 전화: (1809) 535-4404
 - 팩스: (1809) 535-7990
 - 주소: Av. Jimenez Moya Centro de los Heroes, Santo Domingo.

4) 청산 시 유의사항

청산 시 현지 기업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주요 업무를 추진하며, 관련 경비는 미 달러 1,000~1,500 정도 소요되고 있다.

청산관련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며 현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청산하는 경우는 드물고 정식 절차를 밟아 청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마. 투자 인센티브 / 투자 유치정책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국내산업 발전과 실업의 해소, 외화수입의 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및 과실금 송금제한의 철폐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개정('95.12), 세계은행의 다자간 투자 보장 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가입('96.10)과 전력, 항만, 교통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 확충 및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개혁과 현대화(Modernization) 계획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법(법률16-95, '95.12.)은 중앙은행(Banco Central)에서 IDB(Inter-American Bank)와 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문으로 '90년부터 5년여 간에 걸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노력과 연구를 기초로 개정된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외국인 투자법(법률 16-95, '95.11.20)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380-96호, '96년 8월)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첫째, 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는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수단으로서 자본 외에 생산설비, 기계장비 부품 및 부분품, 부동산, 무형 및 기술자산 등의 형태가 가능하나 국내 금융 기관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의 판매와 지원, 엔지니어링 계약 등 기술이전 계약은 내국인, 외국인, 외국기업 간에 공히 허가된다. 1967년부터 시작된 Free Zone 육성정책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전면 면제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로 미국과 자국기업은 물론 미국시장 및 EU 시장진출을 위한 우회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기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 20개사를 포함하여 555개사가 진출하여 있다.

자유무역지대 내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주식 배당세 등을 제외한 법인소득세 일체를 면제하고, 법인 설립관련 제세와 공장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기자재 및 건축자재 등의 수입관세, 상표등록세 등도 면제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 설립 절차

1) 일반 투자진출 절차(현지법인 및 지사 설치)

- 외국인 투자법(법률 16-95)은 과거의 사전심사 허가제를 없애는 대신 통계 관리 목적으로 하는 사전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중앙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됨.
- 도미니카 공화국 상법(제 19 조 및 47 조)상 영리목적의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특수합자 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4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C.por A. (Compania por Acciones: 7 인 이상) 또는 S.A.(Sociedad Anonima: 1 인 이상)등으로 표기되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회사 설립 절차는,
 - 회사설립에 관한 정관 등 서류작성
 - 회사정관 등기 국세청 등록 및 법원제출 허가 취득
 - 납세자 신고 및 등록
 - 회사설립 서류의 관할법원 등록
 - 회사설립에 관한 일간지 공고
 - 주식발행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 관련 기관은 크게 상호 등록을 위한 산업재산권청(ONAPI, 5 일 정도 소요), 납세자 등록을 위한 국세청(DGII), 상표 등록을 위한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CPSD) 3 곳이며 회사 자본에 따라 각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달라짐.

□ 서류 작성

- 필수 명기 사항
 - 회사명과 회사 구분(합명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특수합자 회사)
 - 설립자명과 인적사항(국가, 나이, 결혼여부, 직장,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 회사 주소, 목적, 자본
 - 승인 혹은 지불된 자본(인증 자본의 1/10 이상이어야 함)
 - 주식 가격(RD\$5 이상이어야 함)
 - 부동산 등록 서류 사본(아직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거래서 사본)
 - 주주 명단. 주주명과 주소, 투자액 명기
 - 이사회 구성원 명단
 - 직원 명단

□ 회사명 등록

-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상호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이는 산업재산권청(ONAPI-Oficina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으로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후 회사명, 업종과 대표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상공부의 상호 및 상표 등록 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됨.

□ 정관 등록

- 설립자 5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설립(자) 성명과 인적사항
 - 회사명, 종류(합명회사, 특수합자 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중)

- 회사 주소
- 회사 목적과 주요 업무 내용
- 주식 종류와 주식 총수, 가격(RD\$5 이상)

□ 주식 발기인 및 주식지분 명세서

- 적어도 7명 이상(CxA의 경우)의 발기인 또는 주주 명단(인적사항 포함)
- 각 주주의 투자액과 주식 수의 명기가 필요함.

□ 승인 자본에 대한 납세

- 소득 징수계로 신청

□ 공증 발표

□ 창립 총회

- 제출 서류
 - 회사 정관
 - 주주 명단과 주식 투자액 목록
 - 주식에 대한 납세서 영수증
 - 공정 증서 사본
 - 창립총회에서 결의 기록
-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납세 신청 구비서류
 - 회사 설립 허가 신청 레터 (원본 1장, 사본 3장)
 - 서반아어 번역 및 영사확인 받은 회사 정관 사본
 - 3267 Form (납세증 ID 신청서)
 - 회사 대표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2) 수출자유공단 내 법인설립

□ 개요

현지기업의 법인설립은 크게 일반지역과 수출자유공단지역으로 대별되며 수출자유공단 내 법인설립은 수출자유공단 심의회에 법인설립 신청 및 국세청 납세신고, 설립결과 신문공고 및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로 완결됨.

□ 수출자유공단 심의회 법인설립 신청

- 구비서류
 - 수출자유공단 내 회사 설립 허가 신청서
 - 토지임대계약서 사본 및 공장설치 계획안 설명서
 - 회사 설립 서류 및 주주리스트
 - 행정수수료 및 현지 신문 광고료 등 RD\$ 20,000.00 지불영수증
 - 생산품목 샘플
 - 투자자 지불 능력 평가 서류나 투자자 신분증

각종 행정 수수료	일반	고속(expreso)
자유무역지대 공단 내 회사설립허가	53,000	59,000
공단 내 설립허가	200,000	210,000
Special Free Zone 내 회사 설립/운영 허가	153,000	161,000
회사 재분류나 리노베이션 허가	25,000	27,000
공단 재분류나 리노베이션 허가	100,000	102,000
상호 변경	12,500	14,500
회사이익배분	17,500	19,500
회사이전	12,500	14,500

주: 통화: 도미니카 페소 RD\$)

자료: 수출자유공단관리청(CNZFE)

□ 처리 절차

- 매달 개최되는 심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승인 결정하여 수출자유공단관리청 결의서 (Resolucion de 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 de Exportacion)를 발급하며, 최대 30 일 정도 소요됨.
 - － 관세청, 국세청, 수출자유공단협회, 섬유제조협회, Cibao 섬유제조협회, 신발제조협회에서 각 한 명씩 파견된 위원회를 구성함.
-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납세 신청
 - － 구비서류는 법인 설립 절차와 같으며, 수출자유공단 심의회 의결서가 추가로 필요함.
- 신문광고
 - － 국세청 납세신고가 완료되면 현지 언론사에 국세청에서 발급한 회사 설립 허가증을 공고.
- 관할법원 (Tribunal de Primera Instancia y Juzgado de la Paz) 서류 제출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에 제출한 모든 서류 사본을 법정에 제출하고 서류 접수증을 발부 받음으로써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됨.

□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함. 수출자유공단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공단관리청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CNZFE)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 (신청기관: 중앙은행 국제부 Departamento Internacional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ominicana)
- 제출서류
 - － 투자금액과 지역, 업종 및 품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 공문(수출자유공단 입주업체는 외국투자 기업 등록신청서 사용)
 - － 외환 또는 유형자산 등의 형태로 투자자본이 유입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류 등
- 근무일수 기준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확인증을 발급.

나. 지사 설립 절차

- 상공부 설립 허가를 생략하고 국세청의 회사 설립허가 취득 및 신문 공고, 관련 서류 법원 제출로 설립절차가 완료됨.
-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수적으로 권장되는 절차임.
 - 설립되는 지사에 현지 법인과 같은 권한 부여
 - 납세자 등록을 위한 요건 구성
 - 도미니카 중앙은행의 해외투자등록 등 행정상의 조정을 위해 요구됨

□ 주소 등록 절차

- 2 개월에서 6 개월까지 걸릴 수 있음. 일단 관청(Ministry of interior and police)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 회사명과 사무실 주소
 - 회사가 설립된 국가나 주(state)
 - 설립될 지사가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실행할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첨부 문서 목록
- 첨부해야 할 문서 목록
 - 해외 주소지 신청을 인정하는 회사로부터의 인증
 - 제품등록증명서 또는 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의 법인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이라 불리기도 함. 이는 가까운 도미니카공화국 영사관에서 공인 받아야 하며 공인 받은 서류는 다시 도미니카공화국 외무부에서 인증 받아야 함)
 - 도미니카공화국 영사와 외무부에서 공인받은 회사 정관 사본
 - 인증받은 재무제표
 - 등록 상호로 활동하기 위한 변호사 공증(법정 대리)
 - 인지(RD\$6.00 4 개, RD\$ 0.25 2 개, RD\$20 1 개, RD\$10 1 개)
 - 국내 소득 영수증 1 (RD\$10) : 관보에 게재

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 현지 지사 설립 절차와 같으며 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수 사항임.

라. 공장 설립 절차

- 도미니카(공) 수출자유공단은 정부 및 민간에서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력, 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대료가 싸다는 장점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등 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임.
- 동 수출자유공단 입주 및 공장설립은 통상 공단 내 법인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한 후에 수출자유공단 심의회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 관련기관: 수출자유공단관리청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http://www.cnzfe.gov.do>

마. 기업활동을 위한 각종 인허가

□ 상호 및 상표 등록(Registro del Nombre de la Compania y/o Marca)

- 신청: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 (C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 상호 및 상표 등록 신청공문(별도양식 없음)
 - 신청인 인적사항
 - 상호 및 상표 설명서 및 샘플 4 점 이상
 - 사용업종 및 품목
 - 등록희망 기간
- 소요비용
 -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조사: RD\$1.25(인지대)+RD\$300(수수료)
 - 상호 및 상표등록신청: RD\$59.25(인지대)+RD\$300(수수료)+RD\$170(일간지공고 광고비)
- 처리절차 및 기간
 - 상공부는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30일 이내에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정식 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를 일간지에 공고 후 4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채택 및 등록
- 사업자 등록(Iniciacion de Actividades)
 - 신청: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서류: 소정양식
 - 소요비용: RD\$1.25(인지대)+RD\$150(수수료)
 -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주
- 제조업자 등록(Inscripcin Industrial)
 - 신청: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서류: 소정양식
 - 소요비용: RD\$300(기본) + 가산금 RD100/자본금 100만 페소당
 -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주
 - 공산품 제조업자 확인서 발급으로 원산지 표시(Hecho en la R.D.) 사용
- 상공인 등록(Registro Mercantil)
 - 신청: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 상공인등록신청서
 - 상공부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발생 확인서
 - 소요 비용: 인지대 및 수수료(자본금에 비례)
 - 처리 절차 및 기간: 신청접수 후 10~15일 내에 상공업자로 등록증 발급 및 상공 회의소 BUSINESS DIRECTORY에 등록

- 수출업자 등록
 - 신청: 수출투자진흥청(CEI-RD)
 - 신청서류: 수출업자 등록신청서(수출자유공단 내 입주업체는 별도 등록 불요)
 - 소요비용: 없음
 - 처리절차 및 기간: 수출자유공단 입주허가를 수출업자 등록으로 간주

바. 투자관련 정부기관

- 수출투자청/ CEI-RD (Centro de Exportación e Inversión de la Rep. Dom.
 - 홈페이지: www.cei-rd.gov.do
 - 메일: cei-rd@codetel.net.do
 - 주소: Av. 27 de Febrero, Santo Domingo
 - 전화: (1-809) 530-5505
- 자유무역지대입주기업협회/Asociación Dominicana De Zonas Franca Inc. (ADOZONA)
 - 홈페이지: www.adozona.org
 - 주소: Av. Sarasota 20, Santo Domingo
 - 전화: (1-809) 472-0251
- 관세청/ 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y Puertos (DGA)
 - 홈페이지: www.dga.gov.do
 - 주소: M A Piantini 61, Santo Domingo
 - 전화: (1-809) 686-2602
- 자유무역지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CNZFE)
 - 홈페이지: www.cnzfe.gov.do
 - 주소: Leopoldo Navarro #61, Edif. San Rafael, Santo Domingo
 - 전화: (1-809) 686-8077
- 전경련/Consejo Nacional de Empresas Privadas(CONEP)
 - 홈페이지: www.conep.org.do
 - 주소: Av. Sarasota No.20, Torre Empresarial, Piso 12, Ens. La Julia, Santo Domingo
 - 전화: (1-809) 472-7101

사. 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1) 투자관련 컨설팅업체 및 부동산업체

□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지원업체 (주요 법률사무소)

- Columna y Asociados, C. X A.
 - 담당자: Dr. Carlos Almonte
 - 주소: C/C #9, Ensanche Pianteni, Santo Domingo
 - 전화: 1-809-502-1947
 - 팩스: 1-809-562-2694
 - 이메일: oficolumna@codetel.net.do

- Gomez & Ciccone
 - 담당자: Mr. Fernando Ciccone Perez
 - 주소: Av. 29 de Febrero 266, Santo Domingo
 - 전화: 1-809-732-2600
 - 팩스: 1-809-732-2595
 - 이메일: racigo@codetel.net.do.
- Olivero Rodriguez & Asociados
 - 담당자: Mr. Manuel Olivero Rodriguez
 - 주소: Av. Abraham Lincoln Esq. Paseo de Los Locudores, Plaza Francesa, 2do. Nivel, Suite 221 y 334 A, Santo Domingo
 - 전화: 1-809-566-9939
 - 팩스: 1-809-412-1098
 - 웹사이트: www.olivero.com.do
- Pellerano & Herrera
 - 담당자: Dra. Flavia Baez
 - 주소: Av. John F. Kennedy 10. Santo Domingo
 - 전화: 1-809-541-5200 WW
 - 팩스: 1-809-567-0773
 - 이메일: ph@phlaw.com

2) 부동산 알선업체

- Century 21
 - 담당자: Fernando Bonelly, Sales Manager
 - 주소: Av. Bolivar No. 203-A, Suite 1-A1, Santo Domingo
 - 전화: 1-809-472-2121
 - 팩스: 1-809-566-4778
 - 이메일: century21aut@codetel.net.do
 - 홈페이지: century 21.com.do
- Era 2000 Realty
 - 담당자: Liliana Raco, Sales Manager
 - 주소: Fabio Mota No. 31, Ens. Naco, Santo Domingo
 - 전화: 1-809-472-2000
 - 팩스: 1-809-565-7528
 - 이메일: era2000@codetel.net.do

6. 투자입지여건

가. 산업단지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단지는 업체들이 밀집하여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구성하고 단지의 공동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적인 구획 정리나 인프라 건설 후 입주 업체 간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통한 조업상 이점을 기대하는 여타 산업단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주요 산업단지로는 수도인 산토도밍고 시 외곽에 위치한 HERRERA(에레라)공단과 HAINA(하이나)공단이 있는데, 입주 업체 수는 각각 약 200개사, 65개사로 국내 유수의 철강 및 금속, 기계장비, 플라스틱, 섬유업체들이 입주하여 있다. 이들 2개 공단은 단지의 공동관리를 위해서 조합(Asociacion)을 구성하여 단지 내 경비, 미화 등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수출자유공단(Zona Franca)은 75개이며, 총 55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그 중 40%는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나. 자유무역지대

도미니카공화국에는 미국과 EU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2006년 기준 전국에 75개 자유무역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공부 산하의 수출자유 공단관리청(Consejo Nacioal de Zona Francas de Exportacion: CNZFE)에서 입주 허가 및 외국인 투자, 수출입 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무역지대는 공단의 조성 및 건물의 건축,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공장설립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초기의 투자부담 경감, 저렴한 임차료, 외국인 투자신고 및 공장설립과 등록절차 간소화, 일체의 국세와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최적의 입주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 및 재판매를 위한 Commercial Free Zone 없이 75개 전 자유무역지대가 제조업을 위한 Industrial Free Zone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수도인 산토도밍고 인근의 Las Americas 국제공항과 Boca Chica 항을 포함하는 유통 및 산업 복합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운영 형태별로는 공진청(Corporacion de Fomento Industrial: CFI)에서 운영하는 국립 41%,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53%, 기타 민간복합 6%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산토도밍고 인근 수도권 및 동부 18%, 남부 13%, 북부가 40%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업체의 업종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섬유가 50.3%로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17%), 담배(5.26%), 전기전자(5%) 순이며, 입주업체의 투자국은 미국(49%), 도미니카공화국(34.2%), 한국(4.4%)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난 '92년 노동법 개정 이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노조 결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정치성 노조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영업환경이 악화된 일부 업체가 폐업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는 섬유쿼터제 폐지의 영향으로 입주업체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높은 전기료 부담 및 잦은 정전에 따른 발전기 가동비용 추가, 노임 지속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미국 바이어의 저임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른 주문 물량

축소, 대미화 환율 고평가 문제점(1달러당 37페소 선을 적정환율로 주장하지만 현실은 32페소 선, 정부는 평가절하 요구 미수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DR-CAFTA 발효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진출 기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들의 폐업사태가 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법에 규정된 입주업체 및 운영자에 대한 혜택

- 1992 .5. 15 일 제정된 법률 11-92 가 규정한 소득세 면제
- 등록, 계약체결, 건설, 부동산 이전에 관한 세금면제
- 회사 설립 시 부과되는 세금과 자본금 증액 시 지불하는 세금면제
- 자유무역지대내에서 사용되는 천연자원, 건설장비, 사무실장비, 빌딩 부속품 등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면제
- 수출 및 재수출세 면제
- 부가가치세, 재산세, 특허세 면제
-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용 설비 및 비품 수입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면제
- 사업목적상 수입하는 차량 수입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면제

다. 공장 설립

1) 자유무역지대 입주 및 공장설립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제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한 후에 수출자유공단관리청에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 관련기관: 수출자유공단관리청(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 홈페이지: www.cnzfe.gov.do
- 제출서류
 - 수출공단입주신청서
 - 공단 입주계약서 또는 입주 의향서
 -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 일간지 공고를 위한 광고 문안
 - 잔고 증명
 - 제조물품 견본 등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무역지대는 정부 및 민간에서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력, 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대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자는 외국인도 물론 내국인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일반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관련법에 따른 부지 매입과 공장건설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라. 투자관련 정부기관

- 수출투자청/CEI-RD (Centro de Exportación e Inversión de la Rep. Dom.(CEI-RD))
 - 홈페이지: www.cei-rd.gov.do
 - 메일: cei-rd@codetel.net.do
 - 주소: Av. 27 de Febrero, Santo Domingo
 - 전화: (1-809) 530-5505
- 수출공단협회/Asociación Dominicana De Zonas Franca Inc. (ADOZONA)
 - 홈페이지: www.adozona.org
 - 주소: Av. Sarasota 20, Santo Domingo
 - 전화: (1-809) 472-0251
-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y Puertos (DGA)
 - 홈페이지: www.dga.gov.do
 - 주소: M A Piantini 61, Santo Domingo
 - 전화: (1-809) 686-2602
- 수출자유공단관리청/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CNZFE)
 - 홈페이지: www.cnzfe.gov.do
 - 주소: Leopoldo Navarro #61, Edif. San Rafael, Santo Domingo
 - 전화: (1-809) 686-8077
- 전경련/Consejo Nacional de Empresas Privadas(CONEP)
 - 홈페이지: www.conep.org.do
 - 주소: Av. Sarasota No.20, Torre Empresarial, Piso 12, Ens. La Julia, Santo Domingo
 - 전화: (1-809) 472-7101

마.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1) 투자관련 컨설팅업체 및 부동산업체

□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지원업체 (주요 법률사무소)

- Columna y Asociados, C. X A.
 - 담당자: Dr. Carlos Almonte
 - 주소: C/C #9, Ensanche Pianteni, Santo Domingo
 - 전화: 1-809-502-1947
 - 팩스: 1-809-562-2694
 - 이메일: oficolumna@codetel.net.do
- Gomez & Ciccone
 - 담당자: Mr. Fernando Ciccone Perez
 - 주소: Av. 29 de Febrero 266, Santo Domingo
 - 전화: 1-809-732-2600
 - 팩스: 1-809-732-2595
 - 이메일: racigo@codetel.net.do

- Olivero Rodriguez & Asociados
 - 담당자: Mr. Manuel Olivero Rodriguez
 - 주소: Av. Abraham Lincoln Esq. Paseo de Los Locudores, Plaza Francesa, 2do. Nivel, Suite 221 y 334 A, Santo Domingo
 - 전화: 1-809-566-9939
 - 팩스: 1-809-412-1098
 - 웹사이트: www.olivero.com.do
- Pellerano & Herrera
 - 담당자: Dra. Flavia Baez
 - 주소: Av. John F. Kennedy 10. Santo Domingo
 - 전화: 1-809-541-5200
 - 팩스: 1-809-567-0773
 - 이메일: ph@phlaw.com

2) 부동산 알선업체

- Century 21
 - 담당자: Fernando Bonelly, Sales Manager
 - 주소: Av. Bolivar No. 203-A, Suite 1-A1, Santo Domingo
 - 전화: 1-809-472-2121
 - 팩스: 1-809-566-4778
 - 이메일: century21aut@codetel.net.do
 - 홈페이지: century 21.com.do
- Era 2000 Realty
 - 담당자: Liliana Raco, Sales Manager
 - 주소: Fabio Mota No. 31, Ens. Naco, Santo Domingo
 - 전화: 1-809-472-2000
 - 팩스: 1-809-565-7528
 - 이메일: era2000@codetel.net.do

바. 타당성 조사

□ 도미니카공화국 투자진출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

- 외국인 투자법이 투자자 관점에서 호의적으로 제정되었는지 여부 및 개정 경과
- 과실송금보장제도의 내역 확인 및 제한 여부
- 수출자유공단(Free Zone) 입주 여건 및 투자인센티브 확인
- 현지 노동법 유불리 조항 파악(시간외 근무, 임신근로자, 해고 조건 등)
- 각종 인허가 절차 확인
- 입주지역의 인프라 환경 확인(특히 도미니카(공)의 경우 안정적인 전기공급 문제 체크)
- 시간당 임금단가 파악(인근국과의 비교 필요)
- 현지 조세제도 확인
- 직원 및 가족 주재를 위한 생활환경 파악(학교, 의료, 주택, 교통, 물가, 치안 등)
- 현지 경기현황 및 환율변동 전망

- 해외차입 등 현지 금융조건 파악
- 현지 원자재 조달 가능성 파악
- 정부의 향후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파악
- 업종별 현지 기후여건 파악(도미니카공화국은 아열대로 일부 화학 및 전자·반도체 산업 부적 함)
- 현지 주재원 및 가족 비자 수속 관계 파악

7. 노무관리

가. 임금

노동부에 설치된 임금위원회(Comite Nacional de Salarios)는 정기적으로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함.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자유무역 지대에서는 주급이 일반화되어 있음.

업종별 최저임금

업종	자본(RD\$)	임금(RD\$)
일반	4,000,000 이상	7,360
	2,000,000~4,000,000	5,060
	2,000,000 이하	4,485
호텔, 카지노, 나이트클럽, 요식업	4,000,000 이상	5,575
	2,000,000~4,000,000 미만	4,000
	200,000~2,000,000 미만	3,600
수출자유지대 근무자		4,450

자료: 수출투자청(CEI-RD), 2008.9 기준 최신

- 2007/1 월자 사기업 근무자 최저 임금 :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부문
 - 하루 10 시간의 용역직은 RD\$ 150 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정될 수 있음.
 - 경비직의 경우 월 최저 RD\$ 6,210
- 설탕제조업 근무자
 - 밭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는 월 RD\$ 3,100
 - 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 RD\$ 80(8 시간 기준)이며,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의 조정이 가능함.
-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이 기준이며 토요일 포함하여 44 시간을 표준으로 함. 시간제 근무자는 주 29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Fringe Benefit

- 주당 44 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으로서, 24 시간 이내는 35%를, 24 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를,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15%를 추가로 지급함.

- 상여금은 12 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의 1/12로서 매년 12 월 20 일 이전에 지급해야 함.
- 휴가는 1 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일수 기준 14 일을, 5 년 이상 근무자는 18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1 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 개월 수에 따라 각각 5 개월 이상 6 일, 6 개월 이상 7 일 등이 주어짐.
- 당기 이윤 가운데 10%는 근로자들에 배분함을 규정하고 있어 3 년 미만 근무자는 정상 급여의 45 일분을, 3 년 이상의 근로자는 60 일분을 한도로 지급하되, 조업개시 최초 3 년 동안이나, 자본금 RD\$100 만 미만의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는 지급 의무가 면제됨.

다. 사회 보장 제도

- 2001 년 5 월 10 일자로 발효된 법령 87-01 에 의하여 정책 제정을 위한 사회보장 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사회보장기금관리원, 연금감독원, 보건산재감독원(Sisalril) 등 제반 기관 위에 도미니카 사회보장시스템(SDSS)이 구성됨. SDSS 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연금, 건강보험(가족 및 직장인), 산재보험의 3 가지로 분류됨.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사회 보장 사무국(TSS/ Tesoreria de la Seguridad Social)이 민간 의료보험 취급회사 (ARS/Administradoras de Riesgo de Salud)들을 통해 동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
- 도미니카에 정식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종업원 2 명 이상의 기업에게는 자본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가 주어지므로 필수적으로 TSS 에 등록 및 ARS 에 가입하여야 함.

1) 건강보험(Seguro Familiar de Salud)

- 고용주에게 임금의 7.09%, 종업원에게 임금의 3.04%가 부과되며, 보험 가입 후 첫 5 년 간의 부담률은 다음과 같음. 5 년 이후는 불변

고용년차	1	2	3	4	5
고용주(%)	6.67	7.02	7.09	7.09	7.09
종업원(%)	2.86	3.01	3.04	3.04	3.04
합계 (%)	9.53	10.03	10.13	10.13	10.13

자료: 법령 188-07, 보건산재감독원(SISALRIL)

2) 산재보험(Seguro de Riesgos Laborales)

- 범위
 - 고용자 임금의 1.2%가 보험료로 부과됨. 기업 활동과 그에 따른 재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0.2%에서부터 최대 0.6%의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해는 그 정도에 따라 4 가지로 분류됨.
 - 치과 치료를 포함한 의과 치료, 보철 장치 및 정형외과 장치에 대한 복구, 일시적 재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연금을 제공.
 - 재해에 대한 진단은 환자가 정한 의사 1 인, 산업재해관리부에서 정한 1 인이 결정하며, 진단 결과가 나온 후 10 년간 매 2 년마다 정기 검진이 필요함. 재해의 강도와 최근 6 개월 임금 기준으로 보상이 정해짐.

3) 연금 제도(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Seguro de Vejez, Discapacidad y Sobrevivencia)

- 법령 87-01 하 관련 45 세 이하 봉급 생활자 및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45 세 이상의 신규 가입자에게는 봉급을 고려한 특별 세제가 적용됨.
- 연금은 최소 360 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0 세 이상에게 적용됨. 55 세 이상 퇴직자는 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음.
- 법령 188-07 에 의해 2007 년 8 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기존 5 년차의 10%부과를 7 년차까지로 완화.

가입연차	1	2	3	4	5	6	7
고용주(%)	5.02	5.37	5.72	6.42	6.42	6.75	7.10
종업원(%)	1.98	2.13	2.28	2.58	2.58	2.72	2.87
총(%)	7.0	7.5	8.0	9.0	9.0	9.47	9.97

자료: 법령 188-07, 보건산재감독원(SISALRIL)

라. 고용 계약

고용계약은 4매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자와 고용주가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2부는 3일 내에 정부 노동국 또는 지방 당국에 발송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약으로 인정하며, 관계 법률과 규정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현 노동법은 동 법률에 저촉되는 일체의 계약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은 물론, 계약내용이나 관계 법률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근로허가' 제도가 없이 체류비자, 임시체류증 또는 영주권상에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을 명기하도록 하고 노동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80% 이상이거나 최소한 총 임금의 80%가 내국인에게 지불되는 범위 내에서야 하며, 이때 관리직 등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인력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마. 노동 인력

도미니카공화국의 노동 인구는 330만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1/3이 서비스업, 그리고 그 나머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력 공급은 비교적 충분하나 숙련된 노동자나 기술직 감독계층의 노동자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바. 노조의 설립과 등록

현행 노동법은 노조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 노조설립 및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노동부가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것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조합원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기업 단위노조(Sindicato), 연맹노조(Federacion), 전국노조(Confederacion) 등으로 구분하며, 단위노조는 최저 조합원을 20명으로 하되 상주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을, 연맹노조는 최소 4개의 단위노조를, 전국노조는 최소 2개의 연맹노조를 설립요건으로 한다.

노조집행부는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 미만 5명, 200~400명 8명, 400명 이상 10명으로 각각 구성하며,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나 면직에 관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동부에 등록된 노조는 '05년 말 기준 약 4,000여 개에 이르며, 이들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직업노조, 기업노조, 사회운동단체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노조활동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노조간부 개인이나 일개 정치단체의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최근 노동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사. 노조 운동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1919년 북부 해안도시인 푸에르토블라타(Puerto Plata)에서 첫 노동자 단체가 결성되었고, 1920년 세계노동기구(ILO)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으며, 1930~60년 투루히요(Trujillo) 집권기간 노조운동은 초기에는 1943년 노조 운동의 합법화, 1945년 노동부 신설과 노조의 전국적 조직결성 합법화 등 법률과 제도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란 이후, 스페인 공화주의자들의 다수 이주하여 설탕 산업 노동조합을 결성, 최초의 파업을 일으킴에 따라 투루히요 정부는 노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을 시작하여 1961년 투루히요 사망 시까지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의 노동운동은 완전히 중단된 바 있다.

이후 1961년 FOUPSA, 1962년 FENAMA, FENEPIA, CASC등 공공부문과 종교계의 노조결성 등으로 노조운동은 잠시 활기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1963년 보쉬(Bosch) 진보정권의 붕괴와 1965년 4월 혁명, 미국의 침공 등에 이어 집권한 보수우익 발라게르(Balaguer)정부가 1966~1978년 집권기간 내내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 탄압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노동 운동은 지하로 숨게 되고, 급진 좌경 성향으로 발전하여 여러 정치단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1978년 도미니카혁명당(PRD) 집권 이후, 집권당의 성향에 관계없이 노동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다.

전국 노동자 연합(CNTD)은 '71년 설립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81개 연맹노조 총 15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현지 진출 우리기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자유무역지대 근로자 연맹(Federacion Nacional de Trabajadores de Zona Francas: FENATRAZONAS)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CIOSL(Confederacion Internacional de Organizaciones sindicales Libres)과 미주지역 ORIT 등 국제연맹에도 가입하여 있다.

특히 전국 54개 단위노조 7,5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근로자연맹(FENATRAZONAS)은 1991. 8월에 설립된 이래 보나오, 산페드로데 마코리스, 산티아고 등 3개 자유무역지대에 지점을 운영하는 등 연맹노조 중 조합원 규모 면에서 설탕 노조, 부두 노동자노조 등 전통적인 대규모 노조와 대등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미국의 UNIFE, AFL-CIO 등과 베네수엘라의 FITTVCC-ORI(Federacion Internacional de Trabajadoras del Textil, Vestido, Cuero y Calzado)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3년 12월까지 극심한 환율변동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47%나 감소하자 전국 노동자 연합(Confederacion Nacional de Trabajadores Dominicanos: CNTD)과 단위 노동자 연합(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Unitarios: CTU), 노동자 총 연합(Confederacion General de Trabajadores: CGT), 자유노조연합(Confederacion Autonoma Sindical Clasista: CASC) 등 4개 전국노조는 회합을 갖고 공동 대응했다. 국가 급여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급여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결정했었으며, 2007년의 경우 임금 인상률을 놓고 경총은 15%선을 제시하고, 노총은 25%선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소기업 연합회의 12% 이상 불가 선언이 나오는 등 임금 인상폭을 놓고 갈등이 깊어졌었다. 그러나 결국 15% 인상안이 타결되었으며, 매 2년마다 임금수준이 조정되는 관계로 2008년에는 공식적인 임금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8. 조세제도

가. 조세 체계

-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는 연방세로서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의 유통세(부가가치세 성격의 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음. 기타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 설립 및 증자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며 다자간 협상의제 가입국으로서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관세제도를 합리화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armonized System(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을 사용함.
- 과세대상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는 CIF 금액을 통관시점의 공식환율(Official rate of Exchange)을 적용하여 현지화인 RD\$로 환산하여 부과하며, GATT 규정을 준수하여 관세율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3%-35%의 관세가 적용되고 해당상품에 대해서는 유통세(부가가치세 성격, ITBIS)와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를 부과함.

나. 법인세

1) 법인 설립세

- 법인 설립 시 설립세(establishment tax)가 부과되며, Free Zone 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설립세가 면제됨.
- 설립세는 법령 3567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 규모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짐.
 - 주식이 RD\$10,000 이하: 주식의 1%
 - 주식이 RD\$10,000 초과 25,000 이하: 주식의 3/4%
 - 주식이 RD\$25,000 초과 50,000 이하: 주식의 2/4%
 - 주식이 RD\$50,000 초과 100,000 이하: 주식의 1/4%
 - 주식이 RD\$100,000 초과 500,000 이하: 주식의 1/8%
 - 주식이 RD\$500,000 초과 1,000,000 이하: 주식의 1/16%
 - 주식이 RD\$1,000,000 초과: 주식의 1/32%

2) 법인 소득세

- 세법(Fiscal Code)은 노동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 기준은 비용과 회계법상 규정하는 감면액을 공제하며,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내국인 법인은 물론 국내에 소재하거나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에 대해서 공히 25%를 부과함. (2004 년에 30%로 인상했다가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함)

다. 소득세

-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reside)하거나 주소를 둔(domiciled)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국적에 불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해외 직, 간접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음.
- 회계연도는 개인의 경우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간이며 기업의 경우는 마감일자를 3 월 31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등에서 선택할 수 있음.
-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며, 반대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개인은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3 년째부터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과함.
- 봉급자 개인 소득세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원천징수되며, 익년 3 월 15 일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함.
 - RD\$290,243.00 까지: 면세
 - RD\$290,243.01 ~ 435,364.00: RD\$290,243.01 초과분의 15%
 - RD\$435,364.01 ~ 604,672.00: RD\$21,769.00 + RD\$435,364.01 초과분의 20%
 - RD\$604,672.01 ~ 945,000.00: RD\$55,630.00 + RD\$ 604,672.01 초과분의 25%
 - RD\$945,000.01 이상: RD\$ 140,713.00 + 초과분의 29%

라. 유통세

-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지닌 유통세(ITBIS)는 1992 년 제정된 법령 11-92 와 그 개정에 의하여 16% 로서 월별 납부 형식으로 부과됨.
- 부과 대상
 - 수입 및 국산 공산품의 유통업,
 - 전화, 케이블, 텔렉스, CA TV, CC TV, Pager, 라디오 등 서비스업,
 - 식당, 찻집 등 요식업,
 - 숙박업,
 - 자동차 등 동산의 임대업,
 - 꽃꽂이업
-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0 일임. 예를 들어 1 월 ITBIS 의 납부는 2 월 20 일까지임.
- 평균 월수입 RD\$50,000 이하 또는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월수입 RD\$30,000 이하인 개인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이밖에 국산품이나 수입품으로서 일반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공정이 거의 없는 식품 등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신문용지, 서적, 유류 및 관련제품, 비료, 씨앗, 살서제, 컨테이너 등과 공공기관, 농축산부문, 자유무역 지대 등에서 사용될 기계와 장비 등은 유통세를 면제함.

마. 특별 소비세

-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에 대하여 제조와 수입단계에서 품목에 따라서 5-80%가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는 주류, 담배, 자동차, 장거리 전화, 항공권, 호텔객실료, 보험료 등과 보석, 금은제품, 요트 및 가정용품 등에 부과되며, 회계기간은 매월 1 일에서 마지막 날로 하여 월별로 납부함.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은행제도 관련 중앙기구로는 중앙은행(Banco Central), 금융위원회(Comision Monetaria),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있다.

중앙은행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목표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 화폐 발행, 자국 화 평가조정 등을 담당하며, 중앙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위원회는 중앙은행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외환 시장, 환율, 신용카드 발급, 구좌개설, 은행의 영업 활동 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은행감독원은 국내에 설립된 모든 은행을 감독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은행은 설립목적과 영업활동의 범위에 따라 상업은행, 개발은행, 저당은행, 신용금고 등 특수목적 은행과 영업활동 분야가 가장 광범위한 복합서비스 은행(Multiples Servicios)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92 년 복합서비스 은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상업은행이 복합은행으로 전환하였다.

나. 과실 송금

2003 년 Baninter 은행의 대규모 부도사태 이후 IMF 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에서 도미니카의 불건전한 은행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Leonel 대통령도 금융제도 개혁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감독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납부 여부 및 순수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다.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 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1) 신용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특별금융기관으로서는 개발은행을 들 수 있는데 이 은행은 농업, 관광 및 공업, 서비스 및 교통 산업 등에 대해 중장기 용자를 취급하고 있다.

다만 외국회사들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는 1년 이상 기간의 신용을 제공받지 못하며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등을 통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다.

2)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유무역지대 기업은 은행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채권발행을 하여 증권시장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증권시장은 1991년에 운영을 시작한 Bolsa de Valores de Santo Domingo(BVSD)의 17개 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된다. 중개인은 관계법에 따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BVSD 이외의 다른 미등록 중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만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거래소는 없는 상황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은 주식의 발행 및 판매만을 규정하며, 상법상 기업들은 채권이나 기타 증권 등을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특성

1) 전문 유통업 중심 대형매장이 주도

주요 유통업체의 형태로는 식품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슈퍼마켓, 의류 및 가정용품 중심의 대형 쇼핑센터와 쇼핑몰, 전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대형 철물점(Ferreteria) 등과 차량이나 기계, 발전기 등을 취급하는 전문판매장 등이 있다.

2) 공급자 중심의 시장형태

식품은 물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수요보다는 수입상이나 유통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은 규격이나 디자인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계절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3) 비교적 견실한 외화수입원 보유

도미니카 달러 수입원의 3대축은 Free Zone의 수출, 관광수입(연간 관광객 300만 명), 해외 교포의 본국 송금액(미국 ML 프로야구선수 및 미국교포의 연간 20~30억 달러 규모의 본국 송금액)으로 비교적 안정적 구조

4) 내국기업 위주의 불공정 대리점법

도미니카 국내기업이 수출업체와 수입 에이전트십 계약을 한 번 맺으면, 대법원 법규나 판례상 에이전트십 변경이 곤란하다.

5) 기타 참고사항

- 영사송장제도 폐지(불공정 관행)
 - 대 도미니카 수출 시 수출국 주재 도미니카 공관의 영사송장 수수료 부과
 - 건당 200~500 달러의 부과금은 수출국가의 최대 불만요인이어서 여러 차례 폐지를 검토했으나, 해외공관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속 유지하다가 2006.7.1 일부로 폐지
- 만성적인 전력 인프라 열악
 - 지난 30 여 년 간 전력 보조금, 전기세 납부를 저조, 배전업체 민영화 및 재 국유화, 정부의 전력정책 불확실, 화력 위주(비산유국, 고유가) 등 사유로 잦은 정전사태 지속 (서민 거주지의 경우 하루 평균 10 시간 정전 지속)
 - 도미니카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나. 소비 특성

- 가격을 가장 중시
 - 미국의 TV 광고가 케이블 TV 로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 이면서도 가격을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 품질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브랜드와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 특히 전기 및 철물제품이나 섬유원단 등 일상생활 관련 소비재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으므로 가격이 구매의사 결정 최대 포인트가 된다.
- 개인적 유대관계 및 A/S 중요
 -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담당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판매 후 사후관리가 보다 중요한 서비스나 내구성 소비재 등의 경우 개인적인 관계와 함께 A/S의 접근용이성이 중요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
- 소비 집중 성수기
 - 계절적으로는 12 월 25 일 크리스마스에서부터 1 월 6 일 Dia de Reyes Magos(동방 박 사일)를 전후로 11 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기업체 및 정부기관의 연말 법정 보너스 지급, 해외거주 자국민의 외화송금 등으로 약 2 개월여 동안 최고의 성수기 구가
 - 어머니날(5 월 마지막 일요일)이 있는 5 월 중에는 내구성 소비재는 물론 가정용품과 의류, 식음료 등 전 품목의 소비가 집중
 - 이밖에 2 월 14 일 발렌타인 데이, 7 월 마지막 일요일인 아버지날, 9 월의 신학기 초를 전후로 한 2~3 주 간은 의류, 문구류, 완구 등 선물용 상품의 소비가 급증

다. 시장 구조

- 상공업 기반이 밀집되어 있는 산토도밍고에는 총 인구의 30% 수준인 250 만 명이 거주하고 특히 구매력을 가진 중상류층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소비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 산티아고는 제 2 의 도시로 서북부 시바오 지역의 상공활동 중심지

- 시장 규모가 작고 유통업체의 취급품목이 매우 다양하여 상품판매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유통구조가 전문화되거나 계열화되지 못함.
- 전문 도매업자는 외판원을 고용,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 견본을 제시하고 수주를 받는 주문 판매제도 성행
- 식품은 물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수요보다는 수입상이나 유통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공급자 마켓 형태
-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은 규격이나 디자인 매우 한정, 계절적으로도 많은 차이

바. 마케팅 수단

- TV, 라디오, 신문 등이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맹률이 약 20%에 달해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활동에는 TV 나 라디오가 주로 사용된다.
- 다수의 국내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판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약 50~100 개사가 참가하는 소규모로 개최
- 외국기업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나 내수 판촉 수단으로 활용

마. 수입상품 유통구조

다품종 소량거래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져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보다는 마이애미, 뉴욕, 파나마 등 인근 대도시 시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현찰로 직접 구매하는 보따리 장사나 소량 주문을 콘솔하는 에이전트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주재국의 대리점 계약법은 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수입업자들이 동종 업종의 많은 국내외 공급업체와 대리점 계약 체결 신규거래 시 시장독점을 위하여 대리점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유통단계는 일반소비재는 수입(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로, 자본재나 원자재는 수입업자-실수요자로, 내구성 소비재는 Dealer-Subdealer-소비자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컨테이너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입상이나 대형 유통업체, 도매상 및 일부 소매상도 직수입하는 경향이 있다.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비교적 높아 수입업자 30~50%, 도매업자 25~40%, 소매업자 30~50% 수준이며, 거래대금 지불은 일반적으로 30~60 일간의 신용이 제공되며, 대량구매 또는 현금 지불 시에는 최고 40%까지 가격 할인을 하는 관행이 있음.

2. 물가정보

가.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 기초 통계 자료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명목 1 인당 GDP (USD)	2,326	2,459	3,743	3,903	4,406
명목 물가 상승률 (%)	42.7	28.7	7.4	5.0	8.9
명목 임금 상승률 (%)	-	30.0	-	-	15.0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30.94	40.74	30.17	33.08	33.36

나.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 물가정보(1 USD = 33.8 DOP)

번호	항 목	가격(USD)
1. 식재료		
1.1	쌀 1kg	1.30
1.2	밀가루 1kg	1.27
1.3	백설탕 1kg	0.98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1.18
1.5	계란 12 개	1.92
1.6	햄 1kg	5.86
1.7	베이컨 1kg	11.72
2. 육류		
2.1	쇠고기 등심 1kg	6.18
2.2	쇠고기 안심 1kg	6.18
2.3	돼지고기 목살 1kg	6.18
2.4	돼지고기 등심 1kg	6.83
2.5	닭고기 가슴살 1kg	4.88
3. 어패류		
3.1	냉동새우(중간크기) 1kg	7.16
3.2	대합조개 1kg	7.69
3.3	연어(생) 1kg	3.58
3.4	냉동참치 1kg	11.54
4. 낙농품		
4.1	우유 500ml	2.87
4.2	요거트 150g	0.59
4.3	치즈(슬라이스) 500g	3.40
4.4	버터 500g	7.10
4.5	마가린 500g	2.07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2.63
5. 유지		
5.1	식용유 1L	2.13
5.2	올리브오일 1L	11.19
6. 과일		
6.1	사과 1kg	1.42
6.2	오렌지 1kg	0.59
6.3	레몬 1kg	1.30
6.4	바나나 1kg	0.92
7. 채소		
7.1	양배추 1kg	2.48
7.2	양상추 1kg	1.30
7.3	당근 1kg	1.27
7.4	양송이 버섯 1kg	11.72
7.5	감자 2kg	3.25
7.6	양파 1kg	2.60
7.7	토마토 1kg	1.45
8. 과자 및 당류식품		
8.1	스낵과자 130g	0.44
8.2	초콜릿 100g	0.97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3.49
9. 음료		
9.1	탄산음료 250ml 캔 6 팩	5.03
9.2	생수 1L	0.44
9.3	오렌지쥬스(100%) 1L	1.95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
9.6	인스턴트커피 125g	4.82
9.7	Ground 커피 500g	2.51
9.8	홍차 티백 25bags	2.25
9.9	코코아 250g	0.92
10. 주류		
10.1	맥주 355ml 캔 6 팩	8.79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 병	32.54
10.3	와인 750ml	26.63
11. 담배		
11.1	담배 1 갑	1.18
12. 패스트푸드		
12.1	햄버거 1 개	3.70
12.2	치킨 런치세트 1 개	4.88
12.3	치즈피자 라지 1 판	13.61
13. 잡화		
13.1	치약 150g 1 개	2.75
13.2	샴푸 400ml	3.99
13.3	칫솔 1 개	3.31
13.4	화장비누 1 개	1.94
13.5	면도기 1 개	10.80
13.6	전기 면도기	64.36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3.70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1.30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14.80
13.10	세탁용 세제 3L	2.84
13.11	섬유 유연제 1L	2.07
13.12	주방용 세제 750ml	4.61
13.13	살충제(스프레이 식) 330g	2.96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10.77
14. 의류 및 신발		
14.1	남자정장	372.09
14.2	여자정장	710.01
14.3	여성핸드백	-
14.4	아동복	-
14.5	청바지	58.44
14.6	남자코트	-
14.7	여자코트	-
14.8	티셔츠	44.39
14.9	신사화	-
14.10	숙녀화	94.54
14.11	드라이크리닝(정장 한 벌)	10.36

15. 가구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532.47
15.2	침대 쿼 사이즈 매트리스	739.60
16. 의료비		
16.1	의료보험료 4 인가족 1 년	710.16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73.98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14.80
16.4	진통제 10 정	4.44
16.5	해열제 100 정	8.88
16.6	흉부 x-ray 비용 1 회	25.15
16.7	치과 방문 1 회(스켈링 1 회)	59.18
16.8	제왕절개수술	1,923.35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17.1	경승용차 900-1299cc	7,989.30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14,515.67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38,774.74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46,629.11
17.5	초대형 3500cc 이상	115,356.62
17.6	무연휘발유 1L	0.92
17.7	LPG(단위부피 당)	0.44
17.8	경유 1L	0.68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159.08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355.08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437.93
17.12	엔진 오일 1 회 교체 비용	23.38
18. 교통비		
18.1	도심 1 시간 주차료	1.78
18.2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0.59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0.44
18.4	택시 기본요금	3.55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홍정
18.6	철도이용료(100km)	-
19. 통신이용료		
19.1	전화개통비 1 회선	22.19
19.2	전화사용료 월 기본요금	23.38
19.3	전화요금(시내) 3 분	0.15
19.4	국제전화 3 분	2.66
19.5	휴대전화개통비	28.11
19.6	휴대전화사용료 월표준 1 분	0.08
19.7	인터넷가설비 (최소 DSL)	13.32
19.8	인터넷 월사용료 (최소 DSL)	20.57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0.89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3.55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33.64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m ²	1,154.01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m ²	1,331.55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

	(단독주택)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200%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65.10
20.6	가정용 가스요금 m ³	0.53
20.7	가정용 수도요금 m ³	8.88
20.8	케이블 TV 1 달(기본)	22.19
21. 가전제품		
21.1	LCD TV 40 인치	2,059.32
21.2	DVD Player 범용형	372.71
21.3	냉장고 600 리터 급	1,035.50
21.4	세탁기 10kg (드럼형)	471.96
21.5	전자렌지 20 리터급	133.01
21.6	에어컨	1,153.86
21.7	토스터기 1 개	29.44
21.8	식기세척기 24 인치(폭)	1,035.50
21.9	데스크탑 본체	1,072.64
21.10	노트북	976.47
21.11	컴퓨터 프린터기	41.43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22.1	복사용지 1 권 250 매 (A4 또는 Letter Size)	5.18
22.2	개봉극장 입장료 1 회 (성인)	4.44
22.3	DVD 타이틀 1 개 (신작)	44.24
22.4	공연 best seat (유지컬, 대형극장)	103.57
22.5	도서 1 권 (신작 소설)	17.61
22.6	CD 앨범 1 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23.52
22.7	해당국 유력 일간 신문 1 년 구독료	102.09
23. 교육		
23.1	유치원 수업료 1 년(사립)	798.93
23.2	초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429.20
23.3	중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600.82
23.4	고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776.88
23.5	국공립 대학교	8.88
23.6	사립 대학교	1,079.30
23.7	전문대학	818.16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 년	5,418.52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 년	6,529.33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 년	6,315.10
24. 외식 및 숙박		
24.1	패밀리레스토랑 4 인	110.96
24.2	특급 호텔(5성급) 1 박	198.84
24.3	중급 호텔(3성급) 1 박	74.57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34.03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13.32
25. 스포츠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44.39
25.2	골프공 1 다스(12 개)	51.70
25.3	피트니스 클럽 1 년 이용료	514.87

26. 임금		
26.1	사무직 일반 초임 (대졸)	532.62
26.2	사무직 비서 초임 (대졸)	414.26
26.3	생산직 일반 초임 (학력무관)	355.08
26.4	가정부 시간 당 임금 (주중)	1.18
26.5	베이비시터 시간 당 임금 (주중)	1.48
27. 이미용 서비스		
27.1	여성 헤어컷 1 회	35.51
27.2	남성 헤어컷 1 회	23.67
28. 화장품		
28.1	바디로션	4.88
28.2	영양크림	70.87
28.3	스킨로션	47.20
28.4	밀크로션	47.20
29. 관공서 요금		
29.1	여권 발급 비용	36.63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비용	40.83
30. 노동환경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44 시간
30.2	출산휴가일수	90 일
30.3	연간 국경일수	15 일
30.4	토요휴무제	시행

* 비교

9.1	325ml
9.4	현지미진출
9.5	현지미진출
10.2	12 년산
13.10	1Kg
13.13	250cc
14.1	유사제품
14.10	유사제품
16.8	무보험 기준, 보험적용은 \$355.08
19.6	월기본료 \$35.51
20.3	임대주 부담
20.5	월평균
20.7	월평균
23.5	1 학기당, 사립고졸업자 기준
23.6	1 학기 기준
23.7	1 학기 기준
30.4	서비스업은 토요일 오전근무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무역관련 정부기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상공부(SEIC: 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전화: (1-809)685-5171
 - 팩스: (1-809)686-1973
 - 수출입 업체 정보
- 수출투자 진흥청(CEI-RD: Centro de Exportacion e Inversion)
 - 전화: (1-809)530-5505
 - 팩스: (1-809)530-8208
 - 인콰이어리 정보, 수출입업체 정보
- 관세청(DGA: Direccion General de Aduana)
 - 전화: (1-809)688-7070
 - 팩스: (1-809)689-0385
 - 수출입 업체 정보
- 수출자유공단 관리청(CNZFE: Consejo Nacional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 전화: (1-809)686-8077
 - 팩스: (1-809)686-8079
 - 대표: Ms. Luisa Fernandez Duran 청장

2) 각종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전경련(CONEP: Consejo Nacional de la Empresa Privada, Inc.)
 - 전화: (1-809)472-7101
 - 팩스: (1-809)472-7850
 - 현지 기업 명단
- 산티아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iago)
 - 전화: (1-809)582-2856
 - 팩스: (1-809)241-454
 - 산티아고 회원 업체 정보
- 호텔식당 협회(ASOHAHORES: Asociacion Nacional de Hoteles, Restaurantes, Inc.)
 - 전화: (1-809)540-4676
 - 팩스: (1-809)540-6753
 - 호텔, 관광업, 요식업 회원 업체 정보
- 섬유산업 협회(Asociacion Dominicana de Industrias textiles, Inc.),
의류제조업 협회(Asociacion de Fabricantes de Ropas de la Rep. Dom., Inc.)
 - 전화: (1-809)472-2255
 - 팩스: (1-809)472-2299
 - 섬유 및 의류업체 정보
- 금속철강산업 협회(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s Metalmeccanicas y Metalurgicas, Inc.)
 - 전화: (1-809)686-0078
 - 팩스: (1-809)687-5969
 - 금속 및 철강산업 업체 정보
- 가구·침구산업 협회(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les de Muebles, Colchones y Afines, Inc.)
 - 전화: (1-809)686-3242
 - 팩스: (1-809)688-4180
 - 가구 및 침구산업 업체 정보
- 자동차 디스트리뷰터 협회(Asociacion Nacional de Agencias Distribuidoras de Vehiculos, Inc.)
 - 전화: (1-809)532-6056
 - 팩스: (1-809)532-8330
 - 자동차 수입 분배상 정보
- 중고 자동차 수입 협회(Asociacion de Importadores Vehiculos Usados)
 - 전화: (1-809)221-4560
 - 팩스: (1-809)688-1944
 - 중고자동차 수입상 정보

3) 전시회 주최기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Expo-Cibao 종합 박람회
 - 전화: (1-809)226-5555
 - 팩스: (1-809)226-5050
 - 박람회 참가업체 및 산티아고 지방 업체 정보

- Compu Expo 전자통신 박람회
 - 전자통신 업체 정보
 - => 2008년부터 기술박람회(TECDO)로 흡수되어 대규모 개최
 - 전화: (1-809) 738-3710
 - 팩스: (1-809) 738-3711
- Construexpo 건축산업 박람회
 - 전화: (1-809)549-6087
 - 팩스: (1-809)549-5883
 - 전시회 참가업체 및 건축자재관련 업체 정보

4) 전화번호부 및 Yellow Pages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전화번호부(Directorio Telefonico Comercial)
 - 전화: (1-809)728-2222
 - 팩스: (1-809)414-8093
 - 업체 연락처 정보
- Yellow Pages(Paginas Amarillas)
 - 전화: (1-809)220-3100
 - 팩스: (1-809)541-0902
 - 업체 연락처 정보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무역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DB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상공부(SEIC: 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웹사이트: www.seic.gov.do
 - 수출입 업체 정보
- 수출투자 진흥청(CEI-RD: Centro de Exportacion e Inversion)
 - 웹사이트: www.cei-rd.gov.do
 - 인과이어리 정보, 수출입업체 정보
- 관세청(DGA: Direccion General de Aduana)
 - 웹사이트: www.dga.gov.do
 - 수출입 업체 정보
- 수출자유공단 관리청(CNZFE: Consejo Nacional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 웹사이트: www.cnzfe.gov.do
 - 대표: Ms. Luisa Fernandez Duran 청장

2) 각종 협회 홈페이지 및 DB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전경련(CONEP: Consejo Nacional de la Empresa Privada, Inc.)
 - 웹사이트: www.conep.org.do
 - 현지 기업 명단

- 산티아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iago)
 - 웹사이트: www.camarasantiago.org
 - 산티아고 회원 업체 정보
- 호텔식당 협회(ASOHAHORES: Asociacion Nacional de Hoteles, Restaurantes, Inc.)
 - 웹사이트: www.drhotels.com
 - 호텔, 관광업, 요식업 회원 업체 정보
- 가구·침구산업 협회(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les de Muebles, Colchones y Afines, Inc.)
 - 웹사이트: www.asonaimco.org
 - 가구 및 침구산업 업체 정보

3) 전시회 주최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Expo-Cibao 종합 박람회
 - 웹사이트: www.camarasantiago.org
 - 박람회 참가업체 및 산티아고 지방 업체 정보
- Construexpo 건축산업 박람회
 - 웹사이트: www.construexpo.com
 - 전시회 참가업체 및 건축자재관련 업체 정보

4) Yellow Pages 홈페이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Yellow Pages(Paginas Amarillas)
 - 웹사이트: www.superpagesdr.com
 - 업체 연락처 정보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T/T 또는 D/A, 오픈 크레딧 등 선호
 -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미화수표 또는 미국 내 은행을 통한 T/T 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보통 50% 선수금+선적 시 50%
 - 유럽 및 미국의 거래선과 오랫동안 외상거래(D/A 90 일-120 일)를 해온 관습으로 소량 오다 수주를 기피하거나, 대금지불 수단으로 신용장을 고집하는 경우 상담추진이 중단 될 위험이 높음.
 - 대기업의 경우 일람불 L/C 거래에 큰 저항감은 없으나 중소 수입상은 기피 경향
- 보수적인 거래성향
 - 현지의 수입업자들은 도미니카인, 레바논계, 스페인계 등이 많고 군부통치시절(1930-61)을 거친 결과 거래내용에 대한 대외 공개를 기피하여, 거래선 전환에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남아있고 사무실이나 공장의 간판사용이 제한적임.

○ **다혈질이나 느긋한 일처리**

- 문화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주의적이며, 대체로 말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상담 시 자기주장만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내 필요
- 다혈질이어서 운전 시 거칠고 좀처럼 양보하는 법이 없음.
-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며 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를 강요하면 거부감을 주므로 인내심을 갖고 거래에 임해야 함.
- 바이어와는 사전약속을 하여 상담을 갖는다.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심적인 대비를 한다. 첫 대면 시 좋은 인상이 매우 중요함.

○ **상담준비 철저/ 인사치레 구두약속**

- 현장에서 즉석 오파가 가능하도록 상담자료 충분히 준비. 상담자료 부족으로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바이어로 하여금 불신감이 들게 함.
- 바이어가 상담 시 면전에서 인사치레로 쉽게 연질을 주는 경우가 많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어 구두 약속 과신 금물.

○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

- 역사적으로 인근 아이티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바 있어 아이티에 대해서 은근히 반감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미주 대륙 최초의 도시이자, 카리브 최고의 관광대국이며, 세계적 야구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다. 야구, 태양, 해변, 미주대륙 최초의 대학 UASD(산토도밍고 국립자치대)나 최초의 거리(Las Damas), 그리고 도미니카인의 대표적 향락문화인 메렝게 등을 상담 전 화제로 올리면 서먹서먹한 분위기 해소에 도움이 됨.
- 상담 시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대화 주제
- 도미니카 공화국은 야구 강국답게 전 국민이 야구를 좋아함. 미국 메이저리그에 수많은 선수 진출. 대표적인 예가 Sammy Sosa, Alex Rodriguez, Pedro Martinez 등. 한국도 야구 강국이므로 대화 풀어가기 용이
- 도미니카공화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카리브의 대표적 관광국으로서 아름다운 해변과 날씨도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소재임.
- 도미니카는 콜롬버스가 가장 사랑한 나라이자, 라틴 댄스 중 메렝게의 원산지이다. 쿠바의 살사, 브라질의 삼바, 아르헨티나의 탱고, 푸에르토리코의 레게라 이야기할 수 있다.

나. 주의법규 및 규정

- 국내외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대리점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므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 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함.
- 국제간 물품거래에 관한 제도의 미비로 상사 분쟁사항을 일반 사설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 공식적인 상사분쟁 해결기관과 제도가 없음.

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 및 경쟁력

- 버스 및 승용차, 중장비, 가전제품 등 대기업 제품이 대리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 결과 한국상품에 대해서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가격 및 품질 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인지도 형성
- 특히 2007 년 10~12 월 현지 37 번 TV 방송국(CDN)의 Marketing World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한 차례씩 한국 상품, 산업이 소개된 바 있음.

- 미국이나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등 제 3 국을 경유하여 한국산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수입상과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과의 직수입 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이 도미니카공화국산 제품의 제 2 위(2006 년) 내지 제 3 위(2007 년) 수입국이라는 점도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
- 중국산 제품은 품질상 문제점이 자주 제기되고, EU 산 제품의 경우 유로화의 초강세로 가격이 높아진 점은 한국산 시장개척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
- DR-CAFTA 발효(2007.3.1 부)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점과 EU-카리브 EPA(경제자유구역협정) 발효(2008.1.1 부)로 EU 산 제품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 DR-CAFTA 발효 이후 한국산과 미국산의 경쟁 시장 변화
- 한국의 수출 품목 1 위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는 2011 년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현행 20%관세가 그대로 부과됨.
- 수출 2 위 품목인 직물류는 미국산에 한해 8%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면제되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의 경우 미국산 제품은 협정 발효 시점부터 즉각 관세 면제.
- 타이어는 기존 14%인 관세가 10 년에 걸쳐 인하, 자동차 부품은 5 년에 걸쳐 약 8%가 인하, 배터리(연축전지)는 14%인 관세가 5 년에 걸쳐서 인하됨.

라. 효율적인 마케팅

- 도미니카공화국은 Ferreteria 라는 대형유통점(일반 식품을 제외하고 철물, 기, 플라스틱, 공구, 의약품 등 거의 모든 상품을 코너별로 구분하여 운영)이 슈퍼마켓과 함께 유통을 주도하는 바, 동 Ferreteria 를 통한 시장개척활동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종합 카탈로그를 준비하여 상담하는 Package Deal 필요
- 이들이 수입 및 도소매하는 패턴도 다품종 소량 구매가 일반화 되어 있음.
- 기계류 실수요자들은 수요 주기가 일반적으로 길고 거래단위가 비교적 커서 신규 거래 선보다는 제품과 A/S 에 대한 신뢰가 쌓인 고정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능력이 있는 전문딜러 선정이 중요
-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제공 및 상품 발표회 개최 등의 활동 필요

마. 상거래 체크포인트

1) 문화적 금기사항

- 인종적인 차별을 나타내는 어휘 또는 농담을 삼가는 것이 좋다.
- 현지 수입업자들을 출신별로 분류하면 도미니카인, 레바논계, 스페인계로 나눌 수 있는데, 도미니카인의 경우 제조업에 많이 투자해 원자재 및 기자재의 수입이 많으나 레바논계 및 스페인계 수입상은 완제품 수입판매에 치중하며 자기 이익 보호에 끈질긴 측면이 있다.

2) 수입 관행

- 4만여 교민이 거주하는 대만 및 중국교포를 제외하고는 미국 및 EU와 주로 거래를 해온 탓에 우리나라는 물론 동남아국과의 거래경험이 있는 수입업자가 극히 드물었으나, 주재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수입업자의 아시아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과표액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입통관 서류 중 Invoice상 금액을 과표액으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대금지불도 차액만큼은 대금지불을 미화수표 또는 미국 내 은행을 통하여 T/T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및 미국의 거래선과 오랫동안 외상거래를 해온 관습으로 소량 오다 수주를 기피하거나, 대금지불 수단으로 일람불 신용장을 고집하는 경우 상담추진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3) 거래 시 주의사항

- 도미니카(공)의 대리점계약법은 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수입업자들이 동종 업종의 많은 국내외 공급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신규 거래 시 시장독점을 위하여 대리점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일단 체결되어 등록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계약의 해지는 물론 갱신은 계약서 조항에 별도 명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 의사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계약기간에 비례한 영업수익과 투자자본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 기계류 실수요자들은 수요주기가 일반적으로 길고 거래단위가 비교적 커서 신규 거래선보다는 제품과 A/S에 대한 신뢰가 쌓인 고정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별 방문 판매능력이 있는 전문 딜러를 선정해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상품 발표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수출촉진에 매우 주효할 것이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에 대한 Loyalty가 매우 높아 미국의 거래선과 공동으로 중미카리브 지역 진출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개발 및 판촉활동 전개로 중고가 시장창조 및 진출확대가 기대된다.

4) 비즈니스 에티켓

- 현지의 수입업자들은 과거 30여 년간 군부통치 시절(1930-1961)을 겪어 정부에 대한 피해 의식이 남아있어 거래 내용에 대한 대외 공개를 기피하여, 거래선 전환에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남아 있다. 사무실이나 공장의 간판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첫 상담 시 명함 제시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 바이어와는 사전약속을 하여 상담을 갖는다.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심적인 대비를 하고, 첫 대면 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카탈로그 등 상담자료는 물론 오파를 충분히 준비하여 현장에서 제공함으로써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인사 소개 및 호칭에 대한 이해

- 도미니카 공화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첫 대면 시 악수를 청하며 명함을 주고 받는다. 호칭은 성명 앞에 남자인 경우는 세놀(SEÑOR), 여자에게는 세뇨리타(Senorita)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 명함에 리센시아도(Licenciado/문과계 학사) 또는 잉헤니에로(Ingeniero/이과계 학사) 등이 붙어있으면 이 칭호로 불러주는 것도 좋다. 이 호칭에는 대학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자신이 중퇴자가 아니고 졸업을 하여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도 30~1시간 정도 늦기가 일쑤이며 상대방이 재촉하여도 본인은 느긋한 것이 도미니카 문화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바이어들도 점차 늘어나 의식의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나 약속을 잡을 때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좋다. 바이어가 약속시간에 늦을 때에도 불쾌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 주요 음식 및 주류에 대한 이해

-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망구(Mangu)이다. 도미니카인들의 주식인 바나나 모양의 푸른색 플라타노(PLATANO)를 삶아서 으깨 놓은 것으로 계란 및 고기, 양파튀김 등이 함께 나온다. 고기가 들어간 걸쭉한 수프로 주말 음주가무에 지친 간장 해장을 위해 주로 월요일 중식 메뉴로 자주 등장하는 산코초(SANCOCHO)도 빼놓을 수 없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 흰밥과 약간 간이 되어 있고, 아비추엘라라는 팥물을 들어 팔 색깔이 나며, 콩과 잘게 다진 약간의 고기가 들어간 모로(Moro)라는 이름의 쌀밥이 도미니카 국민의 주된 일상 식단이다.
- 또한 닭튀김을 매우 좋아하며 튀긴 생선도 즐겨 먹는다. 튀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비만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국민의 비만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후식을 함께 해야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며, 후식으로는 달콤한 케이크나 푸딩, 카라멜과 크림을 곁들인 과일을 주로 먹는다.
- 도미니카 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류는 럼주인 론 바르셀로(ROÑ BARCELO)이다. 론 바르셀로는 193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다른 럼보다 더 자연적인 증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또 다른 럼인 브루갈(BRUGAL) 역시 도미니카 인들에게 인기 있는 주류이며, 188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푸에르토 플라타(PUERTO PLATA)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베르무데스라는 럼주도 있으나 큰 인기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럼에 콜라를 타서 마시는 쿠바 리브레(CUBA LIBRE)도 도미니카인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이다.
-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주이다. 맥주 중에는 프레시덴테(PRESIDENTE) 맥주가 가장 유명하며, 무더운 날씨 탓에 알코올 6도의 시원한 맥주가 무더위와 갈증을 단번에 해소시켜주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5) 상담 시 유의할 점

- 문화·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주의적이며 자존심이 강한 반면에 합리적인 사고도 갖고 있고, 대체로 친절한 편이나 순박하기보다는 다소 약삭 빠른 면도 있다. 대체로 말하기를 매우 좋아하며 상담 시 자기주장만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발적인 동의를 유도하도록 상담을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제도가 없이 일반 사설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상사분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 도미니카공화국은 심각한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잦은 정전으로 통신 중 장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수입상과의 교신은 주재국의 일과시간(한국시간 21:00-07:00)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분쟁 해결 절차 미흡

도미니카공화국은 1996년 제 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아직 법적인 제도 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보고한 적이 없다.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한제한과 관련해서는 2001.12.11일 관련 협정을 비준하였으나 그때까지도 국내 법규는 완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미 5개국과 연계된 미국과의 FTA(DR-CAFTA)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측으로부터의 각종 법률안 정비 요청사항 중에 분쟁해결 부문도 들어가 2006년에 이에 대한 법률정비가 추진되고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통상 국가 간 무역분쟁은 상공부(SEIC)가 관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 간의 무역 분쟁은 주재국의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사자가 직접 구제하는 형태로 관행화되어 있다. 현지 소송에 의한 재판의 경우 소송서류를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대체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효력에 문제가 있다.

1) 주재국 주요 법률사무소(변호사)

- Columna y Asociados, C. X A.
 - 담당자: Dr. Carlos Almonte
 - 주소: C/C #9, Ensanche Pianteni, Santo Domingo
 - 전화: 1-809-502-1947
 - 팩스: 1-809-562-2694
 - 이메일: oficolumna@codetel.net.do

- Gomez & Ciccone
 - 담당자: Fernando Ciccone Perez
 - 주소: Ave. 29 de Febrero 266, Santo Domingo
 - 전화: 1-809-732-2600
 - 팩스: 1-809-732-2595
 - 이메일: racigo@codetel.net.do.
- Olivero Rodriguez Asociados
 - 담당자: Mr. Manuel Olivero Rodriguez
 - 주소: Ave. Abraham Lincoln Esq. Paseo de Locutores, Plaza Francesa, 2do. Nivel, Suite 221 y 334 A, Santo Domingo
 - 전화: 1-809-566-9939
 - 팩스: 1-809-412-1098
 - 웹사이트: www.olivero.com.do
- Pellerano & Herrera
 - 담당자: Dra. Flavia Baez
 - 주소: Ave. John F. Kennedy 10, Santo Domingo
 - 전화: 1-809-541-5200
 - 팩스: 1-809-567-0773
 - 이메일: ph@phlaw.com

나. 유형별 분쟁 사례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분쟁해결에 대한 법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발생 시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분쟁 발생으로 현지 소송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서류를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대체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효력에 문제가 있어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1) 유형별 분쟁사례

□ 무역 클레임 분쟁

- 중고 차량 품질 하자 클레임건
 - 한국의 중고차 수출업체 S사와 현지 수입상 사이에 발생한 무역 클레임건으로 수입상은 선적된 중고차의 15%가 정도가 하자가 있어 인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수출업체는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경기 악화로 차량에 하자가 없는데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면 분쟁이 발생했다.
 - 한국의 수출업체가 현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여 물품에 대한 하자를 조사한 결과, 수입상이 주장한 15%가 아닌 약 5% 정도의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변호사의 중재 하에 소송까지 발전하지 않고 수출상에게는 5%에 대한 대금할인 조치를, 수입상 측은 대금 상환계획을 제출하여 자체 해결했다.

□ 수출대금 미결제 분쟁

○ 건축자재 수입대금 미결제 분쟁

- 한국의 건축자재 수출업체와 수입상과의 수입대금 미결제 분쟁 건으로, 한국 업체는 바이어 요구대로 정상적으로 수출해 수입상이 인수했으나 수입상이 현지 환율 변동, 경기악화, 영업부진, 재정상태 악화 등 온갖 핑계를 대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한국의 수출업체가 변호사를 물색하여 소송 제기
- 그러나 현지 변호사가 수입상에 대한 영업 및 재정상태를 확인한 결과, 수입상이 실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의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수입상에게 대금결제기간을 중장기로 연기시켜 상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출상이 받아들여 자금상환계획에 양측이 사인해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 대리점(독점 에이전트십) 변경 관련 분쟁

○ 자동차 독점 에이전트십 변경 관련 분쟁건

- 한국의 자동차 수출업체가 현지 독점 에이전트의 판매실적 저조 및 능력 부족으로 에이전트십을 변경하려고 본사 총무팀의 법률 검토 및 현지 변호사를 물색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이 사실을 안 수입 에이전트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했다.
- 도미니카공화국 대리점법(법률 173 호, '66.4.6)은 국내외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대리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에 별도 명기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갱신이 불가능하다. (국내 업체의 현지 대리점 업체 최초 선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임)
- 특히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일단 에이전트가 정해진 경우 에이전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한 에이전트의 변경은 법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수출회사도 어쩔 수 없이 에이전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상표권 등록 관련 분쟁

○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상표 등록 분쟁 건

- 수출상이 지속 거래해 오던 현지 수입상이 자기 상표로 등록해 놓았다는 주장을 듣고 현지 상표 등록 여부 확인 후 수입상과 분쟁 발생
-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상표 및 상호는 산업재산관리사무소(ONAPI)에 선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및 상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한국 수출상이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선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보 게재 후 45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유효기간 10년 간은 법률상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소송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다. 수입 상품 무작위 심사 강화

1) 언더밸류 의심 시 인보이스 가액 불인정, 자체 기준에 따라 관세 중과

- 도미니카 공화국 세관이 최근 들어 수입상품 무작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도미니카공화국 세관은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경우 수입상이 제시하는 인보이스상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저가격 기준에 의거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통관 시 수입상들에게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의 A사로부터 한국산 제품을 꾸준히 수입해 오던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상 B사는 2007년 2월 물품 도착 통지를 받고 동 제품 통관수속을 위해 세관에 갔다가 평소 부과 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관세액이 산정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 최근 3개월간 매월 1컨테이너씩 인보이스상 유사물량 및 유사금액으로 3회에 걸쳐 물건을 들여왔는데, 2006년 12월이나 2007년 1월 통관 당시에는 관세 부과액이 미화 12,00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통관에서는 무려 32,000달러로 관세가 산정된 것이다.
- 엄청난 관세 부과에 따른 자금상 애로사항 때문에 물품을 적기에 찾지 못하고 시일을 끄는 경우 디머리지(컨테이너 유치료/Demurrage)에다 항만관리당국에서 부과하는 벌과금까지 추가로 물게 되어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한편 같은 제품이라 해도 현지에 기 등록된 브랜드가 아닌 여타 브랜드로 들어올 때에는 값이 보다 비싼 신제품으로 평가되어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 예컨대 현대 승합차량인 그레이스는 H100 이라는 현지 등록 브랜드를 달고 수입 신고되나, 중고차의 경우 한국에서 쓰던 그레이스 브랜드 그대로 신고되어 들어왔을 때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H100보다 더 비싼 차량으로 간주해 관세도 더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다.
- 관세가 높게 책정되면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물품유통세(ITBIS/부가가치세/16%) 부담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수입상의 부담 가중 요인이 된다.

2) 배경 제도 개요

-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7월부터 WTO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등 특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과세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Undervalue를 통한 관세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 자동차는 자동차 수입업자 협회에서 사전 제출한 모델·연식별 기준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일반상품은 주요국의 물가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되, 리스트 외 상품은 첫 수입 신고 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 세관에서 국제 유관 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자체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동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 적용 대상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HS 코드	품명
0402 21 10	쌀
1006 30 00	우유, 크림제품
2523 10 00	시멘트 클링크
2523 29 00	포클랜트 시멘트 기타
2710 00 79	윤활유
3923 90 00	플라스틱 용기 기타
3926 90 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012 20 00	중고 타이어
4818 40 90	화장지, 기저귀, 기타위생용품
6908 10 00	타일, 큐브 7센티 미만
8415 81 00	에어컨
8450 11 00	완전자동 세탁기
8517 11 00	유선 전화기
8528 12 00	컬러 텔레비전
8703 22 99	중고자동차 1,000~1,500cc
8703 23 19	중고자동차 1,500~1,800cc
8703 23 98	중고자동차 1,800~3,000cc
8703 24 99	중고자동차 3,000cc 이상
8703 31 99	중고 디젤 자동차 1,500cc 이하
8704 21 10	5톤 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4 22 90	5톤 이상 20톤 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3 31 10	5톤 이하 중고 일반화물차
8704 32 20	5톤 이상 중고 화물차
8711 20 19	50~150cc 중고 오토바이

3) 정보 분석 및 시사점

- 언더밸류를 통한 관세 포탈 방지를 명분으로 1987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영사송장 제도가 2006년 7월 1일부로 폐지된 이래 언더밸류 관행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세관의 통관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 수입품에 대한 세관 심사는 무작위 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한두 번 언더밸류가 통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무사통과 할 수는 없으므로 언더밸류 시정 등 수입통관 지체에 따른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상의 경우 정식 인보이스 외에 물품 가액이 적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수출상에게 별도로 요구해서 여기에 더욱 다운밸류된 금액으로 채워 넣은 후 수입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라. 선박 운임 정당성 세관 신고 의무화

2007 년 중 한시적 제도이나 향후 언제든 비상 발동 가능성 남아 이에 대한 대비 필요

1) 정보 요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정당한 선박운임 세관신고가 의무화됨.

동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도미니카 관세청이 수입상에 대해 최근 2 년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반입된 물품을 선적해 들어올 당시 선박운임이 정당하다는 증빙자료를 60 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2007.7.16 일 발동함.

관세청에 의하면, 60 일 기간(2 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운임신고가 안 된 수입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임을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운임과 당시 신고된 운임간 차액과 벌금을 별도 징수할 계획임.

2) 정보 배경 분석

동 조치는 법률 146-00 호에 근거해 발동했으며, 2007 년도 상반기 중 발생한 세관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세수 증대 목적과 선박운임 언더밸류라는 불공정 관행 타파를 통한 시장경쟁질서 바로잡기라는 목표 하에 이루어짐.

2007 년 1/4 분기 중에만 세관수입이 14 억 페소(약 4,400 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은 미국·중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2007.3.1 부)에 따른 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분과 지난해 6 월까지 징수해 오던 환전수수료(Comision Cambiaria)가 폐지된데다 또 다른 수입원이었던 영사송장제도(Factura Consular)도 폐지된 점 등이 주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3) 시사점

무역관이 접촉한 관세청 담당자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최근 2 년간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나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선박운임을 언더밸류할 경우 결국에는 동 차액은 물론 벌금까지 물게 됨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수입상이 언더밸류를 요구해 오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망됨.

한편 수입상이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해 오는 경우 지속적인 고객 관리 차원에서 선박 운임의 정당성을 투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자료 제공에의 협조도 요망됨.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교포 사업가의 조언

1) 도미니카에서 한국과 중미·카리브(도미니카, 아이티, 니카라과 등)를 이어주는 전력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ESD사 최상민 사장이 전하는 애로사항과 극복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어본다.

도미니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먼저 언어에서 오는 장벽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로서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없다. 현지의 바이어들 중에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바이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페인어만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 고용 직원들과의 문화적 마찰 극복이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인어의 습득은 필수이며, 바이어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현지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분야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모든 비즈니스에서처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인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지의 신문과 잡지 등을 구독함으로써 시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지의 전시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관련 정부유관 인사들 및 크고 작은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지속시켜야 한다.

도미니카 바이어들은 대부분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외상거래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 거래부터 외상을 원하는 바이어는 충분한 자금이 없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바이어이며, 먼저 오퍼를 하기보다 바이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오퍼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판매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의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급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기존 거래처의 금액을 낮추기 위해 신규 공급자들에게 견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말 구매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 견적을 하기 위해서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구매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가격 및 공급 조건 협상이 매우 까다로우며 대부분 오퍼 또는 사장이 모든 구매 결정을 내린다.

2) 식품류를 취급하는 도미니카의 대표적 교포 무역인이자 자유무역지대 내 박스 제조 기업인이기도 한 J & J사 장인택 사장의 조언을 들어본다.

뉴욕의 JFK 공항에서 도미니카 행 비행기를 타면 빠른 말투와 시골벽적인 분위기를 금방 느끼게 된다. 뉴욕에 100만 명이 거주해서 뉴욕이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의 특성이 보이는 분위기다. 뉴욕에서 3시간 반 거리인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문화, 사회, 경제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국가 대부분의 부를 쥐고 있는 상류계층은 미국식 교육을 받아 서구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중산층과 하위계층은 영어에 서툴고 약속시간을 어기기 일쑤이며 대충 넘어가기 좋아하는 중남미적인 특성이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는 바이어들이 있는가 하면, 상담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거나 가격조율만을 대충해서 넘어가려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겹고 친근한 정서가 있는 그들에게 사업상대가 아닌 편안한 친구로서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가가면, 신의를 중시하고 정이 많은 도미니카 바이어들도 우리의 믿음에 응하게 될 것이다.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생활여건

1) 생필품 조달

대부분의 생필품이 미국, 브라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지만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필품은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난 대형 슈퍼에서는 일상적인 생필품을 큰 불편 없이 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에 있는 구멍가게(콜마도/Colmado)에서는 웬만한 생필품은 배달까지 가능하다.

2) 한국 식품 조달 여건

배추, 무, 쌀 등 많은 농산물과 고추장, 된장, 김 등은 현지 조달이 가능하나 미역, 오징어포 등은 한국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현지 한국식품가게는 산토도밍고 시내에 한국가게 1곳, 중국슈퍼 3곳에서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소,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이나 과일 등은 한국보다 저렴하나 수산물은 다소 비싼 편이다.

라면, 새우깡, 초코파이 등은 한국식품 수입상을 통해 저렴하게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단, 박스 단위로 구입해야 한다.

3) 레저 여건

현지의 열대성 기후 및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다양한 레저활동은 즐길 수 없으나, 골프와 수영 및 해양 스포츠가 주말 레저로 선호되고 있다. 시내에 있는 5~6개소의 헬스클럽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에서도 스포츠 레저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비는 월 100달러 정도면 가능하다. 한편 산토도밍고에서 1~2시간 떨어진 휴양지에 위치한 레저호텔에서는 기본 침식일체가 제공되는 Todo Incluido (All-Inclusive) 패키지로 주말 또는 휴가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1박당 1인당 100~200달러 내외가 소요된다.

골프는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18홀 퍼블릭 골프장이 있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 그린피는 1,500페소(약 45달러)이며, 캐디피는 300페소(1인 라운딩 시) 내지 600페소(4인 라운딩 시)이다. 카트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전 시간대에는 사전 부킹이 필요하며, 부킹 없이 가면 상황에 따라 한참을 기다렸다가 쳐야 한다. 오후 2~3시 이후에는 1~2인 라운딩도 가능하며, 예약 없이도 라운딩이 가능하나 가끔씩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비록 하루 이틀 전이라도 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미니카에서는 PGA 투어를 치른 바 있는 고급 유명 골프장들이 산토도밍고에서 2시간 내지 4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린피가 보통 250~350달러로 매우 비싼 편이다.

4) 치안 상태

지난 1930~1961년 간의 군부 독재로 인해 중미·카리브 지역에서는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미국정부의 범죄인 본국추방 정책으로 1998년 이후 약 6,000여 명이 강제 송환된 이래 2000년대 들어서도 범죄인 강제송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3년 경제위기 발발 이래 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이후 강력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접 빈국인 아이티 극빈자들의 불법체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로 인한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치안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병원, 약국

출산 또는 일반적 외과수술은 현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중병이나 고난도의 수술은 부유층의 경우 미국으로 원정수술을 가는 경향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염가 약품들도 있긴 하나 약값이 대체로 비싸고 의료보험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고 있다.

6) 한국인에 대한 인식

현지 말단조직에서 현지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활하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FREE ZONE 공장의 책임자, 기술자로서 경제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지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인 편이다.

7) 한인회, 한국학교, 한국식당

거주 한국인은 약 550명 내외이며 산토도밍고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진출 우리 기업(주로 섬유봉제업)의 공장 책임자 및 기술자들과 선교사 가족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산토도밍고 시내의 본교와 산티아고, 라로마나 등 2개 지방 도시에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식당으로는 산토도밍고 시내에 3개가 있으며, 제2의 도시인 산티아고에 1개가 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또는 불고기백반 등 1인당 한끼 식사 가격은 보통 8~10달러 정도 선이다.

나. 이주 정착 가이드

산토도밍고 시내에서 주택을 구하려면, 먼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냐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중산층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월 임차료 700~3,000달러 내외에서 임차가 가능하다.

저층아파트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건축된 지 오래되어 임차료는 \$1,000달러 내외이나, 발전기 설비가 없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냉방기나 냉장고의 사용이 중단되거나, 양수펌프의 가동이 중단되어 상수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8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대체로 최근에 건축되어 발전기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정전 시에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서 중산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월 임차료는 1,000~ 4,000달러 대로 천차만별이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중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잘만하면 좋은 가격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고급아파트는 단지 내에 수영장, 테니스장 및 정원을 갖추고 있는데 보통 월 3,000달러 이상이다.

주택임차는 월세를 원칙으로 하며, 부대비용으로서는 보증금과 중개인 수수료가 계약기간 1개년 당 1개월 분 월세가 각각 소요된다. 특히,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후 임차료 자동인상 조항이 삽입된다.

이주 정착자는 비자발급 후 체류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체류허가는 처음 1년 만기 단기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2년 만기에 자동 갱신되는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체류허가증을 취득하고 나면, 중앙선관위(JCE)에서 신분증(CEDULA)이 발급되며, 신분증은 운전면허 취득 등 현지 거주자의 필수 서류이다.

은행의 현지화 구좌는 자유롭게 개설되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단기 체류자의 경우 구좌를 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불구좌도 개설이 가능하나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상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미국에 별도로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행에 개설된 구좌로 발행하는 수표도 환전상이나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만약의 인출동결 조치에 대비하여 제3국에 개설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은행에서는 수표를 바로 찾을 수 없고 예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환전상에서 바로 찾을 수는 있으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산토도밍고 시내에서는 약 2주 내에 전화개설이 가능하다. 전화선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신규 전화개설에 따른 비용은 없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핸드폰 전화의 경우에도 국내 전화서비스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가입 시 비용은 매우 저렴하나 이용요금은 일반 전화의 5배 정도로 비싸고 수신 이용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가구류 등의 비품은 대체로 판매용 재고를 비치하고 있지 않고, 주문 제작에 의하기 때문에 대체로 납기가 2~4주가 소요된다.

1) 전화 신청

전화신청 할 때 계약금(1000~1500페소), 6개월 이상 전화를 이용한 유저 두 명(보증), 신분증(Cedula)이 필요하다.

신청일자 10일 내에 연결해 준다.

2) 정부 등록

구비서류 및 신분증 필요함.

3) 자동차 구입

변호사 선임, 여권(신분증), 차량 신고확인(plan piloto) 필요함.

4) 은행구좌

여권(증명서), 신청 시 꼭 필요함.

5) 병원보험

2x2 증명 사진 3장, 신분증(여권) 카피 1부가 필요하며, 한번 신청 시 1년 계약으로 함.

다. 자녀 교육 여건

자녀 교육여건

학교명	위치	전화	상세정보
Carol Morgan School	Mirador Sur	(809) 537-8080	시설이 양호하며 미국 대학진학 시 학력을 인정하나, 수업료가 매우 비싸고 정원 제한으로 인해 입학의 어려움이 있다. 강사진이 우수함.
American School	Arroyo Hondo	(809) 567-6824	시설은 보통 수준이며 미국 대학진학 시 학력을 인정하나, 수업료가 다소 비싸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학이 불편하다.

* 기타 현지 학교이나 Bilingual(영어, 스페인어)학교인 New Horizons에도 한국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음.

Bilingual 학교

학교명	위치	전화
New Horizons	Av sarasota 51	(809)533-4915
Colegio Dominico-Americano	A Lincoln 21	(809)535-0665
Colegio ABC school	F valerio 2	(809)535-3354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 이스파놀라(Hispaniola)섬의 기온은 일년 내내 에어컨을 틀고 살만큼 더운 편인데, 저지대에서는 연중 내내 화씨 73도 이상이며, 여름 동안에는 화씨 80~91도를 오르내리나 고지대는 섭씨 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상당한 저온을 나타낸다. (연중기온 섭씨 19~28도, 평균기온 25도)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되는 우기에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태풍(싸이클론)이 지나며, '59년의 David, '98년의 George 등은 3등급 이상의 위력으로 도미니카공화국과 카리브 해안 도서국가에 상당한 피해를 남기고 갔다.

2004년도에는 태풍 Jeanne가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여 Jimani 지역 등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2007년에는 11~12월 태풍(Noel, Olga)가, 2008년 9월부터 태풍 Gustav, Hanna, Ike가 홍수를 동반하며 도미니카를 할퀴고 가 수많은 이재민 이 발생했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주요 도시별 위도의 차이가 적어 전국이 유사한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출장 시 추천복장

비즈니스 출장 시, 하계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관공서나 주요 바이어 면담 시에는 정장 착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비즈니스 면담 이 외에는 짧은 팔 소매 옷과 가벼운 바지 등 여름용 캐주얼 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3시간으로 한국이 24:00일 경우 도미니카(공)은11:00이다. 2000년 10월 30일 동계 시간제 적용을 위해 한 시간씩 늦추었다가 에너지 절약 등 관련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원상 복귀하였다.

2) 근무시간

은행, 관공서를 포함한 일반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주5일제로 08:00~17:00이며, 생산 현장 및 유통업체는 주6일제로 월~금요일은 08:00~17:00이나 토요일은 반공휴일로 08:00~12:00이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은 업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토요일 간은 09:00-21:00, 일요일은 09:00-14:00 간 영업을 실시한다.

2005년 하반기 들어서는 고유가에 기인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은행의 업무 시간이 10월3일부로 평일은 오전8시~오후3시로, 토요일은 오전8시~12시로 단축 시행 되었으나, 2006.5월부터는 다시 월~토요일은 09:00~21:00, 일요일은 09:00~14:00으로 환원되어 한동안 시행하다가 현재는 10:00~16:00가 기본 업무시간이 되고 있다.

3) 회계연도

정부의 회계연도는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다. 도량형

1) 도량형

거리에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무게에는 파운드(현지어 Libra)를, 규격에는 인치(현지어 Pulgada) 등 파운드법과 미터법을 혼용하고 있다.

2) 전기, 규격

일반 소형 전기제품은 110~120V, 60Hz를 사용하며, 에어컨, 냉장고, 발전기 등 전압 소비량이 큰 중대형 전기 제품은 220V, 60Hz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110V의 경우에는 소켓은 II자형을 사용하고 있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리나라와는 지난 '82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무비자 입국 및 90일간 단기체류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장기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는 외교, 공용, 의례, 상용, 가족, 관광, 거주, 학생의 8가지로 구분되며 유효 기간은 60일과 1년짜리가 있으며, 구비서류인 신원 증명서(스페인어), 호적 등본(스페인어), 여권, 사진 3매(2x2), 신청서한 원본 및 사본 5매, 양식 509-REF(관광 및 상용비자의 경우) 등을 준비하여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체제 연장을 위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의 비자신청은 한국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이민청에 신청하며,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의 거주자 또는 법인 명의로 이름, 국적, 거주지, 직업, 신청 명의자와의 관계가 명기된 공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신청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 명의자의 재산상태, 국적, 직업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 명의자가 법인이라면 공식용지에 대표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민국(Departamento de Imigracion)으로부터 임시 체류증(Temporary Residence Card)이나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Card)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 체류증은 비자 취득 또는 입국 후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1년이고, 통상 10~12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임시 체류증을 취득하면 장기 체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2년을 만기로 하되 사진 촬영 등의 절차로 자동 갱신된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으로 단·장기 체류증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지 투자진출업체에 장기근무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가급적 주한 대사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 비자를 취득해서 방문하면 편리하다.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을 위한 특별한 방역절차는 없으며, 여행자의 휴대품이 개인용품 또는 선물로서 상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거주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하던 개인 용품, 가사용품 등 이삿짐에 면세가 가능하다.

3) 출입국 유의사항

여타국과 달리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근로허가’ 제도가 없이 체류비자, 임시 체류증, 또는 영주권상에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을 명기하도록 하고 노동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우리나라 국민은 90일 이내에 한하여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공항에서 시내 교통편으로는 셔틀 버스가 없는 관계로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

4) 주의할 점

짐 체크 도중 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좋다.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도미니카공화국의 화폐단위는 페소(도미니칸페소, RD\$)이며, 1RD\$=100센타보이다. 지폐는 10, 20, 50, 100, 500, 1000, 2000페소 등이 있으며, 주화는 1, 5, 10페소와 5, 10, 25, 50센타보가 있다.

근래에 25페소 주화가 등장했고, 2008년 들어서는 200페소 지폐가 새로이 유통되고 있는 한편 10페소 지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20페소 지폐도 점차 유통량이 주는 추세이다. 센타보 주화도 유통이 되지 않는 편이라 절사해서 페소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다.

2) 환율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은 매일 환전 참고환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1998.7.2일의 공식환율 9.3% 절하 이후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말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여 2003. 4월 현지 Banintel 은행 부도사건 이후에는 극심한 환율불안이 야기되어 8월 한때 1달러당 40페소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이듬해 초에는 50페소 선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 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30페소 대로 정착된 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2008년 들어서는 33~34페소 안팎으로 안정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의 경우 현지화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있어 1달러당 37페소가 적정환율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3) 환전

환전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환전소의 교환비율이 유리하다. 환전할 액수가 클 경우 환전소에서 신분증 제출 요구를 할 때도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환전하는 것이 좋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여행항로는 New York(John F.Kennedy 공항)에 도착해서 American Airlines이나 Continental Airline, Delta Airline, Jet Blue를 이용해서 산토도밍고에 도착할 수 있으며, Los Angeles나 New York에서 Miami를 경유, American Airline를 이용하여 산토도밍고나 Puerto Plata시로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Air France를 타고 파리에서 또는 마드리드에서 Iberia항공을 타고 산토도밍고로 올 수도 있다.

□ 도미니카(공) - 미국 항공노선 현황

- American Airline: 뉴욕(케네디공항), 마이아미, 보스턴 - 산토도밍고 구간
- Continental Airline: 뉴욕(뉴욕공항) - 산토도밍고 구간
- US Airway: 필라델피아 - 산토도밍고 구간
- Delta Airline: 뉴욕 - 산토도밍고 구간
- Jet Blue: 뉴욕- 산토도밍고, 뉴욕 - 산티아고 구간
- United Airline: 뉴욕 - 산토도밍고 구간
- 미국 비자가 없는 경우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도미니카 관광지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음.

2) 국내 교통

산토도밍고 시내에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와 버스가 있으며 버스요금은 10페소(0.3달러)이나 대부분의 택시는 기본요금이 120페소(3.6달러)이고, 평균 15~20년 가량의 노후 차량들이며, 한 번에 6명의 승객을 태워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경우에도 중상류층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콜택시를 이용한다.

호텔에 대기한 관광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시내 1회 이용 시, 100~150페소 (3~4.5달러)의 요금을 받으며, AILA 국제공항과 산토도밍고 간은 900~1200페소(27~36달러)를 요구한다.

Avix, Hertz, Dollar, Honda, National 등의 렌트카 회사들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차량 렌트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는 물론 표지판이나 신호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고 운전자들이 도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편이다.

육상 교통시설로서 비교적 잘 갖추어진 도로는 고속도로 12,600km(포장률은 85% 내외), 지방 도로 17,000km가 전국을 연결하고 있으나, 산토도밍고시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 서쪽으로 ‘ㄱ’자 형태로 이루어져 지방간을 연결하는 노선 부족으로 수도권 지역의 병목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철도는 총 757km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중 교통수단으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농장 내에서 사탕수수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3) 국제 통신

도미니카공화국의 통신부문은 일찍이 시장개방과 자율화를 통한 경쟁제도의 도입에 성공하여 가장 선진화된 부문으로서 앞선 장비와 기술로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전화는 일반전화와 Cellular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화국에서 국제전화를 신청,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전화	팩스	서비스내용
CODETEL	(1809)220-1111	(1809)566-7821	전화, 인터넷, Cellular등 종합서비스
TRICOM	(1809)476-4699	(1809)476-4412	전화, 인터넷, Cellular등 종합서비스
ORANGE	(1809)859-6555	(1809)859-1045	전화, 인터넷, Cellular등 종합서비스

국제 간 우편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Courier, Mail Order 업체에서 병행하는 사설 사서함 등이 있다. 과거에는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서 국영 우편서비스 기관인 INPOSDOM의 서비스 사용을 기피하여 왔으나, 최근 서비스가 급속 개선되고 있다.

우편제도	서비스회사	사용료 및 특기사항
국내사서함	INPOSDOM	대형: 가입비 540 페소, 연사용료 1,000페소 소형: 가입비 210 페소, 연사용료 400 페소
해외사서함	EPS	마이애미 해외 사설사서함 서비스 제공 가입비 400 페소, 건별 서비스료 별도
국내우편(연하장기준)	INPOSDOM	8페소 (등기우편)
	EMS	5페소 (심부름 배달증명)
	심부름회사	20페소 (수도권 내)
	METRO	20페소 (시외)
해외우편	EMS(국영)	220페소 (500그램 미만, 2주 소요)
(동남아기준)	DHL	365페소 (900그램미만, 3~4일 소요)
	FEDEX	474페소 (900그램미만, 3~4일 소요)
	TNT	405페소 (900그램미만, 3~4일 소요)

주: EMS는 국영우체국인 INPOSDOM에서 운영하는 배달심부름 회사임
중앙은행 공시환율: 1달러=RD\$34.01, 2008. 5월 환율

4) 국내 통신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외 장거리 통화 및 Cellular서비스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내전화는 기본 요금으로 지불하여, 전화 인심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는 국내 장단거리 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전화	팩스	서비스내용
CODETEL	(1809)220-1111	(1809)566-7821	전화, 인터넷, Cellular등 종합서비스
TRICOM	(1809)476-4699	(1809)476-4412	전화, 인터넷, Cellular등 종합서비스
ORANGE	(1809)859-6555	(1809)859-1045	전화, 인터넷, Cellular등 종합서비스

국영 우체국인 INPOSDOM(Instituto Postal Dominicano)에서 사서함을 포함, 국내외 종합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설 회사로는 산토도밍고 수도권 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심부름 회사, 시외간 장거리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회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통신 가격

사업자명	국내요금	도미니카공화국 → 한국
CODETEL	6.50 pesos	29.00 pesos
TRICOM	5.50 pesos	29.00 pesos
ORANGE	6 pesos	34.41pesos

사. 호텔/식당**1) 도미니카공화국 호텔**

산토도밍고에서 비즈니스 및 국제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특급호텔들은 카리브 해안의 George Washington가(Malecon 지역)에 밀집하여 있으며, 숙박요금은 조식을 포함하여 1박당 100~150달러 수준(Single 기준)이다.

호텔명	위치	전화/팩스
Hotel Renasissance Jaragua	MALECON 거리	(1809) 221-2222 / 686-0528
Hotel Santo Domingo	MALECON 거리	(1809) 221-1511 / 534-5584
Hotel Melia Santo Domingo	MALECON 거리	(1809) 221-6666 / 687-4274
Hotel El Embajador	SARASOTA가	(1809) 221-2131 / 532-5306
Hotel Hilton	MALECON 거리	(1809) 685-0000 / 685-0202

특급호텔 외에1급 호텔로서 비즈니스맨이나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은 실내외 Pool과 Tennis Court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숙박요금은 계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1일 3식 포함하여 50~90달러(1인 기준) 수준이며 장기 체류 시에는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

호텔명	위치	전화/팩스
Hotel Gran Lina	Maximo Gomez가	(1809) 563-5000 / 685-9519
Hotel Dominican Fiesta	Mirador Sur공원쪽	(1809) 562-8222 / 482-8938

호텔 클럽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예약을 하면 20~30% D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도미니카공화국 식당

연간 300여 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탈리아식, 스페인식, 멕시코식, 아랍식, 중국식, 일식, 한식 등 다양한 식당과 맥도날드, 버거킹, 타코벨, KFC, Out-Back, TGIF 등 Fast Food점이 산토도밍고 시내 각지에 있다.

□ 이탈리아식 및 스페인식

- Vesuvio
 - Add: Av. George Washington #521, Santo Domingo
 - Tel: (1809) 221-1954
 - Fax: (1809) 221-3300

- Fellini
 - Add: Av. Roberto Pastoriza #504, Santo Domingo
 - Tel: (1809) 540-5330
 - Fax: (1809) 541-4924
- Neptuno's
 - Add: Boca Chica, Santo Domingo
 - Tel: (1809) 523-6534
- El Meson de la Cava(동굴 식당)
 - Add: Av. Mirador del Sur No. 1, Santo Domingo
 - Tel: (1809) 533-2818
- Sully
 - Add: Av. C. Summer/C.Las Caobas, Santo Domingo
 - Tel: (1809) 562-3389

□ 한식, 일식, 중식

- Restaurant Coreano Manna(한식)
 - Add: Calle 12 de Julio #7, Bella Vista, Santo Domingo
 - Tel: (1809) 535-3355 /535-5533
- Restaurant Bella Cristal(중식: 여정주가)
 - Add: Roberto Pastoriza No. 458, Ena. Piantini, Santo Domingo
 - Tel: (1809) 540-2923
- Restaurant Samurai (일식)
 - Add: Av. A. Lincoln #902, Santo Domingo
 - Tel: (1809) 565-1621

식당	이탈리아 & 스페인식	일식	한식	중식
가격대(1인)	400~1,300 pesos	400~1,200 pesos	300~500 pesos	200~500 pesos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기간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음 접촉하는 담당자의 성실도나 인간성 등이 처리 소요 기간을 크게 좌우한다. 부하에 대해서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표적 특징)되어 있으며, 행정의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의 잘못된 처리나 과도한 지연 처리 등에 대한 사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선입견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현지의 법규 및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변 인맥을 동원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시간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유선으로 약속을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면담 요청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사전 약속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속시간을 무시하고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불편한 심정으로 면담을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후 면담을 재 요청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면, 바로 응대 받는 경우도 있어서 좋고, 불필요한 감정의 여운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 방식

도미니카(공)의 공휴일은 전국 공통이며, 1997.6.19일 발표된 법률 제139-97호에 의거 종교기념일을 제외하고는 화,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주 월요일로 앞 당기고, 목, 금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된다.

단, 8월16일의 경우에는 매4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에만 요일을 변경한다.

2008년도 도미니카공화국 공휴일 일정표

1월1일(월)	El Año Nuevo(신정/ 12월31일 오후부터 휴무)
1월6일(일)	Día de Reyes Magos(동방박사일/어린이날)
1월21일(월)	Día de Nuestra Señora de la Altagracia(알타그라시아 성모일)
1월26일(토)	Día de Duarte(독립영웅 두아르테 탄신일)
2월27일(수)	Día de la Independencia(독립기념일/ 대 스페인 1차 독립)
3월21일(금)	Viernes Santo(부활절/ 목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휴무)
5월5일(월)	Día del Trabajo(노동절/ 당초 5월1일)
5월16일(금)	대선투표일(매 4년 주기)
5월22일(목)	Corpus Christi(성체일)
8월16일(토)	Día de la Restauracion(광복절/ 대아이티 2차 독립)
9월24일(수)	Día de Nuestra Señora Mercedes(메르세데스 성모일)
11월6일(목)	Día de la Constitución(제헌절)
12월25일(목)	Día de Navidad(성탄절/ 12월24일 오후부터 휴무)

2) 출장 지양 기간

공식적인 공휴일은 상기와 같이 연간 12일이며, 대부분의 기업주는 7~8월과 12~1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휴가를 떠나고 있어, 동 기간은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미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이 친척 방문 등으로 귀국 러시를 이루기 때문에 항공권 확보가 어렵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 준비

□ 의복 준비

연중 내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씨가 계속되므로 하복을 준비하면 된다. 일부 냉방시설이 완비된 유명 식당이나 호텔, 연회장 등은 실내온도가 매우 낮아, 일반적으로 긴팔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좋다.

우기로 분류되는 6월부터 10월 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차례 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상적인 호우는 5분에서 30분 내외로 지속되므로 호우 중에는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과거의 예로 보아 9월을 전후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점에서 동 기간 여행 시에는 사전 준비 때는 물론 여행 중에도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2004. 5. 23일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국경지대인 Jimani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로 인해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예처럼 비가 집중호우성으로 내리기 때문에 여행 중에는 필히 일기 예보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전기 규격

일반 가정용 전원은 110V 60Hz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콘센트가 접지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용되고 있으나, 전력소비량이 높은 에어컨은 220V 60Hz를 기본으로 하며 3상 코드를 사용한다.

2) 여행 여건

□ 치안

지난 1930~1961년 동안의 군부 독재 탓인지 중미 카리브 지역에서는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최근 미국정부의 범죄인 본국추방 정책으로 '98년 이후 약 6,000여 명이 강제 송환 당하여, 강도사건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미국을 향한 중남미 지역의 마약과 밀매자금 경유국으로서, 전국적으로 마약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나 연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택시

산토도밍고 시내에서 일반 서민들은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Concho 또는 Derecho라는 소형 택시를 주로 하고 있으며, 요금은 12페소(0.3달러)이다. 대부분의 대형택시는 평균 15~20년 가량의 노후 차량들로 한 번에 6명의 승객을 태워 외국인도 물론 내국인의 경우에도 중상류 층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주로 콜택시를 이용한다.

호텔에 대기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택시회사에 전화로 부르면 약 3~5분 내에 도착하는 콜택시를 이용하면, 시내의 경우 1회당 140페소(4.2달러)의 요금을 받으며, AILA국제공항과 산토도밍고 간은 900~1200페소(27~36달러)를 요구한다.

한편 최근에는 시내 일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형버스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요금은 5~15페소(0.15~0.45달러)이다. 최근까지는 제한된 지역만 운행하고 있으나 향후로 점차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Avis, Hertz, Dollar, Honda, National 등의 렌터카 회사들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차량을 렌트해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는 물론 표지판이나 신호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고 운전자들이 도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 정비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 응급

화재, 응급환자 신고는 '911'이지만 환자발생의 경우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신속 하게 환자를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UCE 종합병원은 비교적 많은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의료시설은 매우 빈약한 편이며, 곳곳에 약국이 있어 필요한 약은 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값이 비싸므로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던 소화제, 설사약, 외상치료 연고 등 비상 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풍토병을 옮기는 모기가 매우 많은 편으로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몰파스나 연고 등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팁 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팁을 줄 필요가 없으나, 짐을 싣고 내려주는 경우에는 20페소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좋으며, 호텔이나 포터가 짐을 옮겨주는 경우에도 약 20페소(또는 1달러) 내외의 팁을 주면 좋다.

국제공항에서는 포터나 택시기사들의 과도한 요구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으나, 현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면 50페소 한도 내에서 지불하면 되며 구태여 팁에 대한 흥정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에서는 음식값에 서비스료를 10% 포함하여 청구하므로 별도의 팁을 지불할 의무는 없으나, 종업원의 친절에 대한 보상의 표시로 5~10% 정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팁은 청구서상 "Ley(법)" 또는 "Tax(세금)"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Propina Legal (법정 팁/10%)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팁을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 팁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에서 팁이란 말을 생략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식수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지 않으며,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여 마신다.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는 주로 식수업체에서 제조하는 5갈론짜리 식수를 비치하여 무료로 제공하며, 미네랄 워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 이발소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없어, 현지인 이발소를 이용한다. 머릿결이나 스타일이 현지인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람에게 자주 이용하는 이발소를 추천 받아 이용하면 되고, 요금은 400페소 정도이다. 과거에는 산토도밍고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자 미용실이 1개소 있었으나 지금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구두닭이

시내 주요 거리는 물론 이발소나, 슈퍼마켓 주변, 관광단지 카페 등에서 구두닭이 소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요금은 부르는 게 값이지만 대략 10페소 정도면 충분하다.

□ 쇼핑

쇼핑으로는 Conde 라는 곳에 가면 면세점 등에서 여행용 선물을 살수 있을 것이다.

□ 물가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저급품과 커피, 시가 등 전통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값이 비싸 서울 물가수준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 쇼핑장소

시내 중심가 27 de Febrero(베인티시에테 데 페브레로)에 있는 Plaza Central(플라사 센트랄)에는 중고가 쇼핑몰로 쇼핑하기에는 가장 적당하다. 그 외에 많은 쇼핑센터가 있는데 Plaza Lama, La Sirena, La Nacional, Acropolis, Bellavista mall, Jumbo, Carrefour, Cadena, Bravo 등을 들 수 있다.

Duarte(두아르테)라고 불리는 시장에는 값싼 저가품을 위주로 하여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같이 많은 노점상과, 인파 차량 등으로 여행객들이 방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현지에서 특별히 기념품으로 구입할 만한 특산품은 없으나 럼주나 커피, 시가 등은 방문 기념으로 구입할 만하다.

카. 유용한 연락처

도미니카 경제단체

단체명	위치	전화/팩스
상공회의소	Arzobispo Nouel #206	(1-809) 682-2688 / 685-2228
수출투자진흥청	Plaza de Bandera	(1-809) 530-5505

한국기관

단체명	E-mail	전화/팩스
대사관	corea.emb@codetel.net.do	(1-809) 532-4314 / 532-3807
무역관	sdqktc@codetel.net.do	(1-809) 567-9733 / 567-9737
투자진출업체협회	-	(1-809) 533-8860
한인회	-	(1-809) 567-0559

콜택시

택시 회사명	전화번호
Apolo	1-809-537-0000
Anacaona	1-809-530-4800
Tecni Taxi	1-809-567-2010
Excelente	1-809-593-8000
Edwin	1-809-245-8890

비상연락처

연락처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무역관	1-809-567-9733
산토도밍고 대사관	1-809-532-4314
한인회	1-809 567-0559

타. 기타 유용한 정보**1) 주요 쇼핑센터**

- 아크로폴리스(Acropolis)
 - 도미니카 공화국 내 현존하는 가장 높은 빌딩(22층)이며, 사무실과 쇼핑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 건물이다. 중상류층이 주 고객이다. 현재 33층 아파트 건축 중이며, 완공 시 최고층 빌딩으로 등극하게 된다.
 - 주소: W Churchill
 - 전화: (1-809)955 2020
- 베자비스타 몰(Bellavista Mall)
 -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규모 쇼핑몰로 중상류층이 주 고객이다. 다른 쇼핑몰과는 달리 1층에 대형마트가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쇼핑몰이다.
 - 주소: Av. Sarasota 62
 - 전화: 1-809)255 0664
- 말레콘센터(Malecon Center)
 - 바닷가에 접한 쇼핑몰로 힐튼 호텔과 나란히 건축되었다. 주 고객은 중상류층이며 아직까지 개점하지 않은 점포들이 많이 있다.
 - 주소: Av G Washington 503
 - 전화: 1-809)412 7441
- 플라자 센뜨랄(Plaza Central)
 -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꽤 오래된 쇼핑센터이며 중하류층 고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시내 중심가 사거리에 접하고 있으며 쇼핑센터 중 가장 다양한 점포를 지니고 있다.
 - 주소: Av 27 de Febrero Esq. W. Chulchill
 - 전화: (1-809)872 0353

- 메가 썬트로(Mega Centro)
 - 중하류층이 주고객
 - 주소: Av san V de Paúl Esq. Carretera Mella
 - 전화: 1-809)236 7660
- 벼룩시장
 - 매주 일요일이 되면 루페론(Luperon) 거리에서는 벼룩시장(Mercado de Pulga)이 열리며 다양한 물건들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

2) 특산물

도미니카 공화국의 특산물로는 Ambar(암바르)라 불리는 호박이 있다. 호박은 액세서리 용으로 쓰이며 호박 목걸이 펜던트, 귀걸이, 반지 등이 있다.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으며 대형 쇼핑매장이나 액세서리점, 호텔의 GIFT SHOP 등 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파. 관광 명소

1) 시내 관광 명소

산토도밍고 시는 신대륙 발견 이후 최고의 도시로서 많은 유적지가 있으며, 동부와 북부의 카리브 해변에는 골프장, 카지노 등 위락시설을 갖춘 관광단지가 다수 개발되어 있다.

시내의 고시가지에는 신대륙 발견 이후 최초의 성당(Catedral), 콜럼버스의 유해를 보관한 파로아 콜론(Faro a Colon) 등대, 동굴호수가 있는 Los Tres Ojos,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판테온 등과 식당이나 화랑 등으로 이용되는 15세기식 석조건물이 즐비하다.

2) 시외 관광 명소

수도에서 120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의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까사데 캄포(Casa de Campo)는 종합 관광단지로서 해수욕장, 골프장, 사격장, 테니스장, 승마장 등과 공개 음악당과 기념품 가게 및 유명식당이 밀집된 알토 데 차봉(Alto de Chavon)이 있다.

특히 54홀 골프코스 가운데 Teeth of Dog 18홀은 PGA 랭킹 100대 골프장중 24위(2004년 랭킹 기준)로 알려져 있다.

동부 끝에 위치한 punta 까나(Punta Cana)와 Bavaro는 지역은 수도에서 약 200킬로 미터 지점으로서 카리브 해의 맑은 물과 모래사장, 강한 태양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단지로 최근 개발된 곳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설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유럽인들이 단체로 관광을 오기도 한다.

북부 해안에는 부에르토 벨라타(Puerto Plata), 사마나(Samana), 벨라야 그란데(Playa Grande) 등이 수도기점 약300킬로미터 지점에 개발된 관광단지이다. 특히 벨라야 그란데에는 1998년에 완공된 골프장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어, 내외 방문객들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외의 관광명소는 해외에서 전세항공기가 유명 관광지로 직접 도착하기도 하며 일반인의 경우는 공항이나 산토도밍고 시내 호텔에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호텔의 경우 관광 택시가 지역별 정액요금을 받고 각 지역으로 안내하고 있다.